

최종 세미나 10/14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초·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 경제단원 내용 검토 (국민공통기본교과)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경제정보센터  
한정국경제정보센터  
KDI경제정보센터

초·중·고교 사회교과서 경제단원 내용 검토  
(국민공통기본교과)

2005. 10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형준(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이윤희(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한진수(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KDI 경제정보센터**

#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2장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경제 관련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검토 .....	4
I. 서 론 .....	4
II. 초등학교 경제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 .....	6
1. 사회과 성격 및 목표에 대한 검토 .....	6
2.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 분석 .....	6
III. 학년별 교과서에 대한 검토 .....	15
1. 교과서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 .....	15
2. 학년별 교과서에 대한 검토 의견 .....	16
제3장 중학교 9학년 사회교과서 경제 관련 부분에 대한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내용 검토 .....	64
I. 서 론 .....	64
II. 교육과정의 사회과 성격 및 목표에 대한 검토 .....	66
III. 중학교 3학년 경제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 .....	67
1. 전체적인 소견 .....	67
2. 경제 교육과정의 단원별 검토 .....	76
IV. 중학교 3학년 경제 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 .....	95
1. <고려출판> 교과서 .....	95
2. <교학사-차경수> 교과서 .....	102
3. <교학사-황재기> 교과서 .....	107

4. <금성출판사> 교과서 .....	113
5. <동화사> 교과서 .....	123
6. <디딤돌> 교과서 .....	128
7.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과서 .....	134
8. <지학사> 교과서 .....	141

#### 제4장 고등학교 10학년 사회교과서 경제 관련 부분에 대한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내용 검토 .....	147
I. 서    론 .....	147
II. 교육과정 분석 .....	149
1. 교육목표에 대한 검토 .....	149
2.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 분석 .....	150
3. 교육과정 단위별 내용 분석 .....	153
III. 교과서 분석 .....	162
1. 전체 교과서 포괄적 내용 분석 .....	162
2. 전체 교과서 단위별 내용 분석 .....	165
3. 개별 교과서 내용 분석 .....	167

제5장 결    론 .....	238
1. 초등학교 부분 .....	238
2. 중학교 부분 .....	239
3. 고등학교 부분 .....	242
참 고 문 헌 .....	245

## 제 1 장 서 론<sup>1)</sup>

최근 몇 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제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와 비판이 많았다.<sup>2)</sup> 이는 우리사회가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증거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한 비판의 결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저술된 사회교과서의 경제관련 내용은 제6차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집필된 교과서에 비해 전체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각 교과서 집필자들이 지나친 이론중심의 전개방식을 탈피하고 현실사례 등을 함께 제시하여 이론의 현실 응용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되도록 편향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교재를 집필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특히 여러 매스컴이나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다양하고 흥미 있는 창의적 사례와 자료를 발굴하여 제시한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저술되어 현재 사용 중인 초·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제관련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비판과 제언이 계속되고 있다.<sup>3)</sup> 그런데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특정 기관의 이해를 중심으로 고정된 특정 시각을 가지고 교과서 내용을 비판하였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이에 학자들이 상대적으로 독립된 시각을 가지고 사회교과서 경제관련 부분의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를 인식해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

---

1) 필자들은 초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경제관련 부분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재정경제부 조원동 정책기획관, 진승호 과장 및 김준구 사무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조병구 소장, 천규승 경제교육실장, 김예기 박사 및 총무 일을 담당한 윤철환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한다. 또 많은 분량의 중간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격려와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해 준 서울도곡초등학교 백경 선선생, 부산동주중학교 임화자 선생, 서울영동고등학교 허균 선생, 그리고 한국은행 최원락 팀장과 박재진 차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박병진 차장, 대한상공회의소 손영기 팀장 등 경제유관 기관의 담당자들에게도 감사한다. 그렇지만 모든 비판과 제언들을 이 보고서에서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밝히며, 필자들의 한계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2) 김병주 외(1997), 김영용(1997), 김정호(1997), 대한상공회의소(2003), 한진수(2003)

3) 김승욱(2005),

교과서에 경제관련 내용은, 예컨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등장하는 상인(商人)이 어떻게 비취지고 있는지 등등, 초·중·고등학교 거의 모든 과목의 교과서와 사회교과서 내에서도 한국지리, 세계사 등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번 연구에서는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초·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제관련 부분의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사회 교과서 경제관련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첫째, 잘못 기술된 개념이 있는 지 살펴보았다. 특히 개념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제용어는 없는 지, 또는 개념을 잘못 기술한 경제용어는 없는 지 살펴보았다. 둘째, 예컨대 ‘지나친’ ‘과도한’ 등등 분명하게 개념을 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았다. 셋째, 교과서에서 제시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예제풀이와 현실사례조사연구가 각 학습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수행 가능한 현실적인 과제인지 또는 너무 어려운 과제인지 검토하였다. 넷째, 경제체제, 효율과 형평, 기업가정신, 부의 축적, 경쟁, 형평성, 시장과 정부의 실패, 개방화 등등에서 학습자를 오도하거나 편향된 시각을 갖게 할 여지는 없는 지 검토하였다. 다섯째, 비록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교과서의 각 주제별 내용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또는 적은 비중이 주어진 것은 없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여섯째, 교과과정과 교과서 내용 가운데 침삭할 주제는 없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원래 필자들에게 주어진 연구과제는 초·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경제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였다. 그런데 개별 사회 교과서의 경제관련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대부분의 사회교과서의 경제관련 부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 원인이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주어진 교과서 집필지침인 교과과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 가 살펴본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부분의 교과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비록 이 보고서 차례에는 초·중·고등학교별 교과과정 검토결과가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에 개별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가 제시되어 있어서, 어

찌 보면 교과과정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에 근거해서 개별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교과과정 검토는 교과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란 점을 밝히고 싶다. 사회교과서 교과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내용과는 별도로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독립된 연구과제로 시도되어야 할 방대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검토 작업은 개별 교과서의 내용을 각 페이지별로 즉 미시적으로 검토하여 오류나 한계와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종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수정하는데 참고하도록 제시하고, 일부는 다음에 교과과정을 개발할 때 참고하도록 부분적이지만 교과과정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수정할 부분을 찾아내고, 차후 교과과정 개발에 참고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 교과서의 한계와 문제점만을 집중적으로 찾아보았다. 그렇지만 그것이 개별 교과서의 우열을 평가하거나, 특히 교과서 집필자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개별 교과서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훌륭한 점에 대해서는 연구목적 상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제8차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보다 바람직한 제8차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집필된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본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의견(feedback)을 참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이에 관련된 연구를 하지 못하였음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며, 추후 연구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제3장에서는 중학교 사회교과서 그리고 제4장에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경제관련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한다.

## 제2장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경제 관련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검토

### I. 서 론

이 연구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제 관련 내용을 분석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현행 사회 교과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교과서 개편 작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 3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 3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 4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
-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통합 교과를 지향하고 있는 제7차 교육 과정의 사회 교과서에서 경제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회 교과서에서 경제 관련 단원이나 내용만을 순수하게 추출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회과 교육과정 연구들에 의해서 경제 관련 단

원이라고 공통적으로 거론된 부분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다.

사회 교과서 외에도 실과 교과서와 2학년 2학기의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에 경제 관련 내용이 나오며, 국어 교과서 등에도 경제 관련 소재가 등장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다만 사회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에는 분석을 하였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교과서 분석과 연계시켜 제시한다. 그 이유는 이 연구의 기본 취지가 사회 교과서의 분석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교육과정을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모태로 해서 탄생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인 교과서 분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함께 시도한다.

제Ⅱ장에서는 초등학교 경제 관련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한다. 그리고 제Ⅲ장에서 학년 및 학기 순서대로 사회 교과서를 상세히 분석한다. 현행 교과서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이 연구가 어디까지나 더 나은 미래의 교과서를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의미에서 좋은 점들은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이 연구는 교과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 이 연구에는 현재 잘못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보다 이상적인 교과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제언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부적절한 삽화처럼 교과서 저자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담겨 있음을 밝힌다.

## Ⅱ. 초등학교 경제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

### 1. 사회과 성격 및 목표에 대한 검토

사회과의 성격(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적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과정, p. 29)

통합 사회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사회과의 성격을 규명한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경제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가 명시적으로 한 마디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회과의 성격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변의 사실과 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일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 분석

#### 1) 내용의 편제와 구성상의 문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경제 내용에 해당되는 단원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교사들이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제 개념들을 함께 정리해보았다.

〈표 1〉 초등학교 사회의 학년별 경제 내용

학년-학기	단원명과 주제명	관련 경제 개념
3-1	2.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 2)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근로, 통계표, 산업
	3. 고장 생활의 중심지 1) 시장과 우리 생활	의식주, 재화, 시장 상호의존, 거래, 소비자, 생산자
3-2	3. 살기 좋은 우리 고장 1) 고장의 여러 기관과 단체	정부의 역할
4-1	2. 우리 시·도의 발전하는 경제 1) 우리 시·도의 자원과 생산 활동	자연자원, 생산, 무역, 수출입, 정부의 역할, 공공시설(공공재), 세금
	2) 서로 돕는 경제 생활	분업, 특화, 교환, 화폐, 상호의존, 조사 방법, 수출입
4-2	3. 가정의 경제 생활 1) 다양한 생산 활동과 가정의 소득	희소성, 선택, 기회비용, 의사결정, 효율, 생산, 생산요소, 소득, 소비, 지출
	2) 알뜰한 살림살이	상충, 합리적 소비, 은행, 저축, 이자, 금융기관
5-2	1.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 1) 우리 나라 경제 생활의 특징	자유, 경쟁, 경제 체제, 산업의 종류, 경제 성장, 실업, 경제 위기
	2) 세계로 뻗어 가는 우리 경제	자원, 무역, 수출, 수입,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기술 개발
	2. 정보화 시대의 생활과 산업 1) 정보화 시대의 생활	정보, 광고, 전자상거래
	2) 첨단 기술과 산업의 발달	기술 개발과 산업
6-1	3. 대한민국의 발전 2)-③ 한강의 기적에서 통일로	경제 성장, 1인당 국민소득, 경제 위기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채택하고 있는 종적 내용 조직의 기본 원리는 환경 확대 접근법(expanding-environment approach) 또는 경험 영역의 확대 원리(widening-horizons principle)라 할 수 있다. 학년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의 환경 이해 범위가 넓어진다는 계열(sequence) 이론에 따라 우리 사회 교과서는 3학년에서 우리 고장, 4학년에서 우리 시·도, 5학년에서 우리 나라를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사회 교과서는 경험 영역의 동심원적 확대 원리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

학년별로 볼 때 경제는 4학년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경제 교육은 사실상 5학년에서 끝난다. 6학년에도 경제 관련 내용이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이를 경제 분야로 간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역사 분야에서 우리 나라의 현대사를 다루는 가운데 극히 일부분으로 경제 소재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환경 확대 접근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는 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개로 하더라도 교과서가 이 접근법에 충실하다 보니 일부 경제 개념이 중복되어 다루어짐으로써 일부 단원에서 희소한 페이지 수가 낭비되고 있다. 또 일부 중요한 경제 개념은 적절한 위치, 즉 적절한 학년에 놓여있지 않으며, 아예 다루어지지 못한 경제 개념들도 여럿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희소성과 선택, 의사결정이 4학년 2학기에 나오는데 이것들은 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다. 즉,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3학년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사회 교과서는 3학년에서 ‘우리 고장’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룰 만한 적절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신 4학년 2학기 뒷 부분에 ‘가정의 경제 생활’이라는 단원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지역’을 다루고 있는 4학년 2학기에서 ‘우리 가정’은 환경 확대 접근법 상으로 볼 때에도 적절한 위치가 아니다.

시장의 모습이나 역할이 3학년 1학기에서 이미 다루어졌는데 4학년 1학기에서 또 다시 시장의 다양한 모습이라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3학년에

서는 우리 고장의 시장, 4학년에서는 우리 시·도의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이라는 동일한 소재가 반복된 결과이다. 물론 4학년이 심화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 교과서 내용은 심화보다는 단순한 반복에 더 가깝다. 이와는 달리 정작 초등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시장 경제와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4학년 1학기 우리 시·도의 경제 단원에서 무역과 수출입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업이 무역을 하는 예를 들고 있는 것이다. 무역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구태여 2개 학년에 걸쳐 다룰 필요는 없으며 더욱이 무역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래라는 정의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역 관련 내용은 우리 나라를 다루고 있는 5학년 2학기에서 한꺼번에 취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처럼 일부 중요한 개념들이 적절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문제, 일부 개념이 여러 학년에 걸쳐 불필요하게 반복되어 다루어진다는 문제, 일부 중요한 내용이 아예 누락되어 있다는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집필할 때나 검수할 때 특정 학년의 교과서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말고 전체 학년의 교과서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정하고, 학년별 교과서를 일관성 있게 검토함으로써, 내용의 위치 조정 및 배치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 2) 보강해야 할 내용

모든 의사결정의 출발점은 개인과 가정이다.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인과 가정의 경제 생활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개인 및 가정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경제 원리나 개념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가정에 대한 내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고장, 지역, 국가, 세계에 비해서 작다. 개인과 가정의 경제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3학년 1학기에 의식주나 재화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 재화 이야기

만 있고 서비스 이야기가 없다.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서비스보다는 재화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서비스도 그리 어려운 개념이 아니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초등학생들이 소비하는 것 가운데에는 서비스도 매우 많이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비스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우리 나라도 이 현상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화와 서비스는 함께 취급할 필요가 있다.

4학년 1학기에 분업과 특화, 상호의존 등의 내용이 나온다. 사람들이 분업을 하거나 지역별로 특화하고 물자를 교환함으로써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분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분업을 하는 이유와 이점이다. 왜 사람들이 분업을 하게 되었는지, 분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즉 효율성 또는 생산성 제고 효과) 등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3) 균형 있는 시각이 요구되는 내용

정부의 역할이 과도하게 언급되어 있다. 3학년 2학기의 '살기 좋은 우리 고장'과 4학년 1학기의 '우리 시·도의 발전하는 경제'와 5학년 2학기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에서 각각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과서 곳곳에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거나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개별 경제 주체가 국가를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초등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고 기업은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의 결과 자신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원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결국 초등학생들에게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하는 일을 강조함으로써 합리적인 민주 시민을 키우겠다는 사회과의 목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에 고마워할 줄 아는

시민, 정부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 시민, 정부에게 의지하는 소극적인 시민을 키울 우려가 있다.

이에 비해서 경제 주체의 한 축인 기업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없다. 시장 경제 및 자본주의의 중요한 축이자, 경제 성장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인 기업이 경제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중요한 내용이다. 또 기업이 이윤을 벌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정부도 이득을 얻게 되며, 그 결과 수출도 잘 되고 경제 성장도 가능해진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5학년 2학기 ‘세계로 뻗어 가는 우리 경제’ 단원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비해서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 이야기는 없다. 초등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니고 세계화 흐름 속에서 적극적인 국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이야기와 더불어 해외 기업의 우리나라 진출 사례도 함께 서술할 필요가 있다.

#### 4)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

3학년 1학기 와 4학년 1학기에 나오는 시장의 역할 설명은 그야말로 단편적인 지식일 뿐 아니라 상당 부분 중복된다. 시장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시장 고유의 역할은 설명하지 않으면서 이벤트성 활동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욱이 2개 학년에 걸쳐서 시장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전달해 줄 필요는 없으며 4학년에서는 가격 결정 기구나 심판자로서의 시장의 역할 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

4학년 2학기에서 생산요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단순히 생산을 위해서는 3가지 생산요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즉, 학생들에게 3가지 종류의 생산요소를 암기시키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자주 지적된다. 즉,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주입시키는 대표적인 예로 국내외 경제교육계에서 자주 거론하는 것이 바로 3가지 생산요소 관련 내용이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생산요소를 가르칠 때에는 3가지 생산요소의 이름을 외우거나 구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생산요소를 잘 사용하거나 더 나은 생산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경제 성장과 발전이 있었으며 우리가 지금 그 결과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역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경제교육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 5) 추가해야 할 내용

4학년 1학기에 희소성과 선택, 의사결정 내용이 나오지만 정작 중요한 기회비용 개념과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른다는 경제의 첫 번째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회비용을 옳게 인지해야 합리적인 선택과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역시 자신 주변에서의 간단한 선택 예들을 통해서 기회비용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인적 자본)이라는 내용이 없다.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이유나 일을 하는 이유만 제시되어 있을 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4학년 2학기에서 은행(금융기관)과 이자 관련 내용이 나온다. 이자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미약할 뿐 아니라 은행이 이자를 주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도 없어 은행이 어떻게 이윤을 벌고 있으며 고객에게 주는 이자가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별로 없다. 심지어 은행은 정부기관이어서 정부가 이자를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초등학생들도 있다.

또 개인 금융(personal finance) 관련 내용이 없으며 소비자 교육 관련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자는 원금, 이자율, 예금 기간에 비례한다

는 것, 그리고 금융기관별로 또는 예금 상품별로 이자율이 다른데,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기관이나 예금 상품을 고르는 방법 등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기 위한 지식, 권리, 의무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소비 또는 금융과 관련해서 신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신용의 의미나 신용의 중요성을 가르침으로써 신용이 소비를 편리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잘못 관리하면 커다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경제의 기본 내용인 수요, 공급, 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도 빠져있다. 수요곡선, 공급곡선, 그리고 이들을 이용한 가격의 결정 원리는 중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 이 내용을 빼버렸다. 그렇지만 초등학생들도 물건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내린다는 사실을 농수산물처럼 쉽게 접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예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가격 결정의 원리 역시 그리 어렵지 않게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준다는 내용 정도도 추가되어야 한다.

실업 관련 내용은 5학년 2학기에 나오지만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모든 나라의 경제 목표 대상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며 초등학생들도 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돈이 많이 갖게 되면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정도를 가르쳐야 한다.

기업이나 기업가의 역할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과서의 경우 6학년 2학기 3단원이 '세계 속에 한국을 심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이 단원에서 기업가가 빠져있다. 교과서가 특정 기업가를 거론하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좋은 기업과 훌륭한 기업가가 우리 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기술함으로써 기업이나 기업가의 역할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 6) 삭제 또는 축소해야 할 내용

5학년 2학기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 21세기의 화두가 정보화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많은 분량을 차지해야 정도로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교과서 페이지 수로 볼 때 분량은 많지만 실제로 알맹이는 별로 없어 아까운 페이지 수를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내용을 좀더 압축 처리하여 축소하고 다른 경제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sup>4)</sup>

5학년 2학기에 수출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수출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 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을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 대신 수출 관련 내용의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5학년 2학기에 경제 위기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는데 제한된 교과서 페이지 수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에는 경제 위기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였다는 점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경제 위기가 중요하고 지금도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 40여년의 경제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는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

4) 정보화 단원은 경제뿐 아니라 여러 교과 영역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축소 또는 내용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교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Ⅲ. 학년별 교과서에 대한 검토

#### 1. 교과서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

사회 교과서는 종적 내용 조직의 측면에서 볼 때 환경 확대 접근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동일한 개념과 비슷한 내용이 2개 학년에 걸쳐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교과서의 페이지 수를 비효율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꼭 필요한 개념이나 원리는 정작 다루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 직업 또는 산업, 정부의 역할, 무역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용어의 통일과 내용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학년별로 집필진이 다르다 보니 학년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다른 용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대표적인 예가 직업과 산업의 종류이다.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에서 이야기하는 직업 분류와 4학년 1학기 직업 분류 체계가 다르다. 또 산업의 명칭이 한국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다르다. 학년에 구분 없이 동일하고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년별 계열성(sequence) 검토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심화 학습이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은 한 번만 다루도록 조정하고 대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경제 내용을 집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틀리거나 부정확한 내용이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다. 초등학생들은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일수록 더욱 정확한 내용의 교과서가 요구

된다. 초등학교 교과서이므로 아무나 대충 써도 된다는 식의 사고는 매우 위험하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도 사회과 세부 영역 전문가와 함께 해당 영역을 집필해야 한다.

## 2. 학년별 교과서에 대한 검토 의견

### 1) 3학년 1학기

#### 2.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

##### 2)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 3. 고장 생활의 중심지

##### 1) 시장과 우리 생활

‘2.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 단원의 목적은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직업이 보람 있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단원의 목적이나 교과서 내용을 보면(아래에 제시된 예 참조) 일을 통해 고장이 발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준다는 관계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일이 갖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의미는 자신의 소득을 얻기 위함이다. 자신이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로 고장이 발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일을 하는 첫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교사용 지도서에 언급되어 있듯이 ‘3. 고장 생활의 중심지’ 단원의 주된 목적은 시장의 종류, 물건의 종류 등과 같은 지식 외에 시장이 우리 고장을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시켜 주는 구실을 함과 동시에 다른 고장과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의 입지 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시장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교환, 가격 결정, 수요와 공급의 조절 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한 마디로 지나치게 지리 교과 위주의 시각으로 작성되었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시장의 구실을 가르치도록 언급이 되어 있지만 교과서의 내용(p. 84)만 가지고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수빈이가 알아볼 것

○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 그 일을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 (p. 54)

농사짓는 사람들은 우리가 먹을 여러 가지 곡식과 채소, 과일을 가꾸니다. 농사짓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곡식과 채소, 과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p. 56)

의사 선생님은 우리가 아플 때에 치료를 해 줍니다. 많은 사람을 치료할 때에는 힘이 들지만, 병이 나은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p. 57)

사람들이 일을 하는 주된 목적은 자신의 소득을 벌기 위함인데 이런 측면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마치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일할 뿐이다. 자신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자신에게도 이득이지만 그 결과 남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논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수빈이가 알아볼 것의 내용으로 “왜 일을 하고 있을까?”를 추가한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우리가 먹을 여러 가지 곡식, 채소, 과일을 가꾸면서 돈을 벌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곡식, 채소,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는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생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이 힘들어도 자신이 만든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p. 56)

공장 경영이나 생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힘들다. 그런데 유독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나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문구를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제조업(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유독 더 힘들다는 나쁜 선입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3D' 업종 기피 현상 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공장 근무를 꺼리고 있는 경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표현은 초등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경영'이라는 용어와 '생산 분야'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나 설명 없이 바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경영의 의미를 초등학생 3학년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할 때에 힘이 들지만 자신이 만든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거나,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는 모든 활동을 산업이라고 하지요. (p. 62)

산업의 정의가 잘못되었다. 이런 모든 활동은 경제 활동이며 경제 활동의 단위 또는 비슷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여 묶은 것이 산업이다. 산업 활동의 대상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재화와 서비스라는 용어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 학생들이 재화나 서비스라는 경제 용어를 배우지 못하고 넘어가기 쉽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거나,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는 모든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하는 경제 활동을 비슷한

것끼리 묶은 것을 산업이라고 하지요.

활동 3

영수네 반 친구들의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 통계표

○ 농업, 어업, 상업, 공업, 기타로 구분 (p. 69)

직업을 분류하려면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직업이 없게 되는데 현재 교과서의 분류는 그렇지 못하다. 물론 이것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교과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분류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직업 이름을 서술하거나 노동부의 직업 분류 같은 것을 이용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직업 이름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지금의 교과서는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공업보다는 제조업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교과서에는 공업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가 직업과 산업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래된 문제이다. p. 69의 표는 부모님께서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제목이 더 적절하며, 이 경우 표의 항목으로 산업 분류에 따라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과 같은 이름이 제시되어야 한다. 3학년 교과서에서의 이런 오류와는 달리 이 학생들이 1년 후에 배우게 될 4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는 직업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있다. 즉, pp. 54-55에 있는 직업 분포 그림은 ‘농업, 어업’, ‘기능 및 기계 조작’, ‘서비스 판매’, ‘사무직’, ‘전문직’ 등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같은 사회 교과서 안에서조차 직업 소개 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이다. 학년별 계열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삽화 내용: 옷, 음식, 집, 자동차, 텔레비전, 컴퓨터, 전화기 (pp. 74-75)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로 의식주를 예로 들고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재화이다. 재화뿐 아니라 서비스도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대한 예나 언급이 전혀 없다.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서비스업이 전체 경제 활동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비스의 개념을 재화와 함께 가르칠 필요가 있다. 다만 p. 77의 오른쪽 편에 우유가 슈퍼마켓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유통업에 불과할 뿐이며(물론 유통업이란 설명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음) 보다 많은 서비스의 예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삽화에 재화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활동의 삽화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경찰이 교통정리 하는 모습,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하는 모습 등이다.

고등어 싱싱하고 씹니다. ... 오늘 동해안에서 올라왔어요. (p. 84)

고등어가 우리 나라 모든 연안에서 잡히기는 하지만 주된 어장은 남해안이다. 따라서 동해안이라고 해서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주된 어장인 남해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잘못하면 학생들이 동해안이 고등어의 주된 어장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 흔히 “생선은 동해안이야!”라는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무의식중에 쓴 표현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동해안에서 올라왔어요.”라는 표현도 문제이다. 이 표현은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 골고루 흩어져 있다.

따라서 “고등어 싱싱하고 씹니다. ... 남해안에서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라는 식으로 중립적인 표현을 해야 한다.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외에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시다. 백화점이 하는 행사로 ‘음악 교실’, ‘미술 교실’을 들고 있다. (p. 85)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시장의 기능이다. 물론 이 주제는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학년 교과서도 이 내용은 고학년으로 미루고 3학년에서는 본격적인 시장의 고유한 기능보다는 시장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시장의 구실 가운데 물건의 판매와 구매 외에도 ‘문화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교과서의 예들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런 구실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백화점이 하는 음악 교실이나 미술 교실은 백화점이 수익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문화센터의 한 강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제시된 사진을 보더라도 백화점의 행사가 아니라 사업 아이템이라는 느낌을 더욱 짙게 가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p. 85의 내용은 주제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가르칠 내용은 많은 데 비해서 지면이 부족해서 미처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많은 상황에서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한 시장의 다양한 행사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신 이 지면에 시장의 역할이나 중요성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 2) 3학년 2학기

### 3. 살기 좋은 우리 고장

#### 1) 고장의 여러 기관과 단체

구청에서 하는 일

구청에서 하는 일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 가운데 ‘중소기업 돕기’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p. 75)

시장 원리를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직접 도와주는 것과 같

은 자료를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존재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곳으로 설명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는 대기업은 도와주지 않는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정부의 역할 이야기를 하면서 구태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이분법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중소기업은 약하고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 취업하기 싫은 기업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정부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시장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간접적으로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 활동 지원’ 정도로 표현하고 이에 해당되는 사진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 3) 4학년 1학기

#### 2. 우리 시·도의 발전하는 경제

- 1) 우리 시·도의 자원과 생산 활동
- 2) 서로 돕는 경제 생활

우리 시·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까?  
 왜 시·도마다 만드는 물건의 종류에 차이가 있을까? (p. 49)

첫째 문장은 ‘주로’와 ‘많이’가 한 문장 속에 반복되어 있으므로 해서 표현이 어색해지고 말았다. 둘 가운데 ‘많이’를 생략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이에 비해 둘째 문장은 오히려 이런 표현이 빠져 있어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시·도마다 ‘주로’ 만드는 물건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전혀 다른 물건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이 농산물을 주로 생산하지만 그렇다고 옷을 전혀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도시 지역이라고 해도 농산물을 전혀 생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요’ 또는 ‘많이’와 같은 수식어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역에서는 전적으로 농산물만, 어촌지역에서는 전적으로 어류만, 도시지역에서는 전적으로 공산품만 생산한다는 의미가 된다.

우리 시·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을까? 왜 시·도마다 만드는 주요 물건의 종류에 차이가 있을까?

① 자원을 이용하는 생산 활동 (pp. 50-55)

틀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다양한 예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단원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의 특산물이나 특화 산업을 이해하고 이것과 자원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다. 그러다보니 지나치게 (천연)자원 위주로 예가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마치 모든 산업이 지리적 입지나 자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리적 입지와 자원이 주된 산업 활동의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기술 및 자본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노동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 특히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요소들에 의해 발달한 산업의 예도 1-2개 정도 함께 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예들은 사람들이 노동, 자본, 기술을 이용해서 불리한 자연 조건이나 천연자원의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경험과 자신감을 초등학교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 주요 특산품 지도를 보면 각 지역의 농수산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농산물과 수산물 중심으로 특산물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주요 공산품의 예들도 몇 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시·도에서 발달한 생산 활동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두 지역의 자료를 비교해 보고, 주민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자.

이를 위해서 제시된 그래프 자료: ① 전라북도 농·어촌 지역의 직업 분포, ② 전라북도 도시 지역의 직업 분포 (pp. 54-55)

이 단원의 소재 또는 4학년의 소재 범위는 시·도이다. 이에 따라 시·도의 직업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자는 것이 이 단원의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시·도의 직업 분포 자료를 제시해야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교과서는 같은 도(전라북도)의 도시와 농촌 지역의 비교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는 시·도의 차이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 지역의 차이를 보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다.

따라서 발달한 산업이나 직업의 차이가 큰 두 개의 시·도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의 직업 분포 그래프와 전라북도의 직업 분포 그래프를 제시하면 된다.

## ② 세계로 열린 경제

우리 시·도의 기업들은 세계 여러 나라와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pp. 56-59)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4학년 1학기 ‘우리 시·도의 발전하는 경제’ 속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역이라고 할 때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류를 의미하는데 구태여 4학년에서 무역을 억지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4학년 교육과정의 시·도에서는 무역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대신 무역 내용은 5학년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장난감의 생산지 삽화

한국산, 중국산, 일본산, 대만산이 제시되어 있음 (p. 56)

4가지 장난감의 생산지가 예로 나와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다. 모두 우리 이웃 국가라는 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친숙한 점은 있지만, 세계화 시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예가 너무 인근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더욱이 요새 학생들은 세계의 여러 나라 이름을 잘 알고 있다.

유럽이나 미주의 국가들도 골고루 포함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우리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많이 사기로 했습니다.”(p. 57)

시·도 기업과 세계와의 교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단원 속의 삽화 내용이다. 교과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 시·도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시·도의 기업과 외국이 교류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유독 이 삽화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겠다고 말하고 있다. 본문의 내용(우리 지역)과 외국인 삽화의 내용(우리 나라)이 서로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삽화에서도 외국인이 “한국 공주에서 생산하는...” 또는 “한국 전주에서 생산하는...” 이라고 표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바로 윗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무역 이야기를 4학년에서 빼고 5학년에서 다룬다면 이 문제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외국인의 말을 “이번에 우리는 한국 ○○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많이 사기로 했습니다.”로 수정해야 한다.

지방 자치 단체는 우리 시·도의 경제를 어떻게 돕고 있을까?

- 외국 시장 개척 활동 지원: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수출업체로 구성된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였다. 또 국제 박람회에 참여하여 수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센터 설치
-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외국의 자본을 들여와 공해 없는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움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관광객 유치 활성화 (p. 60)

지방 자치 단체가 각 시·도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p. 60의 내용을 보면 마치 정부가 민간의 경제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지나치게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시장 경제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을 하는 핵심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들이다. 이런 일들을 정부가 하는 일로 설명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시키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마치 정부가 지원해야 민간 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며, 더 나아가 정부가 민간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와 경제 사이의 관계나 정부가 하는 일을 이야기할 때에는 “시·도의 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 개별 기업으로서 한계가 있는 경우 지방 자치 단체가 이들 기업을 도와주기도(지원하기도) 한다.”는 정도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공공 시설의 사진 (p. 63)

p. 63의 맨 아래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무슨 공공 시설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도로? 가로등? 그냥 혼잡한 시내 상가로만 보인다.

보다 명쾌한 사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농촌과 도시의 공공 시설

- 농촌의 공공 시설의 예: 마을회관, 병원, 농산물 저장 창고
  - 도시의 공공 시설의 예: 분수, 놀이터, 병원, 도서관, 지하철, 체육관
- (p. 64)

농촌과 도시 사이에 공공 시설의 다른 점을 알아보는 학습 활동이다. 교과서에서는 두 지역의 공공 시설의 예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병원의 경우 농촌에도 있고 도시에도 있다. 다만 건물의 모양과 앰블런스의 크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도서관은 도시에만 있는가? 체육관이나 놀이터 역시 도시에만 있는가? 그런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두 지역의 구분이 명쾌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지역의 공공 시설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활동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지식이나 태도를 기대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주제가 필요한가? 지나치게 지역화된 교과서를 고려하고 강조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정부 역시 우리 집처럼 조세 수입과 지출(예산)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시설을 만들고 정비하기 위해서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처럼 돈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사실, 그리고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다는 내용, 따라서 주민들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공공 시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진영이는 공공 시설에 대해 조사하면서, 여러 공공 시설이 부서져 있거나 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p. 66)

교과서는 이런 제목과 내용 아래에 공공 시설이 깨지고 험하게 다뤄진 그림 5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을 보는 학생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모든 학생들이 “공공 시설을 아껴 사용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 정도는 4학년이 아니라 유치원생들도 동일하게 대답할 것이다. 이 정도의 내용은 4학년에 걸맞지 않는다. 초등학생들이 “왜 사람들은 공공 시설을 아껴 사용하지 않고 있는가?”, “왜 공공 시설을 아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부분의 학습 목표가 될 필요가 있다.

자기 집 물건은 아껴 사용하면서 공공 시설은 험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왜 발생하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얼른 생각하면 공공 시설이 훼손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고치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사고력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면 좋겠다.

③ 공공 시설을 내 것처럼 (pp. 62-66)

이 단원에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 단순히 공공 시설인지 아니면 공공재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는 공공 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교사용 지도서에는 공공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르치고 싶은 개념이 공공 시설이라면 문제 없지만, 교사용 지도서에 있듯이 공공재를 가르치고자 한다면 교과서에서도 공공재라고 말해야 한다. 공공재가 생소한 용어이고 어려운 용어라는 판단에서 교과서에서 공공 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초등학생들에게 잘못된 용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공공재와 공공 시설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이 단원에서 그냥 공동 시설의 종류와 우리가 아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라면 교사용 지도서의 공공재가 잘못된 용어이므로 수정해야 한다.

- 미로 찾기 활동
- ① 시멘트 공장은 석회석이 많이 나는 곳에서 발달한다.
  - ⑥ 공공 시설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만든다. (p. 67)

“① 공장이 ... 발달한다.”는 표현은 어색하다. 그리고 “⑥ 공공 시설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의 오답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지방 자치 단체 앞에 ‘국가’라는 말을 삽입했을 것이다. 국가라는 용어가 없다면 ×가 정답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답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를 추가하다 보니 이 단원의 주제 또는 환경 확대 접근법상 4학년 단계인 ‘시·도’보다 한 단계 확대된 국가가 들어갔다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① 시멘트 공장은 석회석이 많이 나는 곳에 위치한다. ⑥ 지방 자치 단체는 공공 시설을 만든다.

① 나누어 맡은 생산 (pp. 68-70)

내용 설명에 있어서 오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부분의 생산 활동이 분업으로 이루어진다는 정보만 전달할 뿐, 왜 분업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아쉽다. p. 68에 “분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하고 분업의 이득을 생각해보는 질문이 하나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 분업의 장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교사용지도서에도 분업이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나 분업을 통해 생산성이 왜 높아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우리가 경제학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사고 방식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분업을 통해 생산하게 되었을까? 분업을 하면 그 이전에 비해서 생산성이 왜 높아질까? 등을 이해할 줄 알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서 분업 이전의 생산 방법(장인생산 방법: 물론 용어를 언급할 필요는 없음)과 분업 생산 방법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이전 생산 방법에 비해서 분업 생산을 하면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그리고 왜 분업이 생산성을 높여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학습을 통해 사람들이 생산성을(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분업 역시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일을 할 때에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돈의 필요성 (p. 73)

물물교환은 불편하고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서는 2개의 4단 만화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만화는 물물교환이 불편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에 부족하다. 우선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만화는 물물교환을 쉽게 이루어낸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마 이 만화의 목적은 물물교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 듯하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만화가 물물교환의 불편함과 돈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두 번째 만화는 물물교환이 재화들의 교환가치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물물교환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요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욕구의 이중일치’이다. 즉, 서로 맞바꾸고 싶은 물건을 갖고 있는 거래 상대방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물물교환이 갖는 가장 심각한 불편함이고 이것이 돈을 도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첫 번째 만화를 보면 물물교환이 쉽게 이루어져서, 토끼와 닭을 서로 만족한 상태에서 쉽게 교환하고 있다. 욕구의 이중일치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물물교환을 하면 물건을 쉽게 교환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해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만화에서는 욕구의 이중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물교환을 하지 못하는 내용의 만화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두 번째 만화에서 지금의 교과서처럼 가치의 비교가 어려워 물물교환이 어렵다는 또 다른 불편한 점을 보여주면 될 것이다. 만약 지면이 부족하여 물물교환의 불편한 점 한 가지만 제시하고 싶다면 현재의 내용보다는 욕구의 이중일치가 되지 않는 내용의 만화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 고장의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pp. 74-77)

한 마디로 시장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3학년 1학기의 “시장이 하는 일”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 있다. 3학년의 경우에는 우리 고장

의 시장이고, 4학년의 경우에는 우리 시·도의 시장이지만, 두 가지 시장 사이에 무슨 근본적 차이가 있는가? 따라서 2개 학년에 걸쳐서 시장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내용에 커다란 차이가 없다. 더욱이 3학년에서도 백화점, 재래시장, 인터넷 상점, ... 등 시장의 다양한 종류를 배웠는데 4학년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장으로 종합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할인점, 백화점 등과 같은 단편적인 지식을 다시 배운다는 것은 반복·심화 학습이라는 취지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시장이 하는 역할이나 필요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을 취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고 교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장의 역할은 이미 3학년에서 다루어진 바 있고 이 정도의 역할은 4학년에서 다시 다루지 않아도 학생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나마 3학년 시장 부분과 비교할 때 4학년 시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차이는 ‘설문 조사’ 내용이다. 설문 조사 방법은 중요한 소재이므로 포함시켜야 하지만 꼭 시장의 예를 가지고 설문 조사를 가르칠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예를 가지고 설문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면 4학년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의 시장에서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다.

지면이 충분하다면 반복 학습도 좋겠지만 부족한 지면 제약 속에서 이처럼 유사한 시장 이야기를 다시 다룬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장 경제의 기능’에서의 시장 역할도 아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 교환의 중요성과 상호의존을 들 수 있다. 분업이 바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분업과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장을 또 다시 소재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다른 소재를 가지고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른 경제 개념이나 다른 소재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시장 이용에 대한 설문

1. 우리 고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을 세 곳만 적어주십시오.
2. 왜 그 시장을 많이 이용합니까?
3. 시장에서 사는 것은 주로 무엇입니까?
4. 이웃 고장의 시장을 이용한 경우가 있다면, 왜 그 시장을 이용하였는지 그 까닭을 적어 주십시오.
5. 크고 작은 할인점에 간 경험이 있다면, 왜 그 곳을 찾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적어 주십시오. (p. 75)

시장 이용에 대한 조사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다. 학생들이 설문지를 만들어 시장 이용에 대한 조사를 하는 훈련이다. 그런데 교과서가 제시하고 있는 설문지의 첫 번째 문항에 문제가 있다. 원래 설문 조사는 설문 대상자에게 본인의 경험을 적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교과서의 설문 문항을 보면 설문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 고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을 적으라고 하고 있다. 이는 올바른 설문 조사 문항이 아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 “왜 그 시장을 이용합니까?”라고 이유를 묻고 있는데, 그럼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고장 사람이) 시장을 이용하는 이유를 설문 대상자보고 적으라는 뜻인가? 4학년 사회 교과서가 고장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에만 너무 몰입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질문 문항이 “1. 당신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을 세 곳만 적어주십시오.”로 되어야 한다.

### 상품의 다양한 유통 과정 삽화

생산자 → 시장, 직거래 장터, 통신 판매 → 소비자 (p. 80)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상품이 유통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시장, 직거래 장터, 통신 판매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그렇지만 3학년 교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시장, 직거래 장터, 통신 판매가 모두 다 시장이다. 직거래 장터

나 통신 판매도 시장의 일부인데 이 두 가지를 시장과 함께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은 직거래 장터나 통신 판매는 시장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는 오류이며 3학년 때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삽화에서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표현하든지, 백화점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농·수산물 가격은 유통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래 그림을 보고, 유통 단계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자.  
유통 단계가 3단계인 경우 1,400원 vs. 유통 단계가 2단계인 경우 1,200원  
(p. 81)

유통 단계가 3단계인 그림과 2단계인 그림을 대비시키면서 유통 단계가 많아지면 농산물의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단원의 목표가 유통의 중요성이나 역할을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이 그림은 오히려 유통의 역효과 또는 유통의 단점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유통 단계가 많아지면 상품 가격이 비싸지므로 유통은 나쁜 것이며,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품 가격만 올리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유통 과정을 완전히 생략하면 가장 좋을 텐데 어른들은 왜 그러지 않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똑똑한 어린이는 없을까? 유통이 중요한 생산 활동이라는 교과서의 이전 내용(pp. 78-81의 내용)과 모순이 될 수 있다. 유통 단계가 증가하면 최종 소비자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그리고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유통 과정을 생략하려고 노력하고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유통 과정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갖게 해서도 곤란하다. 이 경우에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왜 유통업이 존재하고 있느냐의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유통 과정을 생략할 때의 이점과 비용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훈련이다. 여러 유통 단계가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며 각 유통 단계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경제에 기여하고 중요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통 단계가 복잡해진 것은 유통 단계가 단순할 때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이며, 각 유통 단계별로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시장의 사진 자료

수산 시장 vs. 농산물 도매 시장 (p. 82)

지역 사이의 분업과 상호의존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촌과 농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거래하는 2개의 시장을 사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진 자료의 제목이 각각 ‘수산 시장’과 ‘농산물 도매 시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두 시장을 대등하게 대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한 쪽에는 단순히 시장이고 다른 한 쪽에는 도매 시장이라는 제목은 적절하지 않다.

사진을 보면 둘 다 도매 시장처럼 보이는데 제목으로 ‘수산물 도매 시장’과 ‘농산물 도매 시장’이라고 붙이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도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그냥 ‘수산물 시장’과 ‘농산물 시장’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이 낫다.

각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물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여 쓰고, 자기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들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 (p. 83)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에는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물품도 있지만 우리보다 다른 나라에서 보다 값싸게 생산하거나 보다 좋은 품질로 생산하는 상품도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부족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보다 더 싸기 때문에 또는 더 질이 좋기 때문에 수입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처럼 중요한 수입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수입하는 이유를 초등학교생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입하는 이유로 교과서의 현재 이유 외에도 우리보다 더 싸게 생산하거나 더 잘 생산하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활동 1

- 1) 규성이는 필통을 문방구점에서 얼마에 샀을까?
- 2) 규성이는 왜 소매상에서 필통을 샀을까?
- 3) 규성이가 도매상에서 필통을 살 때에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은 각각 무엇일까? (p. 87)

이 활동에 해당되는 삽화에서는 유통 과정을 공장 → 도매상 → 중간 도매상 → 소매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과서 본문에서는 중간 도매상이란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도매상과 소매상이란 단계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도매상과 소매상을 합쳐 중간 상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단원 정리 부분에서 중간 도매상을 추가한다면 4학년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혼동을 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 삽화를 보고 학생들이 3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서 2)번과 3)번에 문제가 있다.

첫째, 2)번에 대한 답으로 “도매상이 근처에 없기 때문에”라고 대답한다면 3)번 질문은 의미가 있다. 좋은 점은 값이 저렴하다는 것이고 불편한 점은 멀리 있는 도매상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2)번과 3)번의 문제 순서가 바뀌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 도매상에 가면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도매상까지 가는 불편함이 더 커서 규성이는 소매상에서 필통을 사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2)번에 대해서 “도매상에서는 필통을 한 개씩 팔지 않기 때문에”라고 대답한다면 3)번 질문은 성립할 수 없다. 최종 소비자인 규성이는 도매상에서 필통을 구입할 수 없는데 도매상에서 살 때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셋째, 3)번 질문에서 ‘도매상’은 그냥 ‘도매상’인가 아니면 ‘중간 도매상’을 의미하는 것인가? 교과서는 그냥 도매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중간 도매상이 아닌데, 교사용 지도서 p. 176에는 중간 도매상으로 되어 있다. 보다 현실적이 되려면 교과서의 표현에서 도매상보다는 중간 도매상이 더 적합할 것이다. 중간 도매상까지 있다면 도매상에서 소비자에게 필통 한 개를 파는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 4) 4학년 2학기

### 3. 가정의 경제 생활

- 1) 다양한 생산 활동과 가정의 소득
- 2) 알뜰한 살림살이

가지고 싶은 것 삽화

컴퓨터, 옷, 인라인 스케이트, 운동화 및 축구화, 자전거 (pp. 96-98)

pp. 96-97에서 갖고 싶은 것 5가지를 이야기하고 그에 해당되는 삽화가 나와 있다. 그런데 p. 98에 있는 삽화에는 자전거만 빠져있어 이전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왕이면 자전거를 추가해야 한다.

또 하나 더 지적하자면, 옷도 앞 쪽의 삽화와 디자인이 다르다. 나머지 물건들은 모두 이전 삽화와 동일하게 그려져 있는데 말이다.

우리 반 친구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가지지 못하는 까닭

1. 돈이 없기 때문에
2. 아직 위험하다고 사 주시지 않기 때문에
3.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사 주시지 않기 때문에 (p. 98)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그런데 원하는 물건들을 가지지 못하는 까닭으로 ‘1. 돈이 없기 때문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보다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가 더 적합하다. 돈이 없다는 말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라고 넓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 표현이 학생들에게 더 친근할 수는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이왕이면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그리고 경제 개념에 충실한 표현으로 서술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더욱이 표 아래의 교과서 본문 내용에서는 소득이 늘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1.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로 수정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싶은 것이 많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만족시켜 주는 데에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은 늘 부족하다. (p. 98)

희소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러한 것을 만족시켜 주는 데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초등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 정의라고 생각한다. 초등학생들이 지금까지 갖고 싶은 것이 많지만 소득(용돈)이 부족해서 또는 돈이 부족해서 다 갖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이지만, 갑자기 ‘자원이 부족하다’고 표현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하고 이 세상의 자원이 부족한 것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연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성인 교과서에 나오는 희소성의 정의를 그냥 빌려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한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비해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와 같은 정의를 가지고 희소성을 설명하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다. 4학년 교과서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나 또는 우리 가정이 선택해야 한다는 정도를 가르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또 이 문장의 표현도 어색하다. 그러나 ‘그러한 것’ ...에서 그러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 문장에 이 부분을

직접 대입시키면 “그러나 가지고 싶은 것을 만족시켜 주는 데에 필요한 ...”이 된다. 가지고 싶은 것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어색한 표현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싶은 것이 많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모두 갖기에는 소득이 늘 부족하다.”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표

선택 기준 \ 물 건	시디 롬	축구공	조립식 로봇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나에게 즐거움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오래 쓸 수 있는 것인가?			
물건 사는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p. 100)

3가지 물건 가운데 살 물건 한 가지를 선택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의사결정표를 만들어보는 내용이다. 그런데 선택 기준이 잘못 선정되어 있다. 첫째 선택 기준으로 되어 있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는 의사결정표에 포함되는 선택 기준이 아니라 구입 가능성 자체를 결정하는 ‘예산 제약 조건’이다. 따라서 이것은 나머지 다른 선택 기준보다 한 단계 앞선 기준이다. 다른 선택 기준을 아무리 완벽하게 충족시키더라도 돈이 부족하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선택 기준에서 축구공이 모두 ○표를 받았더라도 돈이 부족하면 살 수 없으며 로봇이 다 △를 받았더라도 돈이 되면 로봇을 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는 의사결정의 제1단계이며, 3가지 물건을 모두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예산 제약을 충족시킨 이후에 교과서에 나오는 의사결정표를 작성하고 물건 하나를 구입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 과정이다. 첫 번째 선택 기준은 의사결정표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선택 기준	물 건	시디 롬	축구공	조립식 로봇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나에게 즐거움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오래 쓸 수 있는 것인가?			
	물건 사는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의사결정표에 여러 개의 선택 기준을 제시해놓고 가장 많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표 위의 삽화에서 “나에게 즐거움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먼저 선택해야지!”라고 단정해버리면 나머지 선택 기준을 제시해줄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삽화는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표를 제일 많이 받은 물건을 먼저 선택해야지!”라는 삽화를 그림으로써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말을 제시하는 것이다.

① 가지고 싶은 것은 많지만  
부족, 희소성, 선택 관련 내용들 (pp. 96-102)

기회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을 선택했을 때 아쉽지만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기회비용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교과서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를 꼭 추가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교과서에 있는 예를 가지고 기회비용의 개념을 가르칠 필요가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다. 실제로 교사용 지도서 p. 176에 이런 자료가 있지만 교과서에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축구공을 선택했다면 무엇을 사지 못하게 되는가? 포기한 것이 선택한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주지는 않는가? 등과 같은 질문이나 표현을 통해 기회비용의 개념을 전달할 수 있다.

토요일 오후에 어떤 일을 할까?

컴퓨터 게임하기, 영화 보기, 축구하기

1. 맨 처음에 약속한 일은 무엇인가?
2. 어느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 일인가?
3. 어느 것이 가장 재미있는가?
4. 어느 것이 가장 경제적인가? (pp. 102)

1번 질문이 잘못되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 현수가 약속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영미가 영화 보러 가자고 제안을 했고, 진우는 축구하자고 제안했을 뿐, 어느 누구와도 아직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1번 질문의 답은 없다. 만약 현수가 누구와 약속을 했다면, 다른 선택 기준과 관계없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즉 선택의 여지가 없다. 도덕과의 지도 내용에 따르면 친구와의 약속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4번 질문에서 ‘경제적’이라는 의미를 초등학생들이 알까? 이 용어는 정의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사용하고 있다. 교과서는 돈이 적게 드는 것을 경제적인다고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역시 틀린 의미이다. 교과서 저자들 역시 ‘경제적’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알 리 없을 것이다. 단순히 돈이 적게 드는 것을 경제적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경제적’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것 또는 효과 대비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을 말한다. 위의 3가지 질문들을 모두 고려한 후 최선의 한 개를 선택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이다. 따라서 4번째 질문은 나머지 3개의 질문과 같은 등급이 아니다.

1번 질문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4. 어느 것이 가장 돈이 덜 드는가?’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쌀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것

- 벼농사를 지을 땅
- 농부의 노력
- 농기계, 비료, 농약 등을 사는 데에 필요한 돈

쌀과자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것

- 과자 공장을 지을 땅
- 과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
- 과자 공장을 짓고 과자 만드는 기계, 쌀 등을 사는 데에 필요한 돈 (p. 106).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

- 과수원을 만들 땅
- 일하는 사람
- 필요한 물건을 살 돈 (p. 107)

생산에 필요한 3가지 생산요소를 가르치는 단원이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생산요소는 천연자원(토지), 노동, 자본이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생산요소로 천연자원(토지), 노동, 돈을 들고 있다. 3가지 생산요소 가운데 비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자본이다. 교과서 역시 자본을 돈(자본금)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오류이다.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은 기계, 공장, 도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본금 또는 돈과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돈은 자본이나 노동을 구입할 수 있는 수단(교환의 매개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쌀 생산에 필요한 자본으로는 농기계, 비료, 삽, 낫 등이라고 해야 하고 쌀과자 생산에 필요한 자본은 공장, 기계 등이라고 해야 한다. 또 사과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과수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다리, 기계, 트럭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유미 어머니께서도 과수원 앞 작은 가게에서 사과를 파신다.  
이에 해당되는 삽화 (p. 108)

본문에는 작은 가게라고 되어 있지만 삽화를 보면 가게 상호도 없으며 그냥 노점상처럼 보인다. 마치 불법 영업을 하는 듯한 느낌이다.

상호를 걸고 정식으로 영업하는 삽화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 가게부와 친구 집의 가게부를 비교하여 보고, 지출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p. 113)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수행하기 불가능한 활동이다. 우선 가게부를 쓰지 않고 있는 집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또 쓰고 있는 집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친구 집에 가서 가게부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기꺼이 보여주는 이웃집 엄마가 어디 있겠는가? 또 초등학교 4학년이 가게부를 들여다보고 지출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만약 교사가 이것을 활동 과제로 부과한다면 부모님이 해야 하는 숙제로 변질되고 만다. 사회과가 이런 탐구활동이나 조사활동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기피 과목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비난받고 있다. 막연히 그냥 툭 하고 던지는 무책임한 활동이나 과제를 피하고 보다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생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 집 가게부를 보고, 가장 지출이 많았던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또는 ‘다음 달에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정도의 과제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 용돈 기입장에 꼼꼼하게 기록해 보고, 스스로 평가해 보자. (p. 117)

위의 지적과 비슷하다.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용돈 기입장 기재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출 성향을 파악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해주지 않고 있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다.

‘저축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쓸 데 없는 곳에 사용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 등과 같이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은행을 견학하여 은행에서 하는 일을 조사해 보자.

은행에서 하는 일

- 예금을 받음
- 돈을 빌려 줌
- 다른 곳으로 돈을 보냄
- 공과금, 등록금 등을 받음
- 외국 돈으로 바꾸어 줌 (p. 118-119)

은행의 여러 가지 업무를 소개하는 단원이다. 교과서가 의도하는 바가 ‘우리가 은행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은행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은행이 하는 일’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의 경우에는 은행이 자신의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돈을 보내주는 것이므로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 줌’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민규는 지난 몇 달 동안 용돈을 아껴서 모은 돈을 꺼내 보았다. 모두 12,000원이었다. (p. 118)

민규는 여러 종류의 예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저축하기로 하였다. 어떤 예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p. 120)

예금의 3가지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단원이다. 그런데 p. 118에서 민규가 갖고 있는 돈이 12,000원이라고 했다. 민규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예금은 보통 예금밖에 없다. 12,000원을 가지고 정기 예금을 할 수 없다. 또 민규가 몇 달에 걸쳐서 모은 돈이 12,000원이므로 매달 12,000원씩 넣는 정기 적금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민규는 여러 가지 예금 가운데 하나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통 예금만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은 앞뒤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민규의 어머니께서 여러 예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보통 예금: 이자율이 낮다 정기 예금: 이자율이 높다 정기 적금: 이자율이 높다. (p. 120)
--------------------------------------------------------------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이 보통 예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다는 것을 전달하려는 내용일 것이다. 그런데 교과서에서처럼 비교되는 예금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낮다’, 또는 ‘높다’라고 말하면 절대적인 기준에 비해서 낮고 높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금에 비해서 낮고 높은 것인지 애매해질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보통 예금: 이자율이 정기 예금보다 낮다’, ‘정기 예금: 이자율이 보통 예금보다 높다’, ‘정기 적금: 이자율이 보통 예금보다 높다.’로 서술해야 한다.

보통 예금: 이자율이 낮다. (p. 120)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어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p. 121)
-----------------------------------------------------------------------

이처럼 이자율이란 용어가 p. 120에 먼저 나오고 이자라는 용어가 p. 121에 나온다. 이보다는 이자 용어가 먼저 나오고 이자율 용어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논리에 맞다. 예금한 돈에 대해서 은행이 이자를 주고 돈과 이자 사이의 비율이 이자율이기 때문이다. 4학년 학생들이 아직 이자의 개념을 모른다고 볼 때 이자보다 더 어렵고 비율의 개념까지 추가되어 있는 이자율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이자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고 예금한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주면 이자율이 높은 것이고, 이자를 적게 주면 이자율이 낮은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어머니께서는 은행 외에도 저축을 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농업 협동 조합 / 투자 신탁 회사 / 신용 협동 조합 / 새마을 금고 / 우체국 / 증권 회사 / 보험 회사 (사진 자료)

저축하는 돈을 맡아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 주는 일을 하는 곳에는 은행, 협동 조합, 증권 회사, 보험 회사, 새마을 금고 등이 있다. 이런 곳을 ‘금융 기관’이라고 하지. (pp. 122-123)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농협을 은행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다. 이때의 은행은 정확하게 말하면 ‘일반 은행’을 말하는 것이다. 은행은 크게 ‘일반 은행’과 ‘특수 은행’으로 양분되며, 현재의 금융 기관 분류 체계에 따르면 농업 협동 조합이나 수산업 협동 조합은 은행 가운데 ‘특수 은행’에 속하고 우리가 그냥 은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 은행’을 의미한다. 즉 농업 협동 조합이나 수산업 협동 조합도 은행이다.<sup>5)</sup> 이 정의에 따르면 은행 이외의 금융 기관을 이야기할 때 농업 협동 조합이나 수산업 협동 조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어른들도 잘 모르는 일반 은행, 특수 은행의 구분을 초등학교생들에게 가르칠 필요는 없다. 또 농업 협동 조합을 언급하지 않기에는 농협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특히 농촌 학생들에게 친숙한 기관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명쾌한 대안은 떠오르지 않는다. 발문에서 단순히 ‘은행 외에도...’라고 표현하지 말고 ‘일반 은행 외에도’라고 하면 좋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틀린 내용을 그대로 두자니 이것도 걸린다.

5) 다만 협동조합중앙회가 아닌 단위조합은 상호금융으로 분류되어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 금고와 함께 ‘신용협동기구’에 속한다. 만약 교과서가 이 단위조합을 의미하고 있다면 제목 역시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이라고 해야 맞는다.

한 가지 더 지적하면 투자 신탁 회사도 투자 신탁 운용 회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 5) 5학년 2학기

1.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
  - 1) 우리 나라 경제 생활의 특징
  - 2) 세계로 뻗어 가는 우리 경제
2. 정보화 시대의 생활과 산업
  - 1) 정보화 시대의 생활
  - 2) 첨단 기술과 산업의 발달

‘1) 우리 나라 경제 생활의 특징’이라는 단원 속에 (1) 자유와 경쟁, (2) 우리 경제의 발자취라는 2개 소단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2개의 소단원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고 논리적으로도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다. 2개는 독립된 주제인데 하나의 단원 속에 포함시켜서 어색하다.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생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자.  
(pp. 4-6)

우리 나라가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가르치는 단원이다.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정부의 명령이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고 사람들 역시 자유롭게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특별히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안을 제시해보고 싶다. 초등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장 경제 체제에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현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유의 고마움을 모른다.

따라서 시장 경제 체제와 대비되는 계획 경제 체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두 경제 체제를 대비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선택이 얼마나 좋으며 효율적인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교과서에도 포함시켰으면 한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은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조사해 보자.

- 새 문방구점이 생긴 뒤에 달라진 점
- 상점이 늘어나면서 달라진 점
- 기업 간의 경쟁 (pp. 8-11)

p. 8의 발문이다. 그런데 그 아래의 본문에서는 경쟁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즉, 내용은 경쟁과 관련된 것들인데, 발문은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경쟁이 가능한 것도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색해 보인다. 학생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본문의 내용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라면 경쟁과 관련된 발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쟁은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조사해 보자.”로 수정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교과서 pp. 8-11에서는 경쟁이 소비자에게 주는 이익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기업이 경쟁을 하는 이유, 즉 경쟁을 통해 이윤을 더 많이 벌기 위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마치 기업이 소비자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 듯한 느낌이다.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위해 경쟁을 하며 그 결과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것이지, 기업이 소비자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님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상점이 늘어나면서 달라진 점

- 빵의 종류가 전보다 다양해졌어.
- 책의 종류가 다양해졌어.
-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고, 손님에게 친절해졌어.
-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는 값이 싸지고, 대여 기간도 길어졌어. (p. 9)

틀린 내용은 없다. 다만 음식이 빨리 나오는 것이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굳이 교과서에서까지 이것을 좋은 점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가뜩이나 패스트푸드 문화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고 우리 나라 사람들의 빨리 빨리 조급증이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은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손님에게 친절해졌고, 음식 맛이 좋아졌다.”는 것을 장점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 기업 간의 경쟁

외국인 삽화: “한국 제품은 값이 싸고 질도 좋아요. 한국 상품이 역시 최고예요.”(p. 11)

이 문장은 듣기 좋은 말 같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과학적이다. 첫째, 값이 싸면 질이 나쁘고 질이 좋으면 값이 비싸기 마련이다. 물론 원래 의도는 ‘질도 좋지만 가격까지 싸서 금상첨화’라는 취지일 것이다. 그렇지만 위의 표현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또 값이 싸다는 말이 결코 장점만은 아니다. 값이 비싼 제품을 외국인이 사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 나라가 값싼 상품을 수출한다는 선입관과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둘째, 경쟁과 품질의 관계 측면에서 볼 때 비과학적인 표현이다. 지금 교과서에서는 경쟁을 통해 기업들이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에 대한 보조 설명으로 “한국 상품의 질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에 현재 지면 속에서 이 말이 맞고 타당하고 논리적이려면 한국 기업의 경쟁이 다른 나라 기업의 경쟁보다 치열한 결과 한국 상품이 최고가 되었다는 가설이 성립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쟁이 다른 나라보다 유독 치열하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경쟁이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상품의 질이 다른 나라보다 좋다는 것은 경쟁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경쟁의 효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한 결과 과거에 비해 제품의 질이 매우 좋아졌어요.” 정도로 표현해야 된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자. (p. 11)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지나치게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지금 기업의 경쟁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알아보자는 과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 경쟁에서 뒤처지는 약자들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한다는 등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지금 교과서의 이 단원의 주제는 자유와 경쟁,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이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단원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단원에서는 그냥 시장 경제의 장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경쟁을 하려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경쟁하는 이유는 이윤을 벌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번 이윤이 내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귀속된다면 구태여 힘들게 경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획 경제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시장 경제와 대비시켜 설명한다면 학생들이 경쟁의 동기와 시장 경제의 고마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래프 (p. 14)

우리 나라의 국민 총소득 그래프 (p. 22)

우리 나라의 국민 총소득 그래프 (p. 47)

우리 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의 변화 추세를 막대그래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통계는 한국은행이 작성한다. 물론 통계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또는 통계청이 발간하는 통계집에서 우리 나라 국민

총소득 통계를 찾을 수 있지만 출처를 적을 때에는 가능하면 원래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더욱이 한국은행이 어려운 기관도 아니고 오히려 통계정보다 초등학생들에게 친숙한 기관이다.

따라서 막대그래프 아래에 출처를 나타내는 곳에는 통계청 대신에 한국은행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의 산업은 크게 농림·수산업, 광·공업 및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p. 16)

광·공업 및 건설업, 공업 (p. 17)

농림·수산업, 광·공업 및 건설업, 서비스업 (p. 25)

산업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다. 산업을 크게 3개로 구분한다면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될 것이다. 다만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우리 나라 산업을 크게 농림어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타 서비스업 속에는 다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복지,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의 산업이 속해있다.

이처럼 산업의 분류 체계와 이름이 매우 복잡하고 초등학교 수준을 넘어서기는 하지만 교과서는 가능하면 한국은행의 분류법에 따라 산업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시해줄 필요가 있다. 또 현재 교과서에서는 광·공업 및 건설업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건설업이 크게 보면 광·공업과 한 산업에 속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광·공업, 건설업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공업이란 용어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용어는 공업이 아니라 제조업이다.

서비스업의 종류

○ 운송업, 상업, 관광업, 그 밖의 서비스업  
우리나라 공업의 발달 모습 (p. 18)

서비스업의 종류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운송업, 상업, 관광업, 기타 서비스업을 예로 들고 있다. 이 경우에도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행의 구분법에 따라 정확한 서비스업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나라 공업의 발달 모습’이라는 제목에서 또 다시 공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업 대신 운수업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상업이란 산업은 없으므로 도매업이든지 소매업이라고 해야 한다. 또 나머지 산업 분류 단계와 어울리지 않는 관광업 대신에 오늘날 중요성이 매우 큰 통신업을 예로 들면 좋겠다.

우리 나라 경제는 어떤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장해 왔는지 이야기해 보자. 가정의 노력: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데에는 가정 주부들의 노력이 컸다고 할 수 있어요. 국산품을 애용했고, 꼭 필요한 물건만 샀으며, 한 푼이라도 아껴 저축을 했지요. (p. 20)

우리 국민들이 국산품을 애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합리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경제 영역에서 국산품을 애용했다는 말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국산품 애용이 경제 발전에 해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배운 학생들은 앞으로도 국산품을 애용해야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국산품을 애용했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경제 위기로 인한 어려움과 극복 노력 (p. 23-24)

경제 위기로 인해 우리 나라와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아보고 이 어려움을 국민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 현명하게 극복했는지를 가르치는 단원이다. 교육 목표나 취지는 좋다. 다만 왜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었는지, 즉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어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p. 47에서 경제 위기의 원인을 알아보자는 과제가 있지만 이 보다는 교과서 본문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할 만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신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외식이나 영화 관람을 자주 못했다는 내용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삭제해도 좋을 듯 하다. 그리고 p. 47에는 경제 위기라는 말 대신에 외환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한 가지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어떨까 생각한다. 다양한 용어를 가르쳐준다는 효과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5학년 학생들은 아직 ‘외환’이란 용어를 배우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외환 위기보다는 경제 위기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민이 내 집 마련을 취소하거나 자가용 구입을 뒤로 미루는 등 소비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이 외식비, 식료품비 등 생활비를 줄이고, 국산품을 쓰려고 노력하였다. (p. 24)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왜 내 집 마련을 취소하거나 자가용 구입을 뒤로 미루는 등 소비를 줄여야 하는지를 초등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많이 해서 기업 생산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말이다. 실제로 경제 위기 이후에 정부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비를 하라는 홍보를 할 정도로 소비가 위축되어 우리 경제 회복이 지체되었다. 교과서 내용만 보면 소비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소지가 있다.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 vs.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 (pp. 26-27)

무역이 필요한 까닭을 설명하는 단원이다. 먼저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필요한 물건을 직접 조달하기 어렵다는 조사보고서가 제시되어 있으며 뒤를 이어서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대한 보고서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두 보고서 내용의 질이 불균형 상태이다. 천연 자원이 부족한 △△나라 보고서에는 끝 부분에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수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아마 우리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서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단지 국내에서 필요한 물건을 모두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만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나라의 어떤 긍정적인 노력이 표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두 보고서가 균형을 유지하려면 △△나라의 경우에도 “생활에 필요한 천연 자원을 구할 수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정도의 표현으로 그쳐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두 가지 보고서를 종합하여 두 나라가 서로 무역을 하면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비율 그래프

우리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3개국에 전체 수출액의 4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p. 30)

교과서에 최근의 통계를 게재한 노력을 높이 산다. 특히 국가별 비율 측면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었다가 그 역할이 중국으로 바뀌었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최근의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 국민 가운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적다는 점에서 사회 분야에서의 최근 정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래프 옆에 있는 삽화 해설은 수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을 이야기할 때에도 비중 순서에 따라 언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프와는 달리 여전히 ‘미국, 일본, 중국’으로 언급하고 있다.

통계가 없다면 모를까, 통계 수치까지 제시했으면 비율이 큰 순서대로 ‘중국, 미국, 일본’으로 말해야 한다.

우리 나라 수출 상품의 변화

우리 나라는 경공업 제품의 수출은 점점 줄어들고,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출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p. 30)

규모와 비중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이다. 줄어든 것은 경공업 제품의 수출(액)이 아니라 수출 비중이다. 전체 수출에서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 규모 면에서는 증가한 기간이 더 많았다. 그러므로 위의 문장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역시 사실이지만 지금 교과서 삽화의 해설은 수출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출이 아니라 수출 비중으로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또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또는 비율)은 크게 늘어났습니다.”로 수정해야 한다.

우리 나라 수입 상품의 변화

소비재는 냉장고, 텔레비전과 같이 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p. 31)

소비재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의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통계 그래프를 보면 1970년대부터 소비재의 비중이 그려져 있는데 설명 부분에서 소비재의 예로 냉장고나 텔레비전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1970년대 소비재 비중이 24%나 차지한 것이 마치 냉장고나 텔레비전의 수입 때문이라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 1970년대나 1980년대에는 우리 나라에 냉장고나 텔레비전이 거의 수입되지 않던 시절이므로 소비재의 예로서 냉장고나 텔레비전 이외에 다른 것을 들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 소비재 수입 가운데 곡물이나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므로 소비재의 예로 곡물이나 의류 등을 제시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냉장고나 텔레비전이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곡물이나 의류 역시 초등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수입 상품의 변화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p. 31)

수입 상품의 구성과 관련된 통계를 제시하려다 보니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는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에게는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가 너무 어려운 개념이고 더 나아가 꼭 가르쳐야 할 경제 개념도 아니다. 경제 전문가를 제외하고 성인 가운데에서도 이들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나니 초등학생들이 모르는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가 나오게 되었고 따라서 옆에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구태여 이런 어려운 용어를 설명하면서까지 관련 통계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수입과 관련된 다른 통계로 대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입 관련 통계 가운데 초등학생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나라가 수입하는 5대 또는 3대 수입 상품의 변화 등의 통계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철강판 등이 현재의 주요 수입 상품이다.

우리 나라 수출과 수입의 변화 (p. 32)

우리 나라 수출액과 수입액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내용 전개 상 순서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국가별 수출, 상품별 수출, 국가별 수입, 상품별 수입 통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의 전체 수출과 수입 통계가 나온다. 이보다는 전체 수출과 수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국가별, 상품별

수출과 수입이 나오는 것이 좋다고 본다.

따라서 p. 32의 내용을 pp. 30-31의 내용 앞으로 옮긴다.

선생님께서서는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도 좋지만 경쟁력이 있는 기술 자체를 수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며, 그 사례를 함께 찾아보라고 하셨다. (p. 35)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자체를 수출하는 사례도 물론 있지만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부메랑 효과 등을 염려하여 꺼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반드시 좋은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진국들 역시 알짜배기 기술은 다른 나라에 전달하지 않으려 하며 한 단계 낮은 기술만 수출한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기술 자체를 수출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므로 “선생님께서서는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 사례를 함께 찾아보라고 하셨다.”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 ② 세계로 뻗어 가는 우리 경제 (pp. 26-39)

‘② 세계로 뻗어 가는 우리 경제’라는 단원 속에서 무역, 특히 수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수출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수출 관련 내용이 14 페이지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어 다른 경제 개념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본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시장 원리 등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초 경제 개념도 많은데 이런 내용에 비해서 수출 부문이 너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 막상 들여다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경제 교육 효과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초 상식, 또는 단편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또 pp. 36-37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이유와 이점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기업이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함께 서술함으로써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출만 강조하고 수출이 무조건 좋다는 식의 내용 비중을 줄이고, 무역의 원리나 이득, 국제화 시대에 어울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게 하는 국제 교류(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은수네 분단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정, 기업, 정부가 노력하여야 할 일을 정리해 보았다. (p. 42)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알아보는 단원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발문 역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가 아니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또 가정이나 기업이 산업(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이나 기업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가정이나 기업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그 결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활동 3: 우리 나라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일을 정리해보자.

개인·가정 / 기업 /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p. 45)

지방 자치 단체는 여기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지방 자치 단체도 정부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라고 해도 된다. 둘째, 이 단원은 우리 나라의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뜬금없이 지방 자치 단

체가 반드시 나와야 할 필요도 없다. 지방 자치 단체는 교과과정상 4학년에 적합한 주제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제 주체는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 경제가 발전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경제 주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교과서 본문에 이어서 단원 정리 학습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외환 위기의 시련을 겪었던 까닭을 생각해 보고, .... (p. 47)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외환 위기’를 ‘경제 위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화 시대의 변화되는 생활 모습을 알아보고, 더불어 사는 정보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자. (p.50)

‘① 정보화 시대의 생활’ 단원을 시작하는 발문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고 발문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부 중심의 또는 국가 중심의 사고이다. 이보다는 정보가 개인에게 주는 이익이나 중요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발문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발전과 능력 계발을 위해 정보가 중요하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면 자연스럽게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발문 아래의 교과서 내용을 보면 개인이나 가정에서의 정보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화 시대의 변화되는 ...”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 주에 아버지께서 학생용 백과 사전 시디롬을 사 주셨습니다. 백과 사전 14권의 내용이 시디롬 2장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많은 정보들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권이 넘는 백과 사전의 내용이 시디롬 한 두 장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p. 51)

규민이의 이야기 속에서는 백과 사전 14권의 내용이 시디롬 2장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고 있으며, 그 오른쪽 삽화에서는 20권이 넘는 백과 사전의 내용이 시디롬 한 두 장에 저장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쪽에서 그것도 나란히 제시되어 있는 2가지 자료에서 서로 다른 숫자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물론 백과 사전을 출판한 회사에 따라 백과 사전의 양과 시디롬의 수가 다르겠지만, 불필요하게 이런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두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동일한 내용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원자재에 대한 정보:

많은 기업이 이러한 정보에 큰 관심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석유 가격이 낮을수록 우리 나라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p. 55)

문장 표현이 부자연스럽고 오류의 소지가 있다. 유가가 낮을수록 유리해지는 기업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유가가 높아질 때 이득을 보는 우리 나라 기업도 존재한다. 우리 나라의 모든 기업이 유가 하락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며, 주요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문장의 앞부분에서는 ‘모든 기업’이 아니라 ‘많은 기업’이라고 시작했는데 뒷부분에서는 유가가 낮을수록 우리 나라 기업이 모두 유리해지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문장 안에서 모순을 범하고 있으며 결국 문장 내용이 틀린 것으로 변하고 말았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이러한 정보에 큰 관심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석유 가격이 기업의 성과(또는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며칠 후, 진희가 주문한 책이 인터넷 서점에서 배달되어 왔다. 진희는,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면 서점에 다녀오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책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p. 60)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기 마련이다. 인터넷 서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의 내용과 같은 장점이 있는 동시에 당장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읽으려면 며칠 기다려야 하며 책의 내용을 미리 검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배달이 도착하는 며칠 동안을 고려하면 오히려 시간의 낭비일 수도 있다. (경제) 교육의 목표가 여러 가지 가운데 장단점, 즉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합리적 선택을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면 여기에서도 인터넷 서점의 좋은 점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나쁜 점도 함께 거론하면서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것과 일반 서점을 이용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좋은 선택인지를 훈련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가르치려고 할 때 반드시 별도의 지면을 활용할 필요는 없다. p. 60에서처럼 정보화 이야기를 하고 또 인터넷 서점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적 선택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기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p. 60의 아래 부분에 있는 ‘정보화 사회의 우리 생활 모습’에 해당되는 4가지 삽화 내용 역시 모두 ‘빨리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만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이나 부정적인 면도 일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의 교과서는 정보화 시대를 강조하다 보니 좋은 점이나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고 있을 뿐, 그에 따른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미래의 학교 삽화 (p. 61)

미래의 학교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 속에 있는 삽화이다. 그런데 삽화를 보면 전혀 미래 같지 않고 오히려 과거 같다. 컴퓨터 모니터가 재래식이며 본체 역시 지나치게 크다.

학생들이 볼 때에 누구라도 미래라고 느낄 수 있는 삽화로 대체했으면 좋겠다.

첨단 기술이 산업의 발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 가구의 주문에서 배달까지에 이르는 과정 이야기 (pp. 80-81)

첨단 기술이 물건 생산에 사용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 회사가 주문을 받아 가구를 제작하고 배달하는 과정에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첨단 기술의 예로 보기에 다소 미흡하며 억지로 꾸민 느낌이 든다. 고객으로부터 가구를 주문받고 공장에 연락을 하고 공장은 필요한 부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구를 제작한 후 고객에게 배달해준다. 이 과정에서 어떤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단지 연락의 수단이 컴퓨터라는 이야기만 나와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주문하는 것을 첨단 기술로 보기는 어렵다. 컴퓨터만 들어간다고 첨단은 아니다.

따라서 첨단 기술을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예로서 현재 교과서의 예보다 훨씬 실감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6) 6학년 1학기

### 3. 대한 민국의 발전

#### 2)-③ 한강의 기적에서 통일로

우리 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71년에는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다. (p. 129)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그 이전에는 수출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1971년에 1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한다면 수출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 것인지, 계획의 효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 그 이전의 초라한 수출 실적을 알고 있는 어른들의 경우라면 1971년 수출 10억 달러 달성이 의미 있고 가슴에 와 닫지만 초등학생들의 입장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수치가 되고 만다. 둘째, ‘1970년대에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한 결과’ 1971년에 수출이 10억 달러라고 서술했다는 것이다. 1971년의 수출 실적은 1960년대의 경제 개발 계획의 결과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1970년대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과는 아니다.

따라서 “... 그 결과, 1960년에는 3,3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이 1971년에는 10억 달러,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표

○ 석유 파동(1973) 극복

사진 자료

○ 포항 제철 (p. 130)

석유 파동이 두 차례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옆의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아래에는 ‘제2차 석유 파동’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단순히 석유 파동이라고 하지 말고 ‘제1차 석유 파동’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사진 자료 가운데 포항 제철 사진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현재는 이름을 POSCO로 바꾸었으므로 사진 설명을 ‘포스코’라고 하든지 아니면 ‘포스코(전 포항 제철)’라고 해야 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 개최 이후 우리 나라의 경제는 더욱 크게 성장하여 1995년에는 국민 소득이 1만 달러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세계 무대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우리 나라는 좋지 못한 국내외 상황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은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p. 131)

국민 소득이 1만 달러라니? 이런 말도 내용이 교과서에 있다. 국민 소득이 아니라 1인당 국민 소득이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프에는 1인당 국민 소득이라고 되어 있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면 좋겠다.

두 번째 문장은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는 내용인데, 정부가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정부 중심의 사고를 지니고 서술한 것이며 큰 정부를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경제 주체의 순서를 개인, 기업, 정부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5학년 교과서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경제 위기 이야기는 5학년 교과서에서 상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의 변화 그래프의 출처로는 통계청이 아니라 한국은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 제3장 중학교 9학년 사회교과서 경제 관련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검토

## I. 서 론

이 글 은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과정에서의 경제 관련 부분과 관련된 교육과정,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검토 대상 교육과정은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사회 과목 중 9학년 사회 경제 관련 부분이다.

중학교 사회중 경제에 할당된 단원은 9학년(중학교 3학년)의 (2)민주시민과 경제생활 및 (3)시장경제의 이해라는 2개 단원이다. 다른 단원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비경제 교과에서 비경제적인 관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분석 대상을 중3의 단원(2)와 단원(3)으로 제한한다.

9학년 단원 (2)는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경제학원론의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제행위의 의의와 필요성, 희소성의 원리와 합리적 의사결정, 인류의 경제적 생활모습의 역사적인 변천, 소비자와 기업 및 정부 경제주체별 의사결정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루도록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원 (3)에서는 3개의 소단원에서 시장경제의 체제적 특징, 시장에서 가격의 결정과 변동, 시장경제의 성과와 과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있다. 중학교에서의 경제 관련 단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학원론의 경제문제와 합리적 선택, 경제체제 및 미시경제학 분야에 대응한다.

검토 대상 교육과정 책자는 교육부가 1998년에 발간한 『사회과교육과정』이

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 사회과 교과서가 종전의 국정에서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다. 중학교 사회 검인정 교과서는 모두 7종이 있으며, 이 교과서에 부수하여 교사용 지도서가 출간되어 있다. 이 7가지 중 3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먼저, I장에서 7차 교육과정 사회의 성격, 목표에 대해서 검토한다. 다음으로, II장에서 9학년 경제 단원의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이어서 III장에서는 7종의 검인정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식으로 서술이 이루어진다. III장에서는 단원별이 아니라 교과서별로 내용분석을 실시한다. 교과서 내용분석은 편의상 교과서 출판사명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실시한다. 이 검토 작업의 기본 목적이 현행 7차 사회 교과서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통한 내용 개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과서 내용분석을 교육과정을 따라서 각 교과서의 해당 분석 내용을 묶는 것보다는 교과서별로 페이지를 따라 하는 것이 해당 교과서 집필자들이 이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과서 수정 작업을 해 나갈 때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II장과 III장의 분석은 순차적이기보다는 상호 순환적이다. 즉, 교육과정을 먼저 검토한 후 교과서 집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 점들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할 뿐 아니라, 거꾸로 교과서의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식으로 교과서 내용분석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II장의 내용과 III장의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 배치되는가는 편의적일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 교과서들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자연히 각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주된 문제점들은 교과서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 문제점들이 구현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소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 IV장의 각 교과서의 해당 부분에서 구체적인 수정 건의를 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상의 구조상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교과서 각각에서 그 개선책을 제시하기보다는 III장의 2절에서 공통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각 교과서 저자들은 교과서 개선 작업시 따라서 IV장에서 자신의 교과서에 대한 내용분석과 동시에 III장에서의 관련 교육과정 부분을 동시에 참고할 것을 권한다.

## Ⅱ. 교육과정의 사회과 성격 및 목표에 대한 검토

『사회과교육과정 별책 7』(교육부, 1998)(이하, 교육과정으로 칭)의 <사회 1. 성격>에서 사회과의 목적을

“중학교에서는 각 영역에서 중요시하는 지식을 과학적 절차에 의하여 발견, 적용하고,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공동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하게 한다. 국사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인물사, 생활사를 토대로 사건 또는 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상을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힘쓰도록 한다.”(p. 29)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식의 발견, 적용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이 공동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것의 수단처럼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정신의 발휘가 모든 것을 수단으로 할 정도의 상위 목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지식의 발견과 적용,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 참여시민정신은 대등한 관계로 설정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더구나, p. 30의 <2. 목표마>에서, 탐구능력, 의사결정능력, 사회참여능력은 병렬적인 능력으로 기술되고 있다.

개선 방향: 상기 목표들을 다음과 같이 병렬 서술한다. “중학교에서는 각 영역에서 중요시하는 지식을 과학적 절차에 의하여 발견, 적용하고,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며, 공동생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정신을 함양하게 한다.”

### Ⅲ. 중학교 3학년 경제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

#### 1. 전체적인 소견

##### 1) 내용의 편제와 구성상의 문제

중학교 7차 교육과정 경제 부분의 구성의 골격은 각 경제주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교육과정 역사에서 7차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7차 이전의 교육과정이 경제학원론의 편제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는 매우 참신한 시도이다. 소비자, 생산자,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구실과 역할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학문 중심이 아니라 현실 경제문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게 하여 학습자들이 생활경제에 더 충실하며 쉬운 내용으로 경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민주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발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같은 새로운 구성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을 편제할 때 가장 먼저는 새로운 편제에서 필수적인 내용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며 또한 내용들의 전후 배치의 순서가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매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새로운 구성체계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 경제 부분의 내용 편제는 순서가 전반적으로 잘 잡혀 있다. 그렇지만 내용 배치상에서도 일부 개선점들이 발견되며 일부 중요한 내용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들도 발견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경제 부분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각 경제주체의 ‘바람직한’ 구실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서의 바람직함이라는 것이 합리성이라기보다는 윤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윤리성이란 각 경제주체의 사적 이익 추구는 인정하되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연결되고 사전적으로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바탕에서 작용하면서 7차 경제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내용 편제와 관련하여 문제점 또는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자. 먼저, 사회과교육과정의 단원 (2)민주시민과 경제생활의 (다)민주시민과 경제적 구실에서 다룰 것을 주문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체 편제의 균형을 적지 않게 흐트러뜨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2)(다) 부분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 각 경제주체의 전형적인 경제활동이 다루어지는 것이 이후의 내용 전개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뒤의 단원 (3)(가)시장경제의 특성에서 다루어지도록 요구되고 있고, 거꾸로 단원 (2)(다)에서는 각 경제주체의 활동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 또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경제활동의 내용을 다루도록 주문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앞뒤가 뒤바뀐 편제이다.

예를 들어, 가계소비와 국민경제와의 관계가 교육과정의 (2)(다)민주시민의 경제적 구실에서 다루어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소비와 국민경제와의 관계는 각 경제주체의 전형적인 활동내용이라기보다는 국민경제 순환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3)(가)에서 취급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론적으로, (2)(다)민주시민의 경제적 구실 자리에는 ‘각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활동’이 주문되고, 경제적 구실 내용은 (3)(가)의 ②나 ③으로 뒤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상, 경제학원론에서는 시장경제의 순환 및 가격기구의 작동 원리가 설명된 후 개별 경제주체의 전형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이 다루어진다. 이런 편제는 이미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학교 학생들은 각 경제주체의 전형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초등 학교에서의 초보적인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중학생 수준에 맞고 이후의 내용 전개의 바탕이 될 수 있게끔 각 경제주체의 전형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해가 다루어지고 난 후,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순환

을 이해하고, 시장에서의 교환과 수요-공급의 법칙 및 가격기구의 작동을 이해하는 식으로 내용체계가 편제되는 것이 이해를 도모하고 중복을 피하는 더 나은 방법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교에서는 각 경제주체의 전형적인 경제활동 또는 의사결정 모습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와 갖는 관련성, 그에 따르는 구성의 오류와 경제윤리적 요소에 대한 고려 등은 부차적인 문제로서 간략하게 다루어지거나 아니면 국민경제의 거시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등학교 사회>나 심화 과목인 <고등학교 경제>에서 다루도록 하는 편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나)가격의 결정과 변동에서도 ① 가격의 신호등 역할 내용은 맨 처음 항이 아닌 맨 마지막 항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가격의 결정과 변동을 설명하고 나서, 그 자연스런 연결로서 가격의 기능을 정리하는 식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교육과정에서처럼 ‘가격의 신호등 역할’을 맨 처음에 배치하게 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라 선언되는 지식에 불과하게 성격이 바뀌어 버릴 위험이 높다.

## 2) 보완되어야 할 내용

중학교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 가운데 취급이 안 된 것으로 사료되는 것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2)(가)에서 ①항에 이어 별도의 항목으로서 ‘분업과 교환을 통한 수준 높은 물질적 생활의 향유, 사회구성원간 필연적인 상호의존성 및 사회규범의 준수 필요성’ 내용 부분이 추가 보완되고, 기존 ②항이 그 이후로 배치됨으로써 (2)의 내용의 완결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신설되는 항에서 법의 준수 및 경제윤리의 필요성 등이 포괄적으로 언급되도록 주문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2)(나)에서 소비자, 생산자,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경제적 구실과의 연관성에 초점이 맞추어 서술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본연의 경제적 의사결정 내용이 소홀하게 취급되도록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행위의 분석으로부터 수요의 법칙, 기업의 의사결정으로부터 공급의 법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보다 ‘시민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경제적 일’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제대로 취급되지 않는 문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3)(가)에서 경제주체간 경제활동의 순환 및 (3)(나)에서의 시장가격의 결정과 변동에 대한 설명을 어렵게 만들고 단원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차 교육과정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경제적 구실을 (2)(다)에서 먼저 취급하고, 다음의 (3)(가)①항에서 개별 경제주체의 전형적인 경제 행위를 다루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을 단 하나의 항목에서 소화해내기는 무리일 것이다.

셋째, 단원 (3)(다)에서 시장경제의 발전 과제 또는 체제적 문제점을 다루는데 있어, 시장경제에는 독점, 공공재, 외부효과, 불균등한 소득분배 등등 시장실패에 관한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문제점 가운데 시장경쟁의 부족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경쟁이 충분하면 시장경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될 위험이 있다.<sup>6)</sup>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체제의 문제점 또는 평가기준을 효율성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편향적인 가치판단을 암묵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체제의 평가기준은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 면에서도 동시에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형평성과 관련하여 특히 시장 경쟁의 결과 발생하는 분배 결과의 불평등성의 문제와 그에 대한 사회제도적 완화 노력의 필요성 등이 교육과정에서 동시에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이 혼합경제체제인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평가기준을 형성해 나가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6) 물론 지면 제약하에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한다.

### 3) 교육과정 지침의 모호성의 문제

교육과정상의 지침이 모호하여 교과서별로 취급 내용 및 난이도가 심한 편차를 나타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3)(나)가격의 결정과 변동에서 수요, 공급의 개념을 활용하여 가격의 결정과 변동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교과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도 사용하지 않고 시장가격의 결정과 변동을 설명하는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 교과서는 설명 도구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용한 가격의 결정까지만 이용하고 있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까지 도입하여 가격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는 등 분석 도구의 이용 수준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수요-공급 곡선의 도입 및 곡선의 이동을 통한 설명을 중학교 교육과정이 요구하고 있는가가 불명료하다. 이를 다룰 것인가는 중학교 학생들의 이해 가능성과 고등학교 '경제' 교과와의 발전계통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하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상의 개념 또는 내용이 모호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3)(다)③에서 "... 과도한 사익 추구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에서 '과도한 사익 추구'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어, 교과서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여져 적용되고 있다. 불법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 과도한 사익 추구라는 의미인지, 준법적인 데도 이익이 크면 과도하다는 것인지, 준법적인 데도 외부불경제(오염 유발 등)를 규제 이하로 줄이려 노력해야만 과도한 사익 추구가 아닌 것인지 지극히 모호하다.

#### 4) 경제윤리에 대한 지나친 부수적인 문제

7차 교육과정 경제 관련 부분중 중3뿐 아니라 전체 중등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경제윤리를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 생산자, 시민으로서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체득함으로써 올바른 경제적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실현한다는 교육과정상의 의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경제문제의 중요 원인이 ‘과도한 사익 추구’에 있다고 제시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인정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충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과도한 사익 추구의 자제는 7차 교육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제윤리에 대한 강조와 동전의 앞뒷면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전체에 걸쳐 윤리적 경제행위는 강제규범으로서의 법의 준수와 비강제 규범으로서의 협의의 윤리를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윤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과 협의의 윤리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과도한 사익 추구를 자제하라고 할 때 그것이 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법을 넘어서 비강제 규범으로서의 윤리 규범까지 모두 지키라는 것인지가 모호해지고 있다.

둘째, 각 경제주체의 행동양태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직접적인 경제윤리 교육의 성과가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도덕 교육이 모자라서 사람들과 사회가 덜 도덕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도덕 및 윤리라는 전문 교과목이 있다. 윤리교육의 성과는 윤리 덕목을 직접 제시·주입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보다는 그것이 학습자의 사고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내면화될 때 진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경제 과목에서의 윤리성 함양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함양된다고 전제하는 것이 경제학 또는 경제교육의 성격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에 대한 지적 이해가 윤리적인 행동 기준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시장경제에서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학생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제 도덕적 덕목의 단순한 제시는 그 덕목들의 내

면화에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나의 ‘합리적인’ 경제적 행동이 사회적 성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구성적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예를 들어, 소비-저축 행위의 사회적 귀결, 내 몫을 당장 챙기려는 단기주의, 공공재 공급의 실패,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등)을 관련되는 내용 부분부분에서 인식하는 가운데, 개별 경제주체가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거기에는 사회적 고려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학생 스스로 자각하게 되면 그것으로 학교 경제윤리 교육의 목적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개개 학생이 장차 어떤 정도의 윤리수준을 지닌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그 자신의 몫으로 남겨지는 부분으로서, 학교교육은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도 또한 나아갈 필요도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인 규범은 법 규범이다. 사회적으로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것은 법규범화 된다. 나머지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행위 유형들이 협의의 윤리로서 요구된다. 자유시장 경제는 법질서 내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사익 추구가 합법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과도한 사익 추구’란 규정될 수 없다. 따라서 ‘과도한 사익 추구 자제’의 요구는 ‘책임을 지는 경제행위’ 또는 ‘준법적 경제활동’ 정도로 대체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회 성원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개인의 윤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로서의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적 사고(economic reasoning)의 핵심이다. 개인의 경제윤리를 통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것은 주류 경제학의 사고를 크게 벗어나 있다. 건전한 경제윤리는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자산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대부분의 경우 그 효과성이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경제윤리에 대한 강조는 각 유형의 경제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 본연의 내용을 제대로 다루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소비자, 생산자, 정부 등 각 경

제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전형적인 상황 또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용에 따라 경제윤리적 요소가 부수적으로 개입해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 공공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 자기이익추구 행위를 우선적·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정 (2)(다)민주시민의 경제적 구실에서 이런 문제점이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일부 내용에서 개인주의적이기보다는 국가주의적인 관점이 나타나고 있다. (2)(다)③항에서 ‘시민이 국가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경제적 일을 납세자, 선거권자, 정부정책결정자의 처지에서 찾아보고 ...’라고 하여,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또는 권리)를 단순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데 머무르고 있으며 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주문이 없다. 이보다는 예를 들어 시장을 통한 개인의 합리적 경제행위로부터 공공재 문제, 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정치과정), 공공재 공급 재원의 확보를 위한 납세의 필요성과 같은 논리적인 순서로 다루도록 한다면, 시민의 사회 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단순한 선언적 나열에서 벗어나 시민이 의사결정의 주체인 시민사회의 논리와 근거에 바탕을 두는 의무와 역할로서 이해될 것으로 기대된다.

## 5) 균형 잡힌 시각 유지의 필요성

교육과정의 일부에서 시장경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다루는 한편 자유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에 부수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자유주의적 편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7)</sup> 시장경제가 특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시장경제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의 체제인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의 필요성이 중등 교육과정에서 시장경제체제의

---

7) 물론 교과서는 시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쓰여지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는 문제가 자유시장원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시장개입이 과대하다는 시각을 반영한 결과일 수는 있다.

특장과 더불어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가)에서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일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3)(나)[심화과정]에서 사회 문제를 다룰 때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무시되고 있다.

(3)(다)시장경제의 발전 과제에서 시장경제의 문제점으로서 오로지 불공정 경쟁만을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평가기준을 효율성에만 두고 있는 가치관단을 그 밑에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효율성의 추구만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그에 따르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경험할 위험성이 높다. 경제상태 또는 사회상태에 대한 평가는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학생들이 장차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닌 건전한 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3)(다)③에서 과도한 사익 추구가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사례를 들어 공동체 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개인 윤리 차원으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다. 그리고 과도한 사익 추구의 개념적 모호성 및 시장경제원리와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다.

## 6) 비구성주의적·선언적 지식 전달에 의존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 시장경제체제의 원리, 수요-공급의 법칙에 대한 설명 등에서 지식을 주입적·선언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교과서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경제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언술은

선언적이고 사실상 학생들에게는 무의미한 암기적 지식에 불과하다.

시장경제체제의 체제적 원리로서 ‘사적 재산권,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 사적 이익 추구의 인정’을 들고 이를 설명하는 것도 선언적 지식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보다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의 관련 조문들을 제시하고 비교하게 하여 남한의 시장경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학생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지식을 구성’하도록 주문하는 것이 더 좋은 학습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을 가격과 수량간의 관계로 설명 없이 제시하고 그를 기초로 가격의 결정과 변동을 설명하는 것은 부실한 기초 위에서 집을 지어 나가는 것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교수학습 방법이다.

## 7) 인용 출처의 정확한 표기

자료 인용의 경우에 출처를 모호하게 처리하는 교과서들이 많다. 이는 특정 언론사 홍보 효과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으나, 이보다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인용 형식의 엄격한 준수(표절 금지)의 훈련이 더 큰 상위 가치이므로, 앞으로는 인용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교과서 작성 지침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 2. 경제 교육과정의 단원별 검토

### 1)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

교육과정 단원 (2)(가)는 경제학원론의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제행위의 의의와 필요성, 희소성의 원리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다루도록 주문하고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는 인간 생존을 위한 필요(need)와 문화적인 삶을 위한 욕구(want)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제공함을 이해한다. ② 희소성, 기회비용, 비용-편익 등의 기본 개념을 적용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조건을 설명하고, 학습자가 경험하는 현실 경제 사례에 적용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심화 과정] ① 환경오염이 물과 공기를 얻는 방법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경제학적 기본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교육과정, p. 74).

분업과 교환, 그로 인한 사람들간의 불가피한 상호의존성 및 사회규범의 준수 필요성 등의 내용이 인간의 경제생활의 본질적인 모습으로서 (2)(가)에서 추가 항목으로 삽입되어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기존 ①에 이어서 후속하는 새로운 항목으로 “분업과 교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필요한 재화들을 구하며 높은 수준의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의 경제적 삶은 상호의존적이며 사회규범이 필요하게 된다.”는 내용을 갖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내용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2)(나)는 경제학원론의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류의 경제적 생활 모습의 역사적인 변천을 개괄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등장과정 및 그 특징을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역사의 발전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결부되어 있음을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분업), 교환, 분배 등 경제 활동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여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파악한다. ② 중세까지의 농경사회, 근대 이후의 산업 사회, 미래의 정보 사회는 각각 농업, 공업, 정보 산업을 기본 축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③ 근대 사회에 와서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 경제 체제가 나타났다는 맥락에서 시장 경제의 장점을 이해한다. ④ 미래 경제에는 국제화와 정보화 등을 통하여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인간의 생활이 어떻게 변해 갈지를 예측해 본다. [심화 과정] ① 미래 사회에는 어떤 독창적인 상품이 소비자의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예측해 보고, 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 본다.”

전체적인 구조가 바람직하게 짜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민주 시민과 경제적 구실

①은 소비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 일상적인 소비 활동을 소재로 하고, 개인의 소비와 국민 경제, 소비와 저축, 올바른 소비 형태, 소비자 선택(주권, 투표)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민주 시민이 해야 될 소비자 구실의 방향을 설명한다(교육과정, p. 75).

소비자로서의 올바른 소비행동 및 “민주 시민이 해야 될 소비자 구실의 방향을 설명한다.”는 표현은 개인의 소비행동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표현으로 보인다. 이것이 합리적인 소비행동에 대한 서술 요구로 받아들여진다고 해석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올바른 소비행위로 해석하여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교과서 서술에 있어서 합리적 소비행위 자체는 사소하게 취급하며 소

비행위의 사회적 귀결 또는 거시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한 소비행동을 강조하는 경향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선 방향: 개인 소비행위의 사회적 맥락은 부차적이다. 중학교 수준에서 일차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합리적인 소비행위란 무엇인가 또는 합리적인 소비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고 그와 관련한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 또는 구매행위 등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구매행위의 조건들을 분석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원과의 효과적인 연결을 위해서는 구매 의사결정을 통해 수요의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탐구활동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중학생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물건(예를 들어, MP3 등)을 새로 구입하려 하는 상황을 탐구상황으로 설정·제시할 수 있다. 구입할 수 있는 몇 가지 종류의 MP3의 가격, 품질, 디자인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한다. MP3를 동네 가전상회, 가전제품종합상가,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어디에서 구입할 것인가를 묻는다. MP3 구입 전에 어떤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조사행위를 하는지를 묻는다. 구매처의 결정과 조사 행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묻는다. 이 같은 일련의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정보에 근거한 소비의사결정의 필요성(즉흥적 의사결정에 따르는 문제점), 소비의사결정시 거래비용(특히, 가격 및 품질 등에 대한 정보입수비용)에 대한 고려를 이해하게 된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액수를 제한시킨 후, 구매 대상 MP3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비의사결정은 예산의 제약 아래서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우리집에 대해서 이를 연장해 적용해 보도록 한다.

다른 MP3의 가격은 변함없는데 유행하는 어떤 MP3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싸진다면(비싸진다면) 그 MP3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 묻는다. 이를 통해 가격과 구매하고자 하는 양 간에는 역의 관계가 있음(수요의 법칙)을 이해하게 한다.

한편, 가계의 소비 의사결정은 ‘소득의 획득 → 저축과 소비의 결정 → 합리적인 소비’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불과하다. 신용사회가 되면서 가계의 신용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단계에 대비한 가계의 저축과 재산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과서의 집필은 개인의 소비와 저축 결정이 국민경제에 대해서 갖는 영향 또는 그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 가계 또는 개인의 입장에서 전 생애를 고려할 때 미래를 위한 저축과 재산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축이 부족하고 현재의 소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되면 앞날에 고생을 하게 된다는 점을 탐구활동이나 사례를 통해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은퇴하여 소득이 없는 노인부부의 가상의 소비액과 그 재원의 총당(이자소득, 연금소득, 자녀의 생활비 보조 등) 자료를 제시한 후, 재산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미래의 소비를 위한 현재의 소비의 희생으로서의 저축, 저축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축이 이루어지면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재산의 여러 가지 관리 방안 또는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물음으로써,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

개인의 저축은 기업이 생산시설을 늘리는 재원으로 활용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달에 기여하게 되는 점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②는 생산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과정상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②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 기업가로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 공공의 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방법을 현실 사례에 적용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본다(교육과정, p. 75).

소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 공공의 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방법을 현실 사례에 적용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본다.”는 표현을 통해 개인의 생산활동을 본연의 이익 추구 행위 자체로서 접근하려 하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생산활동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표현이다.

이러한 의도가 교과서들에 반영되어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생산 또는 기업 관련 내용은 합리적인 이익 추구행위 자체는 부차적으로 취급되며, 공익을 우선시하는 생산활동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앞세우는 강한 서술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개선 방향: 사적인 생산활동의 공익성에 대한 고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부차적이다. 각 생산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체제적 특징이다. 중학교 수준에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생산활동 또는 기업활동의 전형과 그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행위와는 달리 중학생들에게는 생활경험을 통해 생산활동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영업의 개점·운영에 대한 사업설계를 짜보는 탐구활동 또는 사례분석의 형식을 통해 생산활동 또는 기업에 대해 간접 경험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자 가게를 창업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체 입지의 선택과 그 이유, 창업자금 부족시 자금조달의 방법, 광고의 방법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짜본다.

피자집의 운영에 어떤 생산요소들의 고용이 필요한지를 묻고, 생산요소의 고용에는 비용이 발생함을 이해한다.

피자 한 판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정하다면, 피자 가격이 높아질수록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다. 피자 가격이 일정하다면, 비용이 높아질수록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는다. 이익이 높아질수록 피자를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생산·판매하고 싶은지를 물어, 가격과 공급(량)간의 관계(공급의 법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얻는다.

기업이 이익을 늘리려는 행위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유형들(예를 들어, 과대 및 허위 광고, 경쟁제한행위, 중량을 속이는 행위 등등)을 적어보게 함으로써 생산활동에 윤리적 측면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피자 집의 종업원(예를 들자면, 지배인 등등)으로 일할 때 바람직한 근무 자세와 바람직하지 못한 근무 자세에 대해서 적어 보거나 토의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올바른 근무 자세를 인식한다.

이와 같은 탐구활동 사례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주변에서 흔히 보는 생산활동 주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산과 공급에 대한 개념을 익히며, 가격과 공급 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 이해, 생산활동시의 윤리적 고려, 바람직한 근로자의 자세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맛 좋고 저렴한 피자의 제조와 판매, 청결한 매장과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 이익이 늘어나고, 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을 주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시장경제에서는 값 싸고 질 좋은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사회(즉, 소비자)에 봉사하는 생산자에게 사회는 더 큰 이익으로 보답하게 된다는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③은 시민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경제적 일에 관한 내용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③시민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경제적 일을 ‘납세자, 선거권자, 정부 정책 결정자’의 처지에서 찾아보고, 그것을 적용하여 관련되는 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교육과정, p. 75).

③은 경제주체로서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루고자 하는 항인데, 이것을

정부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다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참신하기는 한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국민경제의 운행에서 공공재의 공급과 그 재원의 조달이라는 정부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실제로, 교과서 집필 내용들은 ‘납세자, 선거권자, 정부 정책 결정자’와 관련한 시민들의 경제적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정치 행위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개선 방향: 대표적인 공공재인 국방 등을 예로 들어, 국방을 민간기업이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할 것인가, 민간기업은 어떻게 하려 할 것인가를 물어 공공재 생산·공급은 정부가 담당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한다. 즉, 재화 중에 공공재라는 성격을 갖는 재화가 있음을 우선적인 내용으로 취급한다.

최근년도 정부예산의 대분류 지출 항목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비중을 계산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 항목들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를 대체적으로 파악한다.

정부예산의 재원이 시민들이 납부하는 조세수입으로부터 충당됨을 이해한다.

정부지출과 조세 변화의 기회비용과 상충관계에 대해서 이해한다. 예를 들면, 정부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지출을 늘리면, 국방비 등 다른 지출항목이 줄어들거나 또는 세금을 올려야 이런 추가지출이 가능함을 이해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조사한 최근년도의 정부예산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의학습 또는 역할놀이학습을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각부 장관의 증액 요청을 반영한 새로운 예산안의 작성과 국회로의 제출,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와 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정당별로 다른 주장의 대립),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 시민들의 혜택과 세금 납부 등에 대한 모의학습이나 역할놀이를 통해 정부의 경제적 활동이 민주적인 참여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①의 소비자 선택(주권, 투표) 내용은 민

주시민의 경제적 구실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정부예산안의 작성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고, 그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인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예산안, 정부 경제 활동에 대한 결정권은 근본적으로 시민에게 있음(주권재민)을 이해한다. 시민이 소비자로서 물건을 사는 것은 시장에 나온 물건에 대해 투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 행위의 결과, 많이 팔리는 물건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안 팔리는 물건은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즉, 시장경제에서 어떤 물건들이 얼마만큼 생산되는가에 대한 의사결정도 소비자, 즉 개개 시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정치적 투표 행위와의 비유를 통해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 주권’임을 이해한다.

[심화 과정] 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① 신문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는 경제문제를 찾아, 경제, 정치, 법, 문화 및 다른 나라와의 관계 등의 다양한 면을 고려해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 ② 가계소비의 크기와 국민경제 상황과의 관계, 과소비에 대한 논란, 국산품과 외래품에 대한 소비 논란 등의 쟁점 사항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도록 한다(교육과정, p. 75).

심화과정의 ②를 ①로 우선 배치하여, 개인 또는 가계의 소비 의사결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것은 개인이나 가계의 소비행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화과정 ①의 문제 제기 상황들은 교육과정 (2)(다)의 전체 내용과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에서는 소비자, 기업, 정부라는 각각의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다루고 있는데, 심화과정 ①은 경제문제를 선택하여 정치, 사회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보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보다는 사회의 쟁점이 되는 경제문제를 신문자료에서 찾아 의견 대립의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주문하는 것이 중학생 수준에 맞는 다룰만한 심화 학습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내용도 여전히 중학생 수준에서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소비와 관련된 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생산과 관련된 항으로서 모범적인 기업가를 찾아 분석하는 새로운 항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소비와 소비행위에 이어서 기업과 생산활동 관련 내용으로서 [심화과정]의 두 번째 항목으로 ‘존경 받는 기업가를 찾아서 그가 어떤 점에서 훌륭한 기업가로 평가받고 있는가를 조사·발표해보도록 한다’는 내용을 심화과정의 한 항목으로 추가해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4) 시장경제의 특성

교육과정 (3)(가)의 ①은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과정상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주체별로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칙과 그 과정의 특성을 이해한다(교육과정, p. 75).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원칙과 그 과정의 특성’이라는 포괄적인 지침은 다양한 내용의 기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 따르는 지침으로서의 불완전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선 방안: 이미 (2)(다)에서 각 경제주체별 경제행위의 내용과 특성들이 다루어졌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경제주체별 경제활동의 목적이 시장에서의 교환행위를 통해 달성되며 그 과정은 순환적이라는 데 서술의 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체제적 특징(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와 책임, 사적 이익 추구의 인정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개선 방향: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교환행위를 통해서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게 된다. 경쟁은 양질의 재화가 값싸게 공급되도록 기업들을 유인하며,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양질의 재화를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소비하게 되는 바람직한 사회 모습이 전개되는 전체적인 경제운영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교육과정상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상호성 및 순환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현행 교육과정에서처럼 경제주체간의 순환보다는, 재화의 이동 흐름 추적에 대한 탐구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간단한 친숙한 상품 품목을 선정하게 한 후, 누가 그것을 생산·판매하는가, 누가 그것을 구매·소비하는가의 순으로 추적하게 한다. 또한 그 품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산요소들(노동력, 원재료 등)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생산자, 유통업자, 판매자)의 판매수입과 생산요소의 구입, 생산요소 제공자의 소득 획득과 소비지출이 상호간에 맞물려 있음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2)(다)에서의 소비자의 소비행위와 생산자의 생산행위,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 순환하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질서 및 시장질서의 유지, 경쟁의 보호와 촉진 등 정부의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적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서술 지침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필요가 있다.

② 시장 경제의 제도적 원칙인 사유 재산권, 경제 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 등을 헌법의 기본권과 경제 조항에서 근거를 찾아 그 의미를 설명한다(교육과정, p. 75).

②는 관련 지식을 주입하려는 목적의식이 지나치게 강해 보인다. 이는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이해되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선언적 지식, 즉 다분히 단순 암기되는 지식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의 ①의 내용이 위에서 언급된 개선 내용에서처럼 다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의 ②는 중복적이며 불필요하다. 이 내용은 오히려 심화학습으로 돌려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런데, [심화학습]에서처럼 주어진 특징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및 사적 이익의 추구와 관련된 남한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 조문들을 자료로서 주고, 두 체제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비교 검토한 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체제적 특징을 정리하도록 하는 교과활동을 [심화학습]이 아닌 본학습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은 남북한 헌법 자료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스스로 경제체제의 운영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의 체제적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 헌법 조문 자체를 찾는 일은 지루하고 시간 낭비적이 되기 쉽다. 자료를 교사가 직접 제시해주는 더 좋을 것이다.

### (3) [심화 과정]

[심화과정]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시장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교육과정, p. 76).

시장경제의 문제점은 다양하다. 그리고 일부는 체제적 차원의 문제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문제를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심화 과정에서 다루게 되면 그냥 지나치거나 소홀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체제적 특징을 다루는 지금의 항에서는 경제의 순환과정과 체제의 원칙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장경제의 체제적 문제점은 이후의 (2)(다)시장경제의 발전과제 부분에서, [심화 과정]이 아니라 본 내용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검토 의견과 개선 방안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된 교육과정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한 재화가 생산되어 소비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를 통해 가게,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이 상호간에 어떻게 맞물려 순환하는지를 이해한다.

②시장 경제의 제도적 원칙인 사유 재산권, 경제 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 등을 경제활동의 순환과정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설명한다.

### **[심화 과정]**

①시장 경제의 제도적 원칙과 계획경제의 제도적 원칙을 남북한 헌법의 관련 경제 조항들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주체의 전형적인 생활상과 계획경제에서의 전형적인 생활상을 비교 서술해보도록 한다.

## **5)가격의 결정과 변동**

가격의 결정과 변동에 대한 교육과정상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 경제 활동에 신호등 구실을 하는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동하는지를 이해한다.

②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수요·공급을 예로 들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③ 공산품, 농·수산물 및 서비스 상품을 예로 들어,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④ 소비자와 생산자는 상품 가격 변동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신의 경험과 주위의 기업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가격 기능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심화 과정]**

① 도시의 교통 문제, 주택 문제, 사교육(과외) 문제 등 현실 사회 문제를 선정하여 가격 기구에 의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나) 단원의 체계와 내용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이 상호작용에 의한 가격의 결정과 변동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①의 서술이 모호하다. 시장가격의 신호등 역할에 대한 설명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가격이 결정·변동하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하여 이후의 항들에서 차례로 설명이 전개될 것들을 ①에서 통틀어서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②, ③, ④에서 수요와 공급의 개념,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한 시장가격의 결정,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른 시장가격의 변화를 다루도록 교육과정이 요구하고 있다.

가격의 결정과 변동을 설명할 때, 교과서에 따라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그리고 곡선들의 이동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7차 교육과정상의 지침이 모호한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학교 교양과정 학생들의 적지 않은 비율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비전문가들에게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을 이용해 가격의 변동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학생의 경우는 더욱 말할 나위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수요곡선(수요의 법칙)과 공급곡선(공급의 법칙)을 이용한 가격결정까지만 다루고 곡선의 이동을 이용한 가격의 변동은 다루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주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심화 과정]에서 도시의 교통 문제, 주택 문제, 사교육(과외) 문제 등 현실 사회 문제를 선정하여 가격 기구에 의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교육 문제는 시장논리(수요-공급의 조정을 통한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 균등, 소득과 부의 분배 등의 형평성 요소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전형적인 문제이다. 주택 문제도 그렇다. 이런 성격을 갖는 사회 문제를 단순히 가격기구에 의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문한다면 우리 사회의 상식과 상당히 동떨어진 해결방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 같은 주문의 밑바탕에는 사회문제는 시장 논리로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배분 효율성 중심의 편향된 평가 시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개선 방향: 이보다는, 시장가격의 신호등 기능과 그 결과로서 재화의 과부족 없는 생산으로의 귀결에 대한 설명을 의도하는 식으로 문장이 재서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취급이 먼저 선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수요, 공급, 시장가격의 결정과 변동 등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난 후에, 그 모든 것을 종합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 단원의 맨 마지막 항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해당 내용이 선언적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동을 이용한 가격의 변동 설명은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또한 혼란이 많이 요구되는 비효율적인 설명 방법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은 심화 선택과목인 <고등학교 경제>에서 다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중학생 수준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개념, 수요곡선(즉, 수요의 법칙)과 공급곡선(즉, 공급의 법칙)을 이해하며,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용하여 수요량이 공급량과 일치할 때 가격이 성립하며, 불일치할 때 변동(상승 또는 하락)하게 된다는 내용까지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화는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의 이동을 통한 분석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생겨나면 그에 상응하여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된다는 언어적 분석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학생의 이해 수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이 신호등 구실을 한다는 표현은 모호하다. 보다 정확하게는 시장 상태에 대한 신호 기능과 유인 기능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를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처럼 한 재화의 가격 변동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수 있다.

가격기구의 작용을 통해 달성되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균형상태가 사회가 원하는 재화의 양이 과부족 없이 생산되었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 달성된 상태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한다는 언급이 선언적 지식에서 벗어나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되는 지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심화 과정]에서 가격기구에 의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유형에 대한 주의 깊은 선정이 필요하다. 적지 않은 규제가 형평성 실현의 목적을 동시에 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문제를 단순히 시장 논리로 풀지 않는 이유를 같이 생각해보게 하는 주문이 따라야 할 것이다. 교통 문제, 주택 문제, 사교육 문제의 경제 문제를 굳이 다룬다면, 이를 효율성과 형평성의 양 기준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교육 문제나 주택 문제는 예시로서 적합하지 않다. 가격 메커니즘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의 예를 꼭 주문하고자 한다면, 도심 교통난 해소 정도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검토 의견과 개선 방안을 종합하면, 이 부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수정된 교육과정을 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수요·공급을 예로 들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한다.
- ② 공산품, 농·수산물 및 서비스 상품을 예로 들어,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과정을 언어적으로 설명한다.
- ③ 소비자와 생산자는 가격 변동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신의 경험과 주위의 기업 사례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격의 신호 기능과 유인 기능을 이해한다.
- ④ 재화에 대한 과부족이 없는 시장 균형 상태가 자원들이 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바람직한 상태로서 이는 시장에서 가격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달성됨을 이해한다.

**[심화 과정]**

- ① 도심의 교통난 등 사회 문제를 선정하여 가격 기구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6) 시장경제의 발전 과제

시장경제의 발전 과제에 대한 교육과정상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① 시장 경제는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하지만, 경쟁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비능률과 갈등이 발생하여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토대로 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② 경쟁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야 될 제도나 행태를 조사와 토론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 ③ 시장 경제가 개인의 이익 추구를 바탕으로 하지만, 과도한 사익 추구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를 들어 공동체 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심화 과정]

- ① 신문 자료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경쟁 사례를 찾아 그 폐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쳐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를 추출한다.

이 단원은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조건 및 문제점의 치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루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단원이다. 경제학원론에서 보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시장실패와 소득분배 문제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불공정 경쟁 및 개인의 과도한 사익 추구를 들고 있어, 일단은 경제학원론의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①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②는 ① 및 이어지는 [심화 과정]과 거듭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보인다.

③은 과도한 사익 추구의 자제 필요성과 공동체 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경제학원론 체계와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우선 공공재나 외부불경제와 관련되는 서술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과도한 사익 추구’라는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 불법적인 이익 추구일 때 과도한 것이 되는지, 준법적인 데도 이익과 소득이 크면 과도한 것이 되는지, 준법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외부불경제(오염 유발)를 규제 이하로 줄이려 노력해야 하고 또는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수요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과도한 사익 추구가 아니라는 것인지 지극히 모호하다. 사익 추구가 과도함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어, 교과서에 따라 다양하게 받아들여져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사익 추구의 자제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방법을 다루도록 명시적으로 주문함으로써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공동체 의식 실현의 중심적인 방법이 개인적이며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할 위험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은 경쟁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지만, 최대의 문제점은 그 결과의 불평등성과 이 불평등성을 치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체제 내에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분배 문제는 공동체 의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정부에 의한 재분배 정책이나 개인적 자선 등 비시장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 방향:** ①은 그 골격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②항으로 공공재 및 외부불경제 문제와 정부의 역할을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새로운 ③항에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분배 문제 및 그에 대한 사회적 대처 방안을 다루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장과 문제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며, 사회공동체 의식을 지닌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려는 교육과정상의 목표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이 부분의 교육과정 수정안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시장 경제에서 경쟁이 부족하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경쟁이 치열할 때보다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재화를 사서 쓰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을 토대로, 경쟁의 중요성과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② 사익의 추구가 사회적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공공재의 생산과 환경오염 등의 외부불경제를 통해 이해하고, 이 경우 정부의 개입에 의해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③ 경쟁은 효율성 증진의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경쟁의 결과 소득과 부의 분배에 차이가 나게 되며, 사회는 소득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서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건전한 사회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제용어 가운데는 예컨대 ‘저축’ ‘투자’ ‘자본’ 등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의미와 경제학적으로 정의된 내용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경제행위’ ‘자본축적’ ‘신용관리’ ‘국제수지’ 등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도 많이 있다. 그런데 많은 교과서에서 아무런 정의 없이 그러한 경제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경제용어, 특히 상식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용어들은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사용하도록 교과과정에서 지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 IV. 중학교 3학년 경제 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

### 1. <고려출판> 교과서

#### 1) 경제문제의 합리적 해결

탐구활동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p. 43)

탐구활동에서 고등학교 야구선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프로구단에 입단하는 두 가지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아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해보라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선택을 위해서는 기회비용뿐만 아니라 편익도 알아야 하는데, 기회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 비용과 편익을 학생들 스스로가 조건부로 상정하고 대답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합리적 선택방안을 대답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 2)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입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으며, 국내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통제 정책을 실시했다”(p. 50)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입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 등이 국내 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통제 정책들의 예이므로 위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 표현되는 것이 학생들의 문장 이해에 더 바람직해 보인다. 즉,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입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는 등 국내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통제 정책을 실시했다”

### 3) 민주시민과 경제적 구실

가계와 소비 관련,

“소비자가 무절제한 과소비를 계속한다면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초래하여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p. 56)

‘과소비’라는 용어는 개념 정의가 어려운 것이므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라든가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라는 등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해주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소비자주권을 소비에서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활동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다(p. 57). <교사용 지도서>도 마찬가지이다(p. 90). 교과서 p. 57의 ‘소비자 주권 시대’라는 제목은 오히려 ‘소비자 권리 시대’로 표현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부분의 서술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투표행위와 소비자주권과의 연관적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기업과 생산 관련하여,

#### 5. 기업의 사회적 책임(p. 59)

이 단원에서 생산주체로서의 기업 본연의 활동 모습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이 생활주변의 경험과는 동떨어진 객관적 대상으로서 기술되고 있을 뿐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당위론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생산의 주체로서의 기업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 아래 기업 본연의 생산활동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경제활동 관련,

#### 6.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역할(p. 60)

시민의 역할이 납세자로서의 책임 및 참여주체가 아닌 소극적인 여론 형성자로서의 역할로 제한적이다.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거권자, 정책결정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조차도 빠져 있다.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직접 담당하기도 하며, 선거와 투표,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시민 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서술이 좀더 보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주체로서의 정부의 경제활동(질서 유지, 공공재 공급,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 등등)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 4) 시장경제의 특성

경제주체별 활동과 과정의 특성 관련,

도움 자료 경제의 구성과 순환 (p. 67)

p. 67의 순환도에서 재화와 생산요소의 거래가 빠져 있어 그림이 불완전하다. <교사용 지도서>에도 순환도가 그려져 있지 않다.

더 자세히 알기(pp. 70-71)

pp. 70-71의 ‘더 자세히 알기’에서 시장경제의 특성으로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제를 설명한 다음에 시장경제의 문제점, 즉 시장의 실패에 대해 두 페이지에 걸쳐 다루고 있다(pp. 70-71). 물론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제를 시장경제의 장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특징을 소개한 것뿐이며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것만으로 학생들이 시장경제의 장점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제로 인해 그렇지 못한 경제와 비교할 때 적극적으로 일할 유인을 제공하며 낭비를 줄여 공익에 기여할 수 있고, 결국

국민들에게 경제적 풍요를 제공할 수 있다는 등 장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했다라면 학생들에게 균형된 시각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제라는 특징을 가진 시장경제가 문제점만 두드러지는 경제체제인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장점과 단점은 가격기능을 이해한 후에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의 문제점은 가격의 결정원리와 기능을 커버한 다음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5) 가격의 결정과 변동

개인의 소비활동과 기업의 생산활동 단원에서 수요의 법칙 및 공급의 법칙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면 p. 74에서 학생들이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상 읽기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량이 증가한다(p. 74).

‘세상 읽기’ 박스에서 수요,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매우 예외적인 과시선호의 예를 같은 쪽(p. 74)에서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수요의 법칙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에 대한 혼란과 의구심에 빠지게 하는 부작용을 더 크게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예외적 현상인 베블렌 효과나 가수요 등을 탐구활동에서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격이 수요자나 공급자의 생각보다 높다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여 상품이 남게 된다. 그러면 공급자는 가격을 내려 남은 상품을 좀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려 할 것이다”(p. 75)

이 서술은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상정하고 쓴 것 같은데, ‘가격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생각보다 높다’는 말은 정확하지 못하며 틀린 표현이다. 아마도 전자는 ‘소비자들이 주어진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을 뜻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수요곡선은 각 가격수준에서 수요량 즉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을 나타내며, 그 가격수준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수요자는 수요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수요곡선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는 혼란스러운 설명방법이다. 그 보다는 ‘어느 가격수준에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으면 팔리지 않는 재화가 있게 되고 공급자들은 가격을 낮추려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공급자는 계속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결국 상품의 공급량을 줄이게 되고, 이때 부족해진 상품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다”(p. 75).

이는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방법이다. 그 보다는 ‘어느 가격수준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쉬울 듯하다.

“관광지에서 음료수를 파는 가게들은 동네의 식료품 가게들만큼 경쟁적이지 못하여 다소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도 한다”(p. 76).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초점은 동일한 상품에 대해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지의 음료수 가격이 동네 가게보다 높은 것은 비록 경쟁적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동네가게에 비해 음료수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러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보다 합당한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세상 읽기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가격(p. 76)

‘세상 읽기’의 박스에서 제시되고 있는 1963년부터 2001년의 장기 시계열에 이르는 신문 가격과 라면 가격의 변화는 교육과정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부적절한 예로 보인다. 교과서의 주문은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른 단기적인 수요, 공급의 변화로 인한 시장가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인 기간에서의 가격 변동은 수요 및 공급의 복합적인 변동에 따른 것으로서 중학생들에게는 이해가 쉽지 않은 예라 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연도별 상품가격의 변동요인은 그 동안 화폐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 기술혁신의 효과, 상품에 대한 선호의 변경 등 다양한 요인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 예컨대 심야영화 관람료와 주말영화 관람료가 다르던가, 새마을기차의 주중요금과 주말요금이 차이가 나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가격의 신호 기능과 유인 기능을 교육과정의 배치와는 달리 단원의 맨 마지막(p. 77)에 위치시켜 앞의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장으로 이용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더 자세히 알기 시장 가격 기구를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여겨 지나치게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다.”(p. 78)

‘더 자세히 알기’에서,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로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여겨 지나치게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많다.”(p. 78)고 언급하고 있다. 임대주택용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개인은 재산을 예금, 채권, 주식, 토지, 아파트(주택), 상가건물, 공장건물 등 여러 형태로 보유할 수 있다. 어느 자산 형태로 보유할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범위에 속한다. 물론 선택의 결과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시기, 경제적 여건(불황 호황) 등에 따라 다르고 항상 동일하지도 않다. 예컨대 모두들 자산을 예금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항상 최고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어느 자산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된다. 어느 지역에 수요량에 비해 너무 많은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누군가 투기수단으로

그 아파트를 구입해 주면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자산 형태 가운데 유독 주택을 자산관리 수단으로 보유하지 말도록 가르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정부가 그러한 투기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시장경제의 발전 과제

이 단원의 서술은 교육과정의 주문 사항을 충실히 잘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오로지 공정 경쟁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교육과정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지나친 사익 추구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p. 84).  
탐구활동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p. 84)

p. 84의 본문에서는 불법적 행위가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 데 반해, 그 아래의 탐구활동에서는 외부불경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염색업체 사장인 남피해 씨가 환경오염규제를 준수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면, 이를 ‘지나친 사익 추구’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지나친 사익 추구의 자제라는 모호한 표현이 야기하는 예기된 문제가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실제로 나타난 예이다.

“우리가 저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만 한다면, 머지않아 사회는 붕괴되고, 결국 각 개인도 제대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p. 85).

이 서술은 사익을 추구할 때 항상 공익을 생각하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서술이다.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예컨대 학용품을 선택할 때 마음대로 구입하지 말고 사회 전체

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구입하라고 가르칠 것인지는 의문이고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개인의 사익 추구는 법의 테두리라는 제약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5. 남을 배려하는 활동은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킨다.(p. 85)

p.85 '5. 남을 배려하는 활동은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킨다.'의 내용은 시장경제에 국한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은 이곳이 아니라 경제 단원 맨 처음의 '사회생활의 상호의존성과 규율 준수' 항을 두고 그 곳에서 다루어지게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어, 교과서 상에서 지금과 같은 내용 배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교학사-차경수> 교과서

### 1) 경제문제의 합리적 해결

“하나의 선택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데, 포기하게 되는 것들 중 가장 큰 가치를 지닌 것의 평가액을 기회 비용이라 한다.”(p. 42)

이러한 정의만으로 기회비용의 의미를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개인마다 일정한 재화에 대한 편익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한다.”(p. 43).

개인마다 편익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컨대 시간의 기회비용 등 비용도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마다 편익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 2)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특별한 문제점 발견되지 않음.

## 3) 민주시민과 경제적 구실

가계와 소비 관련,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다. 가계나 개인의 합리적인 저축-소비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며, 단지 소비행위의 사회적 귀결에 대해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사용 지도서> p. 91에는 소비행위를 총계적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교육과정이 소비의 사회적 영향을 주문하다보니 이런 취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너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소비와 저축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p. 54)

소비와 저축의 거시적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문맥상으로 볼 때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소비를 지나치게 해도 안 되고 저축을 지나치게 해도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오히려 평생에 걸친 합리적인 저축-소비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의미를 가질지 몰라도 현재의 맥락에서는 거의 무의미한 표현이 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p. 55)

교육과정 상에서는 소비자주권을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소비자주권이 소비자의 권리 행사로 해석, 기술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투표 행위와 소비자주권과의 연관적 설명이 빠져 있다.

기업과 생산 관련,

“기업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기업 안에는 일을 하는 근로자와 기업을 세우고 이를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기업가가 있다.”(p. 56)

기업가의 역할을 피상적으로 설명할 뿐 그러한 기업가가 국가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나 평가가 없다. 그러면서 삼풍백화점 경영자들의 무리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붕괴사고 이야기를 다룬 ‘눈앞의 작은 이익을 추구하다가...’라는 컬럼(p. 57)을 통해 나쁜 기업가의 행위만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업이나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단원 마무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p. 61)

이 난에서 기업의 창업과 생산, 판매를 통한 이윤 획득을 모의(시뮬레이션)해 보게 하고 있다. 이는 기업활동에 대한 생생하고 효과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바람직한 교습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경제활동 관련,

공공재 개념을 도입하여, 납세의 필요성과 그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언급하고 있다.

#### 4) 시장경제의 특성

경제주체별 활동과 과정의 특성 관련,

## 1. 경제주체의 역할(p. 65)

경제주체간의 경제활동의 순환적 연계에 대한 설명은 잘 이루어져 있으나, 개별 경제주체의 전형적인 의사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 2.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p. 67)

이 곳에서는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이 되는 내용을 선언적으로 제시,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 5) 가격의 결정과 변동

“일반적으로 수요자는 물건의 가격이 낮을수록 많이 구입하려 하고, 공급자는 물건의 가격이 높을수록 많이 판매하고자 한다. ... 수요 곡선은 가격과 반비례 관계로 우하향하는 모양을 이루며, 공급 곡선은 가격과 비례 관계로 우상향하는 모양을 이룬다.”(p. 72)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가격의 결정 등이 매우 기계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왜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어 학생들의 무조건적인 암기를 요구하고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용지도서의 p. 115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개념적으로 구분 짓고 있으며,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을 이용하여 시장가격의 변동을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학생에게는 너무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교사용 지도서> p.117에서는 소비자 행동으로부터 수요의 법칙을 도출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속물효과나 편승효과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생산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가격차별 등 부분적인 내용들을 확대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다.

## 6) 시장경제의 발전 과제

이 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의 주문 사항을 충실히 잘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오로지 공정 경쟁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교육과정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3. 과도한 이익 추구 방지와 공동체 의식 실현(p. 82)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과도하게 해친다면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마다의 능력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되, 그 결과가 다른 사람이나 나라 전체의 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p. 82)

위의 내용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에도 일정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나의 행동이 타인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표현이 모호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시장경제에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사회 원칙의 하나이지만 그것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가지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언급과, 공동체 의식의 실현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자제하고 염두에 두는 개인 윤리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사회 질서의 유지 필요성과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제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 3. <교학사-황재기> 교과서

#### 1) 경제문제의 합리적 해결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나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 노동력, 원료 등이 부족하다.”(p. 39)

‘원료’ 보다는 ‘자원’이 더욱 포괄적이어서 바람직한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 한다”(p. 42).

기회비용은 ‘다른 것의 가치’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다른 것의 가치’라고 표기하는 것은 오류이다. ‘다른 것의 가장 큰 가치’가 맞는 표현이다.

#### 2)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과 단점은?’(p. 47)

이라는 제목 아래 시장경제의 특징 및 그에 따르는 결과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이해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남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북한의 공산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체제적 특징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경제체제적 특징을 스스로 도출하고 이해하는 식으로 바뀌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자원은 시장 가격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배분되는 것이다.”(p. 47)

여기서 ‘효과적’은 ‘효율적’으로 수정되어야 옳다.

### 3) 민주시민과 경제적 구실

민주 사회에서의 소비자(p. 52)

이 단원에서 가계나 개인의 합리적인 저축-소비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소비행위의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p. 53).

저축의 목적을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로만 한정지었는데, 이자율이 높아 현재소득을 미래소득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저축할 수도 있으며, 미래의 자금 필요를 위해 저축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기업의 모습은?(p. 54)

여기서 기업의 전형적인 의사결정 내용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업활동의 사회적 효과와 윤리적인 기업활동 관련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기업의 전형적인 활동 내용 및 의사결정 내용을 접하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행위 내용은 다음 단원 III.1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경제 활동에서 얻어진 이윤은 ... 문화 활동이나 장학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p. 54)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즉 영리를 제고시킬 목적으로 이윤

으로 분배되어야 할 몫을 문화활동이나 장학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문화활동이나 장학사업은 기업의 이윤을 분배받은 소득자의 몫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의 사회 환원은 기업가, 근로자, 금융소득자 등 소득자 모두가 참여해야 할 과제로 인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지원은 기업가의 몫으로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3. 민주시민의 경제적 역할(p. 56)

정부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고 민주시민의 경제적 역할만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다음 단원 III.1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의 민주시민의 경제적 역할과 다음 단원의 정부의 활동간에 연관성이 없이 따로 놓고 있다.

## 4) 시장경제의 특성

“생산자와 소비자가 체계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오늘날의 시장이다.”(p. 64)

시장의 정의를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시장이란 생산자와 소비자의 접점을 말한다.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조직이 있으면 편리한 시장이 될 뿐이다.

### ② 시장경제의 원칙(p. 67)

이 곳의 서술은 시장경제의 원칙이 무엇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마치 당위처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당위적으로 어떠한 것일 수 없을 수 없다. 거꾸로, 어떤 원칙들을 채택하고 있는 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라고 명명 또는 정의한다는 서술이 가능할 뿐이다.

심화활동 시장은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p. 69)

여기 심화활동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주요한 문제에 대한 균형적인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활동보다 다음 단원 ‘시장경제의 발전과제’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가격의 결정과 변동

시장가격은 어떤 역할을 할까?(p. 70)

이곳에서, 시장가격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며 유인 기능을 한다는 내용이 설명 없이 선언되고 있다. 이런 식의 선언적 지식은 경제 과목을 암기하는 과목으로 전락시키게 할 것이다. 여기서의 내용은 단원 III.2③의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반응’ 부분에서 같이 다루어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활동하기> 해수욕장! 왜 바가지요금인가?(p. 73)

여기에서 수요곡선의 이동을 이용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용한 시장가격의 변동 설명은 중학생에게는 너무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수요가 늘어나면 방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방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작용해 방값이 올라간다는 언어적 수준의 설명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 수준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개념, 수요곡선(즉, 수요의 법칙)과 공급곡선(즉, 공급의 법칙)을 이해하며,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용하여 수요량이 공급량과 일치할 때 가격이 성립하며, 불일치할 때 변동(상승 또는 하락)하게 된다는 내용까지 파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수요나 공급

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화는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의 이동을 통한 분석보다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생겨나면 그에 상응하여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된다는 언어적 분석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학생의 이해 수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서객: 성수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늘어나자 ... 숙박 장소 등은 턱없이 부족하니 가격이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는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좀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p.73).

활동하기 내용 제시에 이어, 성수기 때 숙박 시설의 가격이 오르는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수요공급곡선을 이용해서 가격이 변동한 이유를 설명해보자 등등을 질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성수기 때 숙박 장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본 신문기자의 의견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발문이 될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성수기 때 성수용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시장가격의 원리에 따른 결과로 보지 않고, 공급자들의 불법행위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의를 학생들이 깨닫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성수기 때 피서지 숙박장소의 임대료가 상승할 때, 불요불급한 수요의 감소, 민박을 비롯한 숙박시설의 증대 등등 가격상승이 시장에 어떤 신호등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시장가격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격이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화를 찾는다. 반면에, 이윤을 많이 얻으려는 생산자는 생산량을 늘리고, 기술개발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힘쓴다.”(p. 75).

여기에 그치지 말고, 그 결과 품귀 문제가 해소된다는 신호등 역할의 의의(정보 전달 기능, 유인 기능)에 대한 설명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고...”(p. 75)

여기서 수요는 수요량으로 수정 표기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이 갖고 싶은 재화를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연마하고 발휘한다.”(p. 77).

여기에서 ‘소비자’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맞다.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존중할 줄 아는 성숙된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경제윤리이다.”(p. 83)

시장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공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해도 사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공익으로 연결된다는 점인데, 이는 경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실현된다. 다른 사람의 이익도 존중한다는 표현은 경쟁과정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충동을 일으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시민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도의 서술로 대체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 6) 시장경제의 발전 과제

교육과정의 주문 사항을 충실히 잘 구현하고 있으며, 나아가 소득 불평등을 포함하여 시장경제의 발전과제를 비교적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 4. <금성출판사> 교과서

##### 1) 경제문제의 합리적 해결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p. 44)

여기에서, 국민경제의 3가지 문제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앞뒤 문맥 전개와 관련해 볼 때 꼭 필요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생략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수정안: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한다.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가장 큰 만족과 이득을 얻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에 처하게 된다.”와 같은 서술로 대체하고, 합리적 선택의 조건 내용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합리적인 의사결정(p. 46)

합리적인 의사결정 단계의 ④에서 “각각의 대안들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평가해야 한다.”(p. 46)고 하고 있는데, ‘대안들이 가진 편익과 비용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물물교환에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p. 49)

‘물물교환에서는 매매하길 원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가 맞다.

“이 과정에서 각 개인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여 주어진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p. 53)

p. 53에서는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 없이 선언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이는 단순한 암기 지식에 불과하다. 특히 위의 예문에서 이런 문제점이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이보다는 그 이전의 경제생활과 비교해볼 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갖는 특징 또는 특장을 언급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 3) 민주시민의 경제적 구실

가계와 소비 관련,

올바른 소비 생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pp. 58-59)

가계나 개인의 합리적인 저축-소비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이 개인 소비 행위의 국민경제적 영향만이 언급되고 있다.

소비자 주권이란 무엇인가?(p. 60)

소비자주권에 대해 옹기 기술되어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투표 행위와 소비자주권과의 연관적 설명을 결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은, 기업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많이 사면 그 제품의 생산은 늘어날 것이고, 반대로 적게 사면 그 제품의 생산은 줄어들 것이다.”(p. 60)

위 문장에서는 왜 소비자가 소비를 많이 하는 제품의 생산이 늘어나는지 설명이 없다. 그것이 가격을 상승시키고 가격 상승이 생산 증대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p. 59의 그래프

자료의 출처가 없다. 출처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기업가가 사회 공공의 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p. 62)

이 부분에서는 기업의 전형적인 활동 또는 의사결정 내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전무하다. 기업을 생활주변의 경험과는 동떨어진 멀리 떨어져 있는 객관적 대상으로서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당위론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2. 민주시민으로서의 생산자 역할

생각열기(p. 62)

‘생각열기’의 내용은 공장에서 독극물을 몰래 버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기업가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사회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라는 지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기업가의 생산활동 자유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불법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생산자의 예로 단원을 시작함으로써 기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교재에서 교사의 사회적 역할을 설명할 때, “교사는 돈을 받고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다.

“생산 활동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능력을 계발하여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데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p. 63)

어떤 사람이 ‘의무’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만약 아무도 권리가 없다면 의무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바지해야 한다’는 당위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으로, 근로자가 노동할 때 그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일한다는 표현은 국가주의적인 관점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런 의무와 목적으로 가지고 행동하는 기업도 없고 근로자도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근로자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것이 곧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으로 연결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 3.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경제적 역할(p. 64)

이 단원에서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시민의 역할이 다루어져야 할 텐데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경제적 역할’이라는 제목 아래서, 납세자, 선거권자,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이 당위적 차원에서 나열되고 있을 뿐이다.

### 심화 활동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p. 65)

심화 활동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신문 보도자료(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자료)가 너무 전문적인 내용으로서, 중학교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

### 심화 활동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p. 66)

여기서는, 국제수지라는 용어가 개념 정의 없이 쓰이고 있으며, 과소비와 건전한 소비라는 개념 정의가 어려운 경제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개념이 모호하므로 과소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술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패션 거리의 외국 유명브랜드 매장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여성 스커트 정장 한 벌의 가격이 회사에 따라 19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하는 것을 ‘과소비 현황’으로 소개하고 있다. 고가 상품의 소비를 과소비로 정의하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학생들로 하여금 전 세계 부유 소비자들을 때료시 킬만한 고가의 상품을 개발해볼 꿈을 갖도록 자극할 필요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어떻게 해서 여성용 정장 스커트가 19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400만원 짜리가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2,000달러 약어가죽으로 만든 여성핸드백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보다 더 고가의 핸드백을 만들어 볼 꿈을 갖게 하는 것이 더욱 좋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이 저가품만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즉 절대빈곤시대의 소비의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또한, 비록 국산품 애용에 대한 찬반 시각을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국산품을 애용하여 우리 기업 되살리자”라는 민주시민의 행동원칙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국산품 애용이 우리 기업 되살리는 방안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주제이다.

#### 4) 시장경제의 특성

경제주체별 활동과 과정의 특성 관련,

가계, 기업, 정부는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 주체이다(p. 71)
----------------------------------------

가계가 생산요소를 제공하여 소득을 얻고 예산제약 하에서 소비를 한다는 내

용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간략하게 선언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식의 이 같은 선언적 취급은 경제학을 어려운, 현실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임기할 것이 많은 과목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우려된다. ‘2-3 민주시민의 경제적 구실’에서 각 경제주체의 전형적인 활동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책에서처럼 경제주체간의 순환적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편제로 판단된다.

생각 넓히기 도로, 국방, 교육과 같은 것은 왜 정부가 주로 생산할까?(p. 71)

도로, 국방 등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해야 하는 이유 및 그 재원의 조달이 세 글에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위의 ‘생각 넓히기’에서 적절히 제시되고 있다.

## 2.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p. 73)

여기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헌법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양 체제를 비교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을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바람직한 교수학습 접근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에서는 사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가 보장된다(p. 74)

시장경제의 장점으로 선택의 자유로 사익을 추구할 수 있음으로 해서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시장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생산성 증대를 위해 자신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기술개발에 힘쓸 것이라는 장점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선택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시장경제는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5) 가격의 결정과 변동

### 1. 시장 가격의 결정(pp. 76-77)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는 만화 자료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으나, 공급의 법칙은 언급만 될 뿐 설명이 없다.

<교사용 지도서> p. 105에서는 수요곡선의 이동으로서 수요의 변화가 설명되고 있으며, 대체재와 보완재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이는 교육과정상의 주문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보인다.

### 활동6 조사해 봅시다

자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을 경우 학생들이 조사를 통해 가격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3. 시장 가격의 중요성(pp. 82-83)

가격의 신호 기능과 유인 기능을 단원의 맨 마지막(pp. 82-83)에 위치시켜 앞의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장으로 이용한 것은 바람직하다.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거나 생산자가 생산을 줄일 경우에는 경제 질서가 무너져 투기나 매점매석 등이 발생한다.(p. 83)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거나 생산자가 생산을 줄이는 것은 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경제주체가 경제법칙을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사회과학에서의 법칙이라는 물리학적 법칙이 아니라 경향적 법칙에 불과하다. 경제주체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는 시장경제에서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있지만 사전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물론 그것이 불안정한 투기나 과잉투자, 과소소비처럼 경기변동을 초래하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허용한 시장경제체제의 태생적 한계이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면 계획경제처럼 선택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시장가격이 경제 질서를 유지해 주는 것의 핵심은 각 재화가 대체적으로 과부족 없이 생산되도록 자원의 배분이 일어나도록 가격이 작용한다는 것으로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재서술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매점이란 물건을 사 모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매석이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물건을 팔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물건을 사 모아 팔지 않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 파는 행위를 말한다.”(p. 83)

매점매석의 정확한 정의는 “매점매석은 독점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물건을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하여 가격이 올랐을 때 매각하여 폭리를 얻으려는 행위”이며, 재정경제원 고시에 의하면 불공정거래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대하게 구입하여 보유하거나 자기가 생산 판매하는 물품의 공급능력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가격을 지배해서 폭리를 얻기 위한 상행위를 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입행위도 매점매석 행위로 오해하게 할 수 있다.

## 6) 시장경제의 발전 과제

교육과정의 주문 사항을 충실히 잘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오로지 공정 경쟁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교육과정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쟁은 합리적인 생산활동을 하게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싼 값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게 한다.”(p. 87)

이 내용만 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경쟁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쟁에서 실패하는 기업가는 시장에서 퇴출되어 그들이 이용했던 자원이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식으로 설명이 보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활동9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자료1] ‘윈도 엑스피 불공정 행위’ 신고

활동9의 2번 “윈도 엑스피 출시가 우리 나라의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보자”에 대한 교사용지도서의 안내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시장점유율 변화를 조사하게 한다고 되어 있으나 학생들의 반응은 불공정거래와는 관련 없는 다른 측면으로 나오며, 교사용 지도서의 단순한 안내가 과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문제이다.

#### 과도한 사익 추구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p. 90)

p. 90에서 과도한 사익 추구를 위해 제시된 사례(고금리, 공해물질의 배출)가 합법적일 때,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 모순이 되는 주문으로서 관련된 충분한 지침이 결여되어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유인체계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각 경제주체는 준법적 테두리 내에서 유인구조에 반응하여 그의 행동을 바꾸면서 사회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현대 주류 경제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p. 91에서도 공동체 의식, 즉 “사회 구성원들의 서로에 대한 배려”를 통해 과도한 사익추구 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익 추구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경쟁 사이에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대폭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 이윤을 증대시키려는 행위가 기술개발에 실패한 경쟁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궁지에 내몰 수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경쟁자를 배려하여, 특히 그 경쟁자가 외국에 있는 기업일 경우에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교사용 지도서 p. 107에서의 투기에 대한 설명

교사용 지도서에 쓰여진 ‘투기’는 시세 변동에서 발생하는 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물품 그 자체의 매수 매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연하게 발생하는 시가의 변동을 예상하고 매매를 성립시켜 그 결과로서의 차익을 얻는 점에 특색이 있다. 원래는 기회에 편승하는 일,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손익이 발생하는 극단의 모험적 행위를 말한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부동산 투기의 단점들이 자세하게 쓰여져 있다 (p.107). 이러한 설명은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투기(speculation)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농산물과 외환선물시장에서 투기행위는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는 등 투기거래가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토록 투기가 부정적인 것이라는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장래 농산물이나 외환선물시장, 나아가서 국제곡물선물시장이나 국제원유선물시장에서 투기자로 돈을 벌어보고 싶은 꿈을 갖게 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시장은 외국투기자들의 독무대가 될 것이다. 시장경제에서는 불법적이지 않는 한 개인은 부동산에 투기할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물론 개인이 부동산에 투기할 때는 가격불안정을 초래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부동산의 가격을 불안정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부동산 투기 거품의 부정적 결과는 선택의 자유

를 허용한 시장경제체제의 태생적 한계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도덕적 질타로 해결하려는 것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얻을 기회가 보이는 데도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면 개별 경제주체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도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등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 할 것이다. 즉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오히려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축소하고, 부동산 투기 수익률을 인하시킴으로써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어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다.

## 5. <동화사> 교과서

### 1) 경제문제의 합리적 해결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른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하며 …”(p. 44)

포기하거나 희생한 것 가운데 가장 가치가 큰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으로 정의해야 정확하다.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 과연 합리적 선택인가?’(p. 47)

위 자료와 관련하여, ‘한국의 쌀 수입 규제, 과연 합리적인가?’와 같은 문제 제기도 함께 하는 것이 학생들이 세계화된 경제에 적절한 균형된 사고와 시각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2)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민주시민의 경제적 구실

가계와 소비 관련,

### 1 소비자의 소비활동(p. 60)

가계나 개인의 합리적인 저축-소비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개인 소비와 국민경제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 가계의 소비활동에 앞서 먼저 다루어지고 있어,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주권이다. 민주 사회에서 국민이 정치적인 주권을 가지듯, 시장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경제적인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치 민주주의가 바른 투표, 즉 선거를 통해 달성된다면 경제 민주주의는 소비자의 선택, 즉 소비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p. 63)

소비자주권이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의 소비행위에 따라서 자원의 배분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문 중에 ‘소비자가 경제적인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한다. 다른 한편,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주권에 대한 설명 및 투표 행위와 소비자주권과의 연관적 설명이 빠져 있다.

### 2. 생산자의 역할과 책임(pp. 64-65)

전체적으로 볼 때,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 또는 의사결정 내용은 사소하게

취급되고 있는 반면에, 윤리적인 기업활동 관련 내용에 훨씬 많은 페이지가 불균형적으로 할당되어 있다. <교사용 지도서>도 마찬가지이다.

### 3. 민주시민의 경제적 행동(pp. 66-67)

납세자, 선거권자, 정책결정자로서의 민주시민의 경제적 역할들이 연계성이 약하게 독립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경제활동과 시민과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 취약하다. <교사용 지도서>도 마찬가지이다.

### 학습정리 퍼즐로 주요 용어를 익혀 봅시다(p. 73)

퍼즐 (19)번의 “의사의 진료나 교수의 강의처럼 가치 있는 서비스 행위”에서, ‘교수의 강의’ 보다는 ‘교사의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학생들에게는 더욱 현실감이 있고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 4) 시장경제의 특성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각각의 이익만 좇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재화와 용역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p. 76)

정부의 활동에 대한 위의 서술은 너무 모호하여 실질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로서 ‘사회질서의 유지, 민간 경제활동의 지원, 시장경제의 문제점 보완’ 등으로 서술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경제의 순환도(p. 77)

순환도에서 가계와 기업간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시장 경제는 이러한 인간의 욕구에 기초하여 가계나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이 보다 많은 재화를 얻고 더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p. 78)

‘인간의 욕구에 기초하여’라는 표현을 ‘인간의 욕구를 인정함으로써’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심화과정 우리 사회 위기의 씨앗으로 자라는 빈부 격차(p. 80)

p. 80의 <심화과정>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주요한 문제로서 빈부 격차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활동보다 다음 단원 ‘시장경제의 발전과제’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식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 5) 가격의 결정과 변동

시장 가격의 결정(p. 82)

p. 82의 하단에서 그림과 더불어 시장가격의 결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아무 설명 없이 선언되고 있다.

활동과제2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한 사례들을 찾고 이유를 알아보자.”(p. 85)

기펜재의 경우나 과시소비의 경우를 상정한 질문처럼 보이는데, 중학생들에게 먼저 이런 문제를 물어볼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4. 가격 변동에 대한 반응(p. 88)

가격 변동에 대해 소비자의 반응과 생산자의 반응이 언급되는 데 그치고 있다. 가격의 신호 기능과 경제의 바람직한 자원배분 달성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결여되어 있다. 교육과정의 취지에서 볼 때 가격의 신호 기능, 유인 기능, 가격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의 달성(각 재화의 과부족이 없는 생산)이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심화과정 사교육비 부담, 시장 경제에 맡겨 해결한다(p. 90)

심화과정으로서 사교육비의 시장 논리에 의한 해결을 다루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사교육 문제는 시장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대표적인 형평성의 문제이다. 교육과정상의 이런 주문은 사회문제를 시장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적인 시각을 내포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그리고 탈규제를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한다는 p. 91의 설명은 우리 사회 일부의 견해에 불과한데 이를 마치 해당인 양 소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교육 문제는 예시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도심의 교통난 해소 문제 정도를 다루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피해가면서 중학생 수준에 더 적합한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 6) 시장경제의 발전 과제

#### 3. 시장 경제의 발전 과제

교육과정의 주문 사항을 충실히 잘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경쟁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 해서 마치 시장경제의 문제가 불공정 경쟁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더구나, 지나친 규제와 간

섭을 강조하고 정부 규제 철폐를 강조함으로써 자유주의에 편향된 이데올로기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지나친 사익 추구의 자제와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는 모호한 처방 속에서 찾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내용의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p. 94 오른쪽 하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학생에게는 너무 전문적인 요구이다. 그리고 그 답이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다짐하는 기업윤리헌장(p. 95)

수많은 기업윤리헌장이 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업윤리헌장인지 인 용처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 6. <디딤돌> 교과서

### 1) 경제문제의 합리적 해결

“선택을 잘 하게 되면 포기한 다른 활동에 대해 아깝다고 느끼지 않으므로 기회비용이 낮아진다. 그러나 선택을 잘못하면 ‘그 때 그걸 선택할 걸’ 하는 후회가 커지게 되므로 기회비용이 높아진다.”(p. 49)

영화관람을 위해 극장에 가는 기회비용은 극장요금과 시간기회비용이다. 시간기회비용은 영화관람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다른 활동 가운데 가장 가치가 높은 활동의 가치이다. 그러므로 극장에 가는 기회비용은 영화표를 구입하려 할

때 이미 결정된다. 좋은 영화를 선택했다고 해서 기회비용이 낮아지고 재미없는 영화를 선택했다고 해서 기회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달라지는 것은 영화관람에 따른 편익이 예상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비효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 2)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 특별한 문제점 없음.

## 3) 민주시민의 경제적 구실

소비자주권과 소비자 권리(p. 64)

소비자주권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과정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적 투표 행위와 소비자주권과의 비유적 설명이 빠져 있다.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pp. 66-67)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 또는 의사결정 내용은 사소하게 취급되고 있는 반면에, 윤리적인 기업활동 관련 내용에 더 많은 페이지가 불균형적으로 할당되어 있다. 기업의 전형적이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교과서의 단원 III.1시장경제의 특성에서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과서 전체적으로 기업의 활동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지나친 이윤 추구로 사회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할 줄도 알아야 한다.”(p. 67)

‘지나친 이윤 추구’는 객관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이윤 추구로 사회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서술 자체가 부정확한 표현이다. 한편, 번 돈의 사회적 환원은 기업의 의무가 아닌데, 이를 마치 기업의 책임인 양 서술하고 있다. 다른 한편, 돈을 많이 번 기업일수록 더 많은 돈을 세금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가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가처분소득의 일부를 기부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언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부 행위가 기업 또는 기업가들만의 책임이나 의무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을 보태는 읽기 자료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p. 69)

노사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종업원 소유 회사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종업원 소유 회사가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 소유 회사의 평균적인 기업 성과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오히려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이 실증적인 결과이다. 특히 마지막 문장 “이 제도의 효율성을 인정한 미국 정부는 1921년부터 현재까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서술은 그 앞 나오는 설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인데, 무리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에서의 종업원 지주제도는 종업원의 기업 소유를 권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가 아니다.

국가 구성원의 경제적 구실(pp. 70-71)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이 거의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단원 III.1에서조차도 너무 간략하게 언급하며 지나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다.

납세자, 선거권자, 정책결정자로서의 민주시민의 경제적 역할들이 연계성이 약하게 독립 단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p. 71의 <탐구활동>에서 공약 정책이 다른 두 후보에 대한 투표 선택 자료를 잘 활용하면,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과 민주시민의 주권 행사의 연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시장경제의 특성

돌고 도는 시장경제(p. 78)

경제주체별 활동 원칙 서술 내용이 매우 간략하다. 특히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게만 맡길 수 없는 국방·치안·교육 등의 공공재를 생산하며 이를 위해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기도 하고 정부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기도 한다.”라고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처음으로 공공재라는 용어가 아무 설명 없이 도입되고 있으며, 그를 위해 민간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다는 관계가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라는 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된다.”(p. 78)

p. 78의 마지막 문장에서 위와 같은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앞의 내용은 가계, 기업, 정부간의 순환적 경제관계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 문장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시장 경제의 순환이 이루어진다.”로 고쳐 써지는 것이 맞다.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원칙은?(p. 80)

시장경제의 특징들이 단순하게 나열 선언되는 데 그치고 있다. 교육과정의 주문처럼 남북한 헌법의 비교 등을 통해서 시장경제인 남한 사회의 체제적 특징을 학생들이 스스로 파악해내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5) 가격의 결정과 변동

수요자: 비싸면 덜 산다(p. 86)

비싸면 덜 사게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공급자: 비쌀 때 많이 팔자(p. 87)

공급의 법칙은 경쟁시장에 속한 기업의 단기적인 가격-공급량 관계에 관한 법칙이다. 탐구활동 만화에서의 상황은 독과점적 상황으로서 공급의 법칙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그냥 단순히 한 떡볶이 장사의 생산비가 불변인 상황에서 떡볶이 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만들어 팔아 이익을 더 많이 얻으려 한다는 식으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떡볶이 시장의 경우에도 가게 주인은 수요량의 변화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자신의 공급량과 가격을 조절해 나간다.”(p. 88)

책에서와 같은 복점시장에서 기업의 가격 설정 행동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균형가격의 형성을 이야기 할 때, 흔히 경쟁시장을 전제한다. 따라서 책에서와 같이 과점적 시장 상황을 갖고 시장 균형가격을 설명하는 상황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지, 경쟁적인 시장에서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거나 반대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을 때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되거나 하락 압력을 받고 이런 가격 변화 압력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없어지고 균형가격이 구드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수요가 변하면 가격도 변한다... 공급이 변하면 가격도 변한다(pp. 89-90)

pp. 89-90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에 의한 가격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곡선의 이동을 이용한 가격 변동의 설명은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가격 수준에서 수요 초과나 공급 초과가 발생하게 되고 시장 가격은 그것을 해소하는 쪽으로 움직여 가게 된다는 언어적 수준의 균형가격 이동 설명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교육과정 (3)(나)①항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나)의 맨 마지막 단원에 배치하여 다루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가격은 경제활동의 신호등(p. 92)

가격의 기능으로서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두 가지를 들고 있다. 가격의 기능은 신호 기능과 유인 기능(및 소득분배기능)이며, 그 결과로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인데, 양자를 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 6) 시장경제의 발전 과제

3. 시장 경제의 발전 과제(pp. 96-103)

교육과정의 주문 사항을 충실히 잘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이 불공정 문제에만 국한됨으로써 마치 시장경제의 문제가 불공정 경쟁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교사용 지도서>도 마찬가지다.

“사회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 ...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p. 102)

시장경제의 규칙 가운데는 사유재산의 소유, 이용, 처분권을 갖는다는 것과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하는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그런데 시장경제의 장점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경제에 활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앞 절에서 지적하였다. 물론 이 때 사유재산권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소유, 이용, 처분권을 말한다. 그것은 위에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자신의 소득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

을 합당한 것으로 보지 않는 시각과 상처되는 측면이 있다.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서술은 예를 들어 공공재나 외부효과의 경우에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것인가?! 아마도 이 서술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남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정도로 바뀌어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체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조화시킬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요구된다.”(p. 102)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으로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통해 사익의 추구가 공동체 이익을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부분에 오면 “공동체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조화시킬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요구된다.”(p. 102)라고 하여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할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그의 윤리의식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체계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각 경제주체는 준법적 테두리 내에서 유인구조에 반응하여 그의 행동을 바꾸면서 사회가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현대 주류 경제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 7.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과서

### 1) 경제문제의 합리적 해결

“인간은 경제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적은 노력을 들여서 가장 많은 효과를 ...”(p. 43)

위에서, ‘노력’을 ‘비용’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비용에는 인간의 노력뿐만 아니라 돈, 시간, 명예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 2)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경제행위(p. 44), 자본의 축적(p. 49), 분업(p. 49), 신용관리(p. 57)

개념 정의 없이 사용한 경제용어들의 예이다.

심화과정1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이 기업이 얻는 이익은 무엇이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생각해보자.”(p. 47)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대비하기 보다는 사회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며 상품을 생산하면 사회가 그 상품을 향유함에 따라 얻는 사회적 이익이 있는데, 그것을 사회적 비용과 대비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립(p. 49)

이 부분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특징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 설명은 중세의 신분적으로 구속되는 사회와 대비되어 이루어진다면 그 특징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에서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서로 경쟁을 하게 된다.”(p. 53)

경쟁을 하는 이유(즉, 이윤 또는 이익 추구)가 추가된다면 설명의 완결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계획경제는 그 비효율성으로 인해 몰락하고 …”(p.52)

시장경제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서술이 나오고 있는데, 계획경제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이 갑자기 그 비효율성을 단점으로 시장경제체제의 장점과 대비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부분에서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상응하는 설명이 있어야만 뒷부분에서 비효율성을 계획경제체제의 단점으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 민주시민과 경제적 구실

소비자로서 시민의 역할(pp. 56-58)

가계의 저축-소비 의사결정, 합리적인 소비 의사결정에 대한 서술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주권이 정치적 투표행위와 잘 비유되고 있다.

“저축한 돈은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쓰인다.”(p.58)

이 표현은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와 생산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공급을 늘리게 된다는 식으로 표현이 고쳐지는 것이 인과적 설명의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저축률을 유지해야 한다.”(p. 58)

높은 저축률 자체가 높은 투자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는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서술은 옳지 않다. 구성의 모순에 해당하는 현상을 여기서 다룰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룬다면 완전한 형태로 다루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뒤의 p. 68에서 가계의 소비-저축의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 부분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근로자, 기업가로서 시민의 역할(p. 59)

기업의 전형적인 의사결정 내용 또는 활동모습은 다루어지지 않고 다만 기업이 정신만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단원 III.1‘시장경제의 특성’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과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탐구 활동 기업가 K씨의 경영 철학 “조회도 출근부도 없이 종업원과 경영자가 서로를 믿는 파트너로 회사를 만들었다.”(p. 59)

과연 이것이 보편적인 바람직한 사례로 거론될 만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출근부를 없앨 때 회사가 직면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도의적 해이’ 위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현실경제에서 출근부를 비치하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많은 것을 보면 노사가 서로 신뢰하는 것이 바람직한 당위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질문1로서 기업가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공헌하는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은 적합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경제적 역할(p. 60)

정부의 경제활동과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 납세자, 선거권자, 정책결정자로서의 민주시민의 경제적 역할들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 4) 시장경제의 특성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활동(p. 68)

경제주체별 활동 원칙 서술 내용이 균형 잡혀 있다. 특히, 정부 활동에 대한 서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소비와 국민경제와의 관계가 앞의 (2)(다)‘민주시민의 경제적 구실’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지금 단원에서 탐구활동으로 취급되고 있는 배치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가계소비와 국민경제와의 관계는 각 경제주체의 전형적 활동보다는 국민경제 순환과정 속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탐구활동 남북한 헌법 조항 비교(p. 73)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과 관련하여, 남북한 헌법 조항을 비교하도록 하여 남한의 경제체제적 특징이 자연스럽게 대비되어 드러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의도를 잘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화 과정 시장 경제의 문제점은?(p. 74)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소득 격차 문제는 일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에서보다 뒷부분의 ‘시장경제의 발전과제’ 부분의 내용에 편재되어 전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5) 가격의 결정과 변동

가격의 결정과 변동(pp. 76-81)

가격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 단원의 앞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배치이다.

다른 교과서들에서와는 달리,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끌어들이지 않고 언어적으로만 시장가격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그렇게 해석하여 교과서를 집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교과서들과 큰 대조점이다.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상의 지침의 모호성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반대로 가격이 내린다 하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는다”(p.80)

여기에서, ‘수요’는 ‘수요량’을 의미하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가격의 기능(p. 81)

가격의 기능을 설명하는 궁극적 목적은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가격의 기능에 의해 품귀문제나 과잉생산 문제가 자동적으로 조정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교재에서 가격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신호등 구실을 한다’, ‘자원 배분의 기능을 한다’는 것만 언급하고 있을 뿐, 과부족 없는 자원배분의 결과에 대한 최종 언급 내용을 빠뜨리고 있다. 즉, 학생들은 가격의 기능으로 단순히 신호기능과 자원분배기능을 알게 될 뿐, 그러한 기능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품귀문제가 과잉생산문제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자동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 6) 시장경제의 발전 과제

3. 시장경제의 발전과제(pp. 84-88)

교육과정의 주문 사항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경쟁 중심으로만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마치 시장경제의 문제가 불공정 경쟁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시장실패의 다른 예들 및 소득분배의 불평등성 문제 등의 언급이 빠져 있다. 과도한 사익 추구의 자체와 공동체 의식의 실현이라는 모호하며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회의 경제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있어 유인체계를 활용한 경제문제의 제도적 해결이라는 경제학이 추구하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외면하고 있다.

“독과점 기업은 …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다.”(p. 85)

이는 정확하지 않은 서술이다. 농산물과 독과점 기업이 생산하는 공산품시장을 비교할 때 어느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독과점 기업이 품질 개선을 게을리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기, 전화, 수도 등은 자연독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기업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을 주석으로 밝히고 있는데(p. 85), 본문으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즉 독점이라고 해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지나치거나 법을 벗어나는 사익 추구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온다.”(p. 87)

위의 문장에서, ‘지나친 사익 추구’는 매우 모호한 표현이다. 또한 문맥상으로 과도한 사익 추구하고 담합과 같은 불법적 사익 추구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나친 또는 과도한’ 사익추구라는 용어보다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적 사익추구’로 바꾸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여 너도나도 사재기를 하면, ... 결과적으로 사재기를 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p. 87)

사재기가 모든 사람에게 손해를 가져온다는 서술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다. 사재기를 한 사람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게 된다. 사재기는 불법적 행동이 아니라서 누가 그 행위를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 사재기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 하에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불법이 아닌 한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더 근본적인 원칙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장은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된다.”(p. 88)

시장경제에서 주어지는 선택의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공동체 의식’을 내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시장경제의 장점은 바로 공동체 의식 없이 각자 자신의 이익, 즉 사익을 위해 행동하면 공동체 이익을 함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백미임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 8. <지학사> 교과서

### 1) 경제문제의 합리적 해결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요소의 생산이나 소비 등과 관련한 ...”(p. 44)

‘요소’라는 표현은 ‘물건’ 또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혼동을 줄일 것이다.

탐구활동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문제의 발생(pp. 43-44)

p. 43의 ‘탐구활동’을 이용한 희소성의 설명이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희소성의 문제는 시장경제뿐 아니라 모든 인간사회에 관철되고 있는 문제인데, 시장가격의 차이를 설명 내용에 끌어들이 불필요하게 설명이 복잡해져 있다.

<교사용 지도서> p. 71의 4. 형성평가 ‘... 기회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용 ...’

위의 표현에서, 기회비용 개념이 이미 전체 비용이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서술이다. 이와 관련된 혼란이 학교의 교수학습 현장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2) 경제 체제의 변천 과정

특별한 문제점 발견되지 않음. 다만, <교사용 지도서> p. 80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동의어인 것처럼 설명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 3) 민주시민과 경제적 구실

1. 민주시민과 소비활동(pp. 59-60)

가계의 소비-저축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개인 소비의 사회와의 관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스스로 주권을 지켜 나가기 위해 ...”(p. 60)

소비자주권의 개념상 ‘소비자 주권을 지킨다’는 표현은 가능하지 않다.

## 2. 민주시민과 생산활동(pp. 60-61)

기업의 전형적인 의사결정 또는 활동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 이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거의 전 페이지가 할당되고 있다.

## 3. 국민경제에서의 시민의 역할(pp. 63-65)

국민경제와 관련하여 시민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단 한 문장(p. 63)으로 설명을 마치고 있다.

## 이야기 한마당 ‘납세자 권리와 납세자 권리 헌장’(p. 65)

납세자 권리 헌장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면의 기회비용을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보인다.

# 4) 시장경제의 특성

## 1. 경제 주체와 시장 경제(pp. 73-74)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별 전형적인 경제활동이 지나치게 간략하게 언급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이 앞 단원에서도 매우 부족하다. 특히, 이 책 전체에서 기업과 정부의 경제활동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도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내용과 순환적 관계는 암기적 지식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다.

경제 순환을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도표를 이용한 설명이 빠져 있다.

탐구활동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을 헌법 조항에서 찾아본다.(p. 65)

시장경제의 제도적 원칙이 교육과정의 지시를 따라 헌법 조항을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시장경제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남북한 헌법의 비교 등을 통해서 시장경제 체제의 특징을 탐구적으로 찾아내게 하는 학습활동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 p. 105에는 북한 헌법의 관련 조항들이 제시되어 있어, 교사가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남북한 헌법 비교 방식을 통한 교수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심화학습(p. 77)

위 심화학습에서 원효대교의 예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다루는 예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 예로부터 시장경제의 어떤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 5) 가격의 결정과 변동

### 1. 시장경제와 가격의 기능(pp. 79-80)

가격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단원 III.2.1과 III.2.4에서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III.2.1에서 중복되고 있는 설명을 없애고 수요공급의 작용에 의한 가격의 결정과 변동을 설명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서 가격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서는 가격의 기능이 중요하다(p. 86)

p. 86의 가격 기능에 의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의 예로서 비용 절감적인 예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시장경제에서 가격의 기능으로 인해 각 재화들이 과부족 없이 생산되는 점이 적절한 자원배분의 핵심적 내용임이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심화과정 교통문제, 주택문제,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p. 87)

사교육 문제는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대학정원은 지원자 수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문제의 핵심 쟁점은 교육의 기회균등 등 형평성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 6) 시장경제의 발전 과제

3. 시장경제의 발전 과제(p. 88)

교육과정의 주문 사항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경쟁 중심으로만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마치 시장경제의 문제가 불공정 경쟁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시장실패의 다른 예들 및 소득분배의 불평등성 등 시장경제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과도한 사익 추구의 자제와 공동체 의식의 실현이라는 모호하며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회의 경제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있으며 유인체계를 활용한 경제문제의 제도적 해결이라는 경제학이 추구하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외면하고 있다.

과도한 사익 추구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한다(p. 87)

너도 나도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하여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것을 과도한 사익 추구의 예로서 언급되는 것은 적적치 않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

은 과도한 사익 추구라는 개념이 애당초 매우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주체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p. 87)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존과 공생을 도모하는 공동체 의식’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또한 승용차 함께 타기를 공존과 공생을 도모하는 예로 제시하는 것은 별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이 공존과 공생을 도모하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는 내용은 시장경제에 국한된 내용이라기보다는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은 이곳이 아니라 경제 단원 맨 처음의 ‘사회생활의 상호의존성과 규율 준수’ 부분에서 다루어져야 더 적합할 것이다.

## 제4장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사회교과서 경제 관련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검토

### I.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사회교과의 경제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인적 자원부에서 고시한 사회과 교육 과정의 10학년 부분과 8종의 검정 교과서의 경제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인적자원부(1997). 사회과 교육 과정.
- 교육인적자원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④ 사회.
- (주)교학사,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대한교과서(주),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주)두산,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주)도서출판 디딤돌,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법문사,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주)지학사,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주)천재교육,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구체적인 분석 단원은 ‘IV.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의 ‘2.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일부 교과서는 ‘서양 시민 사회의 형성과 발전’)과 ‘VIII.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이었다.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에서는 근대 시민 사회의 형성 과정에서 산업 혁명이 자본주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학습하는 것이며,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에서는 국민 소득, 물가, 실업, 국제 수지, 환율 등의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사용하여 거시 경제 현상을 조망해 보는 것이다.

분석의 과정은 교육 과정 분석과 교과서 분석이 상보적으로 이뤄졌으며, 사전에 연구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분석 기준에 따라 교육 과정과 교과서 내용에 대한 기초 분석이 수행되었다. 또한 기초 분석 결과에 대한 연구자 간 세미나를 통해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간 발표회 이후 각계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II. 교육과정 분석

### 1. 교육목표에 대한 검토

제7차 사회과 교육 과정(이하 “교육 과정”)에는 경제 교육의 목표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고등학교 사회과의 성격 및 사회과 전체의 목표가 다음과 같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시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사회과 교육 과정, pp.28-30).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 공동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의식을 기른다.

- 사회과의 성격 -

라. 사회 생활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대 사회의 성격 및 민주적 사회 생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한다.

마.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및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른다.

- 사회과의 목표 -

우선 교육 과정에서 경제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 목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적은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여겨진다. 교육 목표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 교육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 교육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방향으로 경제 교육이 이뤄져야 되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다.

또한 ‘비판적 사고,’ ‘합리적 사고 능력,’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사회 참여 능력’ 등 교육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교육 목표 역시 매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서 제시되어 있다. 이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영역별(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성격 및 목표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 분석

### 1) 내용의 편제와 구성상의 문제

(8)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에서는 국민 소득, 물가, 고용, 국제 수지 등의 기본적인 경제 개념만을 활용하여 우리 경제 현실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크게 (가)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나) 현대 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 (다) 세계 시장의 경제 경쟁과 협력이라는 중주제를 두고 있다.

(가)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에서는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률 등의 개념과 경제 성장을 위한 요인들을 학습 주제로 다루고 있다. 경제 성장의 요인에서는 자본 축적을 위한 저축의 강조 및 정부의 규제 완화를 두 개 항목으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총 5개 항목 가운데 2개 항목에서 경제 성장의 요인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는 인적 자본의 개발이나 기술 지식의 발달 등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 현대 경제 문제와 해결 방법에서는 주로 물가와 실업이라는 전통적인 거시 경제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비춰 보면, “현대 경제 문제와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이 어울리지 않는다. 물가와 실업이 중요한 “현대 경제 문제”인 것은 맞지만, 이런 제목 하에서는 온갖 경제 문제가 망라되어 제시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거시 경제 현상과 문제가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까지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목과 내용을 분명하게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세계 시장의 경제 경쟁과 협력에서는 비교 우위, 국제 수지, 환율 등의 경제 개념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다뤄지고 있다.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교 우위, 국제 수지, 환율 등과 같이 매우 큰 주제들이 오히려 하나의 항목에 묶여 있고, 국제 경쟁력과 같은 작은 주제들이 두 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학습 내용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항목 간 내용 조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2) 기본적인 학습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

기본적인 학습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 즉 영교육과정(zero curriculum)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산업 혁명을 다루면서 가장 기본적인 산업 혁명의 의미에 대한 학습 내용을 제시하지 않거나, 현대 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에서 물가와 실업을 다루면서 실업에 대한 학습 내용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 3) 전체 학습 주제와 관계가 없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와는 반대로 오히려 전체 학습 주제와 관계가 없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산업 혁명이 자본주의 발달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다루는 부분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세 도시, 근대 사회, 현대 사회의 시민의 자격과 역할의 변화를 조사하는 심화 과정의 내용은 전체 학습 주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거시 경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지엽적이며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 4) 균형 있는 관점이 요구되는 경우

일부에서 균형 잡힌 서술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산업 혁명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폐해를 더욱 강조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산업 혁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또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 규제를 줄여야 된다는 것만을 강조하여 정부가 규제나 일삼는 형편 없는 조직으로 각인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수행해 나가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는 균형된 서술이 요구된다.

#### 5) 서술의 논리적인 전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서술의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재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를 테면, 물가와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이뤄지기 전에 둘 간의 변동 양상을 분석하기보다는 우선 물가와 실업에 대한 개별적인 학습을 하고 양자 간의 관계 및 변동 양상을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 6) 내용을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경우

내용을 잘못 기술하거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물가 변동의 원인을 수요, 공급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수요, 총공급 개념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일부 교과서에서도 물가 변동을 설명할 때 수요-공급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9학년)에서 배운 시장의 수요-공급과 혼동할 소지가 있다.

#### 7) 항목 간 서술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항목 간 서술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작은 학습 주제들이 두 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큰 학습 주제가 하나의 항목으로

로 묶여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항목 간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학습 주제의 중요성, 난이도 및 학습 주제 간 논리적 배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8) 추가되어야 할 내용

기업가나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에서 경제 성장을 다룬 부분, 국제 경쟁력을 다룬 부분에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 나라 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가의 성공 사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소개한다면, 학생들이 장차 올바르게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3. 교육과정 단위별 내용 분석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고등 학교 사회(10학년)에서 경제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부분은 크게 “(6)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의 “(나)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과 “(8)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이다.

### (6)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 (나)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

① 근대 시민 사회는 산업 혁명을 통해 발전하였음을 이해하고, 산업 혁명에 따라 정치·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해한다.

산업 혁명이 근대 시민 사회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을 다루기 전에 산업 혁명

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또한 “산업 혁명에 따라 정치·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심화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① 산업 혁명의 의미가 무엇이며, 근대 자본주의 경제가 산업 혁명을 통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이해한다.

② 자유 방임주의적인 경제 질서에서 나타났던 사회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그 해결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주요 사건을 통해 이해하고, 현대 경제 질서는 시장 경제의 기초 위에 복지 사회를 추구하려는 것임을 파악한다.

②에서 “자유 방임주의적인 경제 질서에서 나타났던 사회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그 해결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주요 사건을 통해 이해하고, 현대 경제 질서는 시장 경제의 기초 위에 복지 사회를 추구하려는 것임을 파악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다소 편향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단원의 논리적 구조가 시민 혁명을 통해 시민 사회가 발전하였고, 산업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산업 혁명을 통해 산업 자본주의가 어떻게 등장하였으며, 그것의 이념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자유 방임 사상이 무엇이고, 산업 자본주의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등이 먼저 소개되고, 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 문제와 그 해결 노력을 제시하는 것이 균형 잡힌 서술이다. 또한 후반부의 “현대 경제 질서는 시장 경제의 기초 위에 복지 사회를 추구하려는 것임을 파악”하는 것은 “(나)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학습 주제와 잘 어울리지 않는 학습 내용이다. 이상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② 자본주의 발달에 이념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자유 방임 사상이 무엇이고,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파악한다.

③ 자유 방임주의적인 경제 질서에서 나타났던 사회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그 해결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주요 사건을 통해 이해한다.

③ 우리 나라의 산업화 과정을 통해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 시민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탐구한다.

바람직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심화 과정】

① 시민이라는 개념과 그와 관련하여 시민의 자격과 역할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세 도시, 근대 사회, 그리고 현대 사회로 각각 변천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한다.

심화 과정 ①의 “시민이라는 개념과 그와 관련하여 시민의 자격과 역할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세 도시, 근대 사회, 그리고 현대 사회로 각각 변천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한다”는 내용은 “(나)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 발달”과는 관계 없는 내용이다. 오히려 바로 앞의 “(가) 시민 혁명과 시민 사회의 발전”에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신에 본 학습 주제와 관련성 있는 심화 학습 내용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한다.

### [심화 과정]

① 근대 산업 혁명이 가져온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현대 지식·정보 혁명이 가져온 정치·사회적 변화를 비교한다.

## (8)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 (가)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①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 소득 지표를 국내 총생산(GDP) 수준에서 이해한다.

바람직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비교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론한다.

③ 국민 소득 지표를 이용하여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고, 그 변동 경향을 설명한다.

②의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비교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고”와 심화 과정 ①의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러 나라의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고”는 내용상 중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②에서 각국의 국내 총생산만을 비교한다고 해서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1인당 국내 총생산이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거나 변동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②와 ③을 하나로 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② 경제 성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국민 소득 지표를 이용하여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여 그 변동 경향을 설명한다.

④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저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

④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그리고 ⑤의 “시장 경제에서 정부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임”은 모두 ‘경제 성장의 요인’이라는 하나의 학습 주제를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최근에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 주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인적 자본의 개발이나 기술 지식의 발달 등은 제외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한다.

③ 경제 성장의 주요인은 자본 축적, 인적 자본의 개발, 기술 지식의 발달, 천연 자원 등이며, 이런 요인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탐구한다.

⑤ 시장 경제에서 정부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임을 설명한다.

⑤에서 “시장 경제에서 정부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강화시키는 것이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임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 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부정적으로 묘사될 가능성이 있다. 작은 정부론에 입각한 일종의 편향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성장의 주요인은 자본 축적, 인적 자본의 개발, 기술 지식의 발달 등이며,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경제 활동을 장려할 뿐 아니라, 정부도 경제 성장을 위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균형 있는 서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균형 있는 서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④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불필요한 정부 규제가 오히려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막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심화 과정】**

①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러 나라의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

기본 과정 ②와 ③의 내용 일부를 옮겨와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 **[심화 과정]**

①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러 나라의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내 총생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다.

## (나) 현대 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

① 우리 나라 사회에서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자료를 들어 제시하고, 경제와 관련되는 현상을 분류한다.

①에서 “우리 나라 사회에서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자료를 들어 제시하고, 경제와 관련되는 현상을 분류한다”는 서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이 부분의 서술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이런 연장선에서 별도의 경제 문제를 추가한 경우, 여러 사회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제시한 경우, 여러 사회 문제가 결국 경제 문제(빈부 격차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서술하는 경우 등 갖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 과정 진술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명한 진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① 우리 나라에서 현재 거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실제 자료를 들어 제시한다.

② 우리 나라의 물가와 실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변동 양상을 분석한다.

③ 물가가 변동하는 원인을 화폐, 수요, 공급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 기업, 정부의 구실을 나누어 제시한다.

거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두 가지 문제는 물가와 실업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서술의 논리적인 전개 과정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②에서 “우리 나라의 물가와 실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변동 양상을 분석한다”는 것의 의미를 ‘물가와 실업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면 ③번의 “물가가 변동하는 원인을 화폐, 수요, 공급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소비자, 기업, 정부의 구실을 나누어 제시한다” 다음에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그 사이에 물가와 같은 비중으로 실업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비로소 물가와 실업의 관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요약하면, ②번 물가 서술, ③번 실업 서술, ④ 물가와 실업의 관계 서술로 순서를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해야 98쪽 대단원 개관에서 설명한 “국민 소득, 물가, 고용, 국제 수지 등의 기본적인 경제개념만을 활용하여 우리 경제 현실을 이해한다”는 서술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③에서 ‘수요와 공급’은 ‘경제 전체의 수요와 공급,’ 또는 ‘총수요와 총공급’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실제 일부 교과서에서 교육 과정에 제시된 대로 ‘수요와 공급’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9학년에서 학습한 개별 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혼동하기 쉽다. 또한 화폐의 증가(통화량의 증가)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총수요의 증가의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물가 상승의 원인을 중복 기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물가 안정은 총수요 관리 등 거시 경제 정책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거시 경제 문제로 알려져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불필요한 서술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는 과소비를 억제하고, 기업은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물가 안정을 위한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다. 학생들에게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지엽적인 것인지 혼동스럽게 할 수 있다.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한다.

② 인플레이션의 원인 및 영향을 이해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 경제 정책을 제시한다.

③ 실업의 원인 및 영향을 이해하고, 실업을 줄이기 위한 주요 경제 정책을 제시한다.

④ 우리나라의 물가와 실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변동 양상을 분석한다.

### 【심화 과정】

- ① 범죄, 비행, 환경 문제 등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심화 과정 ①에서 “범죄, 비행, 환경 문제 등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교과서 서술을 살펴보니 대부분 ‘범죄와 비행의 원인은 빈부 격차(또는 IMF 구제 금융)’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도식과 논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환경 문제 역시 산업화가 원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범죄와 비행,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빈부 격차의 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심화 과정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매우 수준이 낮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부 교과서에서는 빈부 격차가 줄어들면서도 범죄율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주면서도 빈부 격차가 범죄의 원인이라는 논리를 주입하고 있었다. 다른 측에서 이런 현상이 교과서 저자들의 교육 과정 서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면 교육 과정의 서술이 모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범죄, 비행, 환경 문제가 과연 거시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안한다.

### [심화 과정]

- ① 신문 등을 통해 우리 나라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찾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 (다) 세계 시장의 경제 경쟁과 협력

- ① 국제 사회와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일상 생활 경험에서 찾아 그 의미와 문제를 분석한다.

바람직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② 비교 우위, 국제 수지, 환율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국제 경제 거래 관계를 설명한다.
- ③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 ④ 세계 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각 항목 간에 서술 비중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②번에서 “비교 우위, 국제 수지, 환율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국제 경제 거래 관계를 설명한다”는 서술은 ‘비교 우위’와 ‘국제 수지 및 환율’로 나누어 서술하고, 오히려 ③번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와 ④번의 “세계 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를 하나로 합쳐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 큰 학습 주제를 하나로 묶고 있고, 오히려 작은 주제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적으로 비교 우위에서는 왜 국제 교역이 필요한지,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득실은 어떠한지 등을 서술해야 하며, 국제 수지와 환율에서는 국제 거래 현상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국제 수지표를 통해 한 나라의 국제 거래의 특징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며 국제 거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등을 서술해야 한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다른 나라의 학생들보다 국제 경제에 대한 개념 이해도의 부족(KDI 경제 이해력 검사 자료 참고) 등을 고려한다면, 이런 지적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② 비교 우위 개념을 활용하여 국가 간 교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득실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③ 국제 수지와 환율 개념을 활용하여 국제 거래 관계를 설명한다.

④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심화 과정】**

①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 산업을 조사해서 앞으로 특화해 나갈 상품을 선정해 본다.

바람직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Ⅲ. 교과서 분석

#### 1. 전체 교과서 포괄적 내용 분석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의 고등 학교 사회(10학년) 교과서는 총 8종이 검정 도서로 사용되고 있다. 8종의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된 자료들이 최근 자료로 교체되지 않아 낙후된 것들이 많고, 학습 소재 또는 사례가 현재 시점에서 다소 진부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 국민 계정 자료는 1990년 기준의 불변 가격으로 계산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가 2001년 검정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교과서에서 경제 성장, 물가, 실업, 국제 수지 등 주요 학습 주제를 다룰 때마다 우리나라의 IMF 구제 금융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데, 이 역시 현 시점에서 시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용 불량자 문제를 다루는 교과서가 많으나, 2004년 12월에 신용 불량자 제도의 폐지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 신용 관리의 중요성을 다루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최근의 변화를 반영해 정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개별 경제 주체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마치 소비자의 과소비 금지, 근로자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경제 성장, 물가 안정, 국제 수지 개선, 국가 경제력 향상 등 주요 거시 경제 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대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가 안정을 위해선 일차적으로 통화 당국과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근로자, 기업, 소비자의 행동 규범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소비자에게는 과소비 금지, 분수에 맞는 생활, 합리적인 소비를, 근로자에게는 물가를 넘어서는 지나친 임금 인상 자제를, 기업에게는 공정한 경

쟁, 신기술 개발, 경영 합리화, 생산비 감소를 강조하고 있는 데, 이는 분석 대상 교과서의 경제 내용이 거시 경제 현상을 학습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나친 측면이 있다.

셋째, 일부 교과서에서 학생들에게 오해와 혼동을 줄 수 있는 서술 부분이 있다. 특히, 저축과 소비의 문제를 다루는 대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 과정 상에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저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 자본 축적이 이뤄져야 하고, 자본 축적을 위해선 저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 ‘절약의 역설’이나 ‘저축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내용을 함께 서술하여 학생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 저축을 하라는 것인지, 소비를 하라는 것인지 혼란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경제 성장을 위해선 적절한 저축과 소비가 필요하다”는 모호한 서술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적인 거시 경제 이론은 심화 과목인 경제에서 다루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 요구하는 것 이외의 보충적인 내용을 도입할 때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모호한 용어가 사용되는 예가 있다. 대표적으로 “과소비”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경제 성장, 물가 안정,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소비자는 과소비를 줄이고 건전하고 바람직한 소비, 합리적인 소비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과소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건전하고 바람직한 소비는 무엇이고 합리적인 소비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는 지나치게 도덕 규범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다섯째, 탐구 활동 및 심화 활동의 수준이 지나치게 다양하다. 다루고 있는 탐구 활동의 수준이 간단히 주어진 데이터를 읽는 수준에서 학생들이 쉽게 추론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수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부 심화 활동의 내용은 심화 과정으로 다루기에 부적절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범죄, 비행, 환경 문제”의 원인을 “빈부 격차, 산업화”

등으로 지적하고, “빈부 격차 해소,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경제적 대책으로 내세우는 심화 활동의 내용은 너무 단순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 일부 교과서에서 좀더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교과서에서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미 식량에 있어 자주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우리의 먹을 거리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은 우리의 주권 확보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일방의 주장만을 서술할 뿐 아니라, 자극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정부를 경제 성장 과정에서 규제나 일삼는 불필요한 걸림돌로 오해할 수 있도록 기술된 부분도 있다.

일곱째, 교과서별로 교육 과정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 내용에서 교과서별로 교육 과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교과서는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다루고 있으며, 모든 사회 문제에는 경제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룬 교과서도 있다. 또한 범죄, 비행, 환경 문제를 다룬 부분에서 범죄의 비용-편익 측면에서 범죄 문제를 다룬 교과서도 있고, 빈부 격차나 빈곤 등의 경제 문제가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단순한 논리 구조로 범죄 문제를 다룬 교과서도 있다.

여덟째, 인용문의 정확한 출처 표기가 부실한 경우가 있다. 비록 교과서 마지막에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지만, 교과서 내용에는 OO일보, XX신문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학생들에게 남의 글을 인용할 때 정확하게 인용처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기업가나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경제 성장을 다룬 부분, 국제 경쟁력을 다룬 부분에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나라 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가의 성공 사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소개한다면, 학생들이 장차 올바르게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전체 교과서 단원별 내용 분석

고등 학교 사회(10학년) 교과서 총 8종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경제 관련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IV.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에서 “2.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일부 교과서는 “서양 시민 사회의 형성과 발전”과 “우리 나라 시민 사회의 형성과 발전”으로 구성됨),” “VIII.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단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 IV.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 2.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

여기서의 큰 그림은 시민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산업 혁명이 자본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어떤 교과서에는 산업 혁명의 의미, 자본주의 발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산업 혁명으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균형 있게 서술하고 있지만, 일부 다른 교과서에서는 산업 혁명의 부정적인 영향을 압도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어 학생들이 산업 혁명을 문제 투성이의 부정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 VIII.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

#### 1.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많은 교과서에서 “국민소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 하에 아무런 설명 없이 국내 총생산의 개념과 통계를 다루고 있다. 설명이 있는 경우에도 고작 ‘국민 소득 지표로 국내 총생산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만 설명할 뿐, 왜 그런지 설명이 없다. 즉 국민 소득과 국내 총생산과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바람직한 것은 국내 총생산(GDP)이 소득 지표임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생산물 가치는 생산 비용, 즉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의 합과 일치하므로 국내 총생산 가치는 국민 소득과 같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국내 총생산의 지표로서의 한계를 박스로 간단하게 처리한 교과서가 있는 가 하면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걸쳐 소개한 교과서도 있어서 후자의 경우 국내 총생산 지표가 별로 쓸모 없는 지표인 것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교과서 본문에서는 국내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을 1인당 국내 총생산으로 정의하면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의 통계 자료에는 달러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하지만 왜 달러 기준으로 표시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경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교재를 가지고 연습 또는 자습할 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역과 서비스, 국제 무역과 국제교역 등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경제 용어가 교과서에 따라 달리 쓰여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 2. 현대 경제 문제와 해결방안

사회 쟁점, 특히 정치적 과장이 컸던 남북 정상 회담, 매향리 사건 등 경제적 함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적 의미가 더 큰 문제를 제시한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경기 변동 문제, 실업과 물가 불안 문제, 소비자 의식 문제, 외채 문제, 노사 분규 문제 등 경제 문제를 제시한 교과서가 있다.

물가 문제와 실업 문제를 논의한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주로 물가 문제만 논의한 교과서가 있다. 실업 문제도 마찰적 실업, 계절적 실업,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등 종류까지 논의한 교재가 있는가 하면 실업의 정의만 소개한 교과서도 있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거시 경제 현상을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연장 선에서 거시 경제 문제(특히, 물가와 실업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범죄, 환경 문제 등 미시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들도 뒤섞여 있다.

‘투자’를 정의하지 않고 사용한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경제학에서 쓰여지는 ‘투자’라는 용어는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투자’와는 다른 개념으

로 사용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분명하게 개념 정의가 필요한 경제용어이다. ‘저축’도 정의하지 않고 사용한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경제학에서 쓰여지는 ‘저축’이라는 용어는 일반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은행 예금과 같은 저축 개념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과소비,’ ‘과도한 사익,’ ‘과도한 경쟁’ 등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이다. 학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의할 때 교사들이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과소비’ 대신에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 또는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소비’ 등으로 정의한 다음에 사용하거나, ‘과도한 경쟁’은 ‘불법 경쟁’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3. 세계 경제에서 경쟁과 협력

국제 경쟁력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과 비교 우위를 잃었거나 잃어가는 산업에 대해 균형 있게 논의하고 제시한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비교 우위에 있는 산업만을 강조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다.

국제 경쟁력에 대한 정의가 교과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IMD의 국가 경쟁력 발표 자료를 전적으로 인용하여 소개한 교과서도 있고,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소개하는 교과서도 있다. 그리고, IMD의 국가 경쟁력 발표 자료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지 않고 마치 절대적인 지표인 것처럼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 3. 개별 교과서 내용 분석

### 1) (주)교학사

#### (2)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

좀 더 알기 : 시민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p. 173 전체)

심화 학습의 내용이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학습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내용은 바로 앞의 “시민 혁명과 시민 사회의 발전”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본문의 학습 주제와 관련 있는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수정안 : 예를 들어, “근대 산업 혁명이 가져온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현대 지식·정보 혁명이 가져온 변화를 비교한다.” 등 본문의 학습 주제와 관련 있는 심화 학습의 내용을 제시한다.

### (1)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팔아 얻은 수입은 그것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들의 소득으로 분배된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더하면 그 나라 국민이 얻는 소득의 합, 즉 국민 소득과 같아진다. 이렇게 구한 국민 소득을 국내 총생산이라고 부른다. (p. 216)

다른 교과서에서 보기 힘들게 국민 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제대로 되어있다. 다만, 재화와 서비스를 팔아 얻은 수입이 어떻게 해서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득으로 분배되는지를 보다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참여한 사람들의 임금, 이자, 지대 등으로 분배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수정안 :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팔아 얻은 수입은 그것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들의 소득(임금, 이자, 지대 등)으로 분배된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타이어나 유리의 가치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타이어나 유리의 가치에 다시 자동차의 가치를 더해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면 이중 계산을 하기 때문이다. (p. 217)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타이어나 유리의 가치가 완제품 가치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정안 : “이는 타이어나 유리의 가치가 완제품인 자동차의 가치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료 분석 활동 :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 무엇이 다른가? (p. 217)

1. 다음의 소득은 각각 오른쪽 그림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 박찬호(텍사스 레인저스)의 연봉
- 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수입
- 한국 건설 회사가 중동에서 벌어들인 수입
- 우리 학교 선생님의 월급

GNP와 GDP를 구별하는 문제로 박찬호의 연봉과 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수입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교사용 지도서 257쪽을 보면 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수입은 국내 영토에서 얻은 외국인 수입으로 인식하여 GDP에는 포함되지만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수입은 은행원 임금 소득, 금융자금 조달비용, 지대 비용, 배당금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국인 주주의 배당금만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외국인 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국내 지점 수입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분명하게 지시하지 않은 경우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수정안 : “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수입”을 삭제한다.

1인당 국내 총생산과 생활 수준 (p. 219)

일반적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클수록 생활 수준은 더욱 높아진다.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 항상 정비례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더 큰데 실제 생활 수준은 더 낮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인당 GDP의 한계를 보여줄뿐 그것이 사용 가능한 최선의 지표임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 학생들로 하여금 1인당 GDP가 별로 쓸모 없는 지표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수정안 : “일반적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클수록 생활 수준은 더욱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최선의 유용한 지표이다. 하지만 측정 상의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완벽한 생활 수준의 지표라고 할 수는 없다.”

가난한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p. 219)

이들의 소득 수준이 낮다고 해서 우리보다 몇 배나 더 가난하다고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가난의 지표로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소득이 낮다고 해서 실제 생활이 우리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부연 설명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수정안 : “소득이 낮다고 해서 실제 생활이 우리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상 엿보기 : 재무 설계에 따른 금융 상품

재무 설계에 따라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에는 (생략) (p. 221)

“재무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경제 교과서에서 투자는 자본 스톡을 늘리는 행위로 정의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융 투자와 구분해야 하며, 금융 투자는 일종의 저축이라고 볼 수 있다.

수정안 : “재무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저축의 증가 없이는 궁극적으로 자본을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p. 221)

왜 그런지 설명이 없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축 → 투자 → 자본 축적의 연결 고리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수정안 : “저축의 증가 없이는 활발한 투자를 기대하기 힘들며 이에 따라 자본을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정부가 경제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지난 날의 빠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비결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에서는 시장의 기능이 활발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모든 일을 시장에 내맡기는 힘들고,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경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p. 223)

두 문단의 논리적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 한국 경제는 60년대로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다. 위의 주장에 의하면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했거나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저자들은 경제 성장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지난 날의 빠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시장 기능이 활발하게 작용해서 경제 성장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의 경험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수정안 : “실제로 우리 정부가 경제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지난 날의 빠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비결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를 삭제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할 경우, (중략)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기도 한다. (p. 223)

전체 학습 주제가 ‘경제 성장과 정부의 역할’인데 미시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부가 조세 정책과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시적인 정부의 역할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부는 조세 정책과 정부 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좀 더 알기 : 세계 여러 나라의 국내 총생산과 경제 성장 (p. 225)

길잡이에서 통계청 자료 찾기 과정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이 개통되기 전의 설명이기 때문에 현재 통계청 홈페이지와 맞지 않는다.

수정안 : 현재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에 맞춰 내용을 수정한다.

## (2) 현대 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

세상 엿보기 : 물가와 고용 안정, 왜 필요할까? (p. 230)

일정액의 봉급이나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정은 물가가 오르면, 사실상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 된다. 또, 저축하고 있는 사람들도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저축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보게 된다.

물가 상승률이 다르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명목 임금, 명목 이자율의 변동이 다른 자산의 명목 가치의 변동보다 적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라 봉급이나 연금이 인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서술에 주의가 필요하다.

수정안 : “만일 봉급이나 연금이 고정된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면 사실상 소

득이 줄어드는 셈이 된다. 또, 은행에서 제시한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물가가 오르면 저축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보게 된다.”

물가와 관련된 서술에서 수요와 공급 설명 부분 (p. 231)

총수요와 총공급을 수요와 공급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의 수요와 공급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개별 상품의 수요와 공급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총수요와 총공급이란 용어를 피하고 싶다면 경제 전체의 수요, 경제 전체의 공급이라는 표현이라도 써서 학생들의 오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수정안 : “수요”는 “경제 전체의 수요”로, “공급”은 “경제 전체의 공급”으로 수정한다.

기업이 생산 시설을 늘리도록 부추김으로써 이들이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p. 231)

여기에서 생산 시설 확대 → 소득 증대 → 소비 증대라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해야 가능하다.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수정안 : “정부는 기업이 생산 시설을 늘리도록 유도하여 이 과정에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

좀더 알기: 현대 경제의 또 다른 문제들 (pp. 234-235)

범죄 급등 문제, 환경업체 폐기물 불법 폐기 문제, 맥주 3사 담합 문제, 가짜 휘발유 판매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사례이다. 소비자 관련 문제, 정부 관련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터인데도 말이다. 기업만이 경제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경제 주체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고등학교 1학년 사회의 경제 영역에서는 거시 경제 현상을 다루고 있는데 제시된 경제 문제들은 미시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수정안 : “거시 경제 현상과 관련된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 (3) 세계 시장의 경제 경쟁과 협력

IIE 활동 : WTO와 세계화 (p. 236)

길잡이 : 외교 통상부(<http://www.mofat.go.kr>)→‘경제 통상’→‘다자간 경제 통상 정보’→세계 무역 기구(WTO)를 차례로 클릭한다.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길잡이 내용이 변경되었다.

수정안 : 현재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길잡이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

예를 들어 옷 한 벌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들 때 비용이 더 적게 드는 반면, 곡물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우리나라는 옷 생산에, 미국은 곡물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고 말한다. (p. 238)

여기서 예를 든 것은 절대 우위이다. 비교 우위의 예가 되려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곡물이나 옷 생산 비용이 모두 적게 들지만, 곡물 생산 비용이 옷 생산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들 때 곡물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고 해야 한다.

수정안 :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곡물이나 옷 생산 비용이 모두 적게 들지만, 곡물 생산 비용이 옷 생산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게 들 때 곡

물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옷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국제 수지와 환율과의 관계 (p. 240)

환율을 “원화의 대 달러 환율”로 표시한 부분 세 곳

환율을 “원화의 대 달러 환율”로 정의하고 있는데 예시된 환율은 1200원인 것을 보면, 여기에서 환율은 “달러의 대 원화 환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의 개념 정의는 오류이다. 참고로 “원화의 대 달러 환율”은 ‘원화 환율’을 정의한 것이며, 1원의 달러 가치 즉 1/1200 달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재에서는 ‘달러 환율’과 ‘원화 환율’의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했거나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교재에서 ‘원화의 대 달러 환율’이란 문구는 ‘달러의 대 원화 환율’ 또는 달러 환율이나 환율로 바뀌어야 한다.

수정안 : “원화의 대 달러 환율”을 “달러의 대 원화 환율,” “달러 환율,” 또는 “환율”로 수정한다.

국가경쟁력보고서(2001년)를 인용한 부문별 경쟁력 순위표 (p. 244)

인적 요소 가운데 근로자의 경쟁력 부문에서 아르헨티나가 2위, 우루과이가 4위, 한국은 38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용 과정에서 오류가 아닌지 우려된다.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 국가경쟁력보고서(2001)에서 인용한 “부문별 경쟁력 순위”를 다시 확인한다.

## 2) 대한교과서(주)

### (2)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

산업 혁명에 대한 서술 및 자료 1~6 (pp. 162-163)

산업 혁명이 근대 시민 사회 및 자본주의 형성에 미친 영향보다 산업 혁명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영향만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산업 혁명의 의미 및 공과를 균형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 산업 혁명의 의미, 산업 혁명의 공과(功過)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균형 있게 제시한다.

집중 탐구 : 우리 나라의 시민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p. 167)

우리 나라는 몇 안 되는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벌은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늘리고 은행의 돈을 빌려 필요 없는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 나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지요. 무엇보다 재벌을 개혁하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열린 과제 1번에서 “위의 여러 과제 중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기술되어 있다.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육성이 한국 경제의 꼭 필요한 과제의 하나이며, 다만 우선 순위의 문제만 남아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재벌의 공과는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재벌은 무조건 나쁘고 개혁의 대상이라는 식의 표현은 다소 일방적이라고 생각된다.

수정안 :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력이 집중되고 중복 과잉 투자를 하는 등 폐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심화 학습 : 시민의 자격과 역할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가? (pp. 168-169)

심화 학습의 내용이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학습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내용은 바로 앞의 “시민 혁명과 시민 사회의 발전”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본문의 학습 주제와 관련 있는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수정안 : 예를 들어, “근대 산업 혁명이 가져온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현대 지식·정보 혁명이 가져온 변화를 비교한다.” 등 본문의 학습 주제와 관련 있는 심화 학습의 내용을 제시한다.

#### (1)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한 나라의 소득 또는 소비를 국내 총생산과 비교하는 것은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유용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다. (p. 217)

앞 구절과 뒤 구절의 댕구가 맞지 않는다. 국민 소득을 소득 측면(분배 국민 소득, 임금+이자+지대+이윤), 소비 측면(지출 국민 소득, 소비 지출+투자 지출+정부 지출), 생산 측면(생산 국민 소득, 국내 총생산)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완벽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는 식의 기술이 적절하다.

수정안 : “국민 소득을 소득 측면(분배 국민 소득), 소비 측면(지출 국민 소득), 생산 측면(생산 국민 소득)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완벽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완벽하게 측정하지 못하고, 복지 후생 수준도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p. 217)

이 구절을 보면 국내 총생산이 경제 규모를 측정하고 복지 후생 지표로 사용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 측정 지표, 복지 후생 지표로서 지금까지 개발된 가장 유용한 지표의 하나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수정안 : “국내 총생산은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측정하고,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유용한 지표이다.”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세우는 기초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 217)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다는 ‘유용하다’가 어울린다. 자료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정안 : “국내 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세우는 기초 자료로서 매우 유용하다.”

집중 탐구 1 : 우리 나라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p. 218)

자료 2 : 우리 나라 경제의 현주소

자료 2에서 1999년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최신 자료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 자료 2의 내용을 최근 내용으로 교체한다.

열린 과제 (p. 223)

1. 자료 1에서 볼 때, 경제는 생산, 소득 분배, 소비의 순환 과정을 거친다.

222쪽 자료 1의 그림에서는 생산의 증가 → 소득의 증가 → 저축의 증가로  
예시되어 있다. 소비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자료 1에서 언급되지 않는다.

수정안 : “소비”를 삭제하거나 “저축”으로 수정한다. 또는 222쪽의 자료 1에  
서 “소득의 증가” 다음에 “소비의 증가”를 “저축의 증가”와 병기해서 추가한다.

대안2 외국에서 빌려 온다. (p. 223)

대안2와 자료 2(외환 위기의 원인)를 통해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부정  
적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 투자 재원이 국내 저축으로 충당되지 못할 때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채무 자체가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채무 자체가 아니라 채무를 어떤 방식  
으로 활용하는가이다.

수정안 : “자료 2 : 외환 위기의 원인”을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의 공과(功  
過)와 관련된 내용으로 교체한다.

집중 탐구 3 이춘풍과 자린고비, 누구의 생각이 경제적으로 보다 바람직  
한가? (p. 223)

집중 탐구와 열린 과제 모두 질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지”에 대해 묻고 있다. 우선 “바람직한지”는 매우 가치 지향적인 단어이다. 또  
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저축의 증대와 소비의 증가는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바람  
직한지를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어  
느 때는 장기적으로 저축의 증대가 강조될 수도 있고, 다른 때는 소비의 증가  
가 강조될 수도 있다. 이 질문을 확대 해석하면 고전학과와 케인지언의 처방  
중에서 어느 쪽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환원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이 바  
람직한지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정안 : “집중 탐구 3”을 삭제한다.

열린 과제 (p. 225)

2-3. 환경을 위한 규제는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 발표해 보자.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단서도 본문이나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이 질문이 이 부분에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을 위한 규제는 규제가 필요한지와 함께 어떻게 규제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 오염의 총량 규제(환경부의 푸른 하늘 21 등) 등 시장에 기반한 규제 방식(market based policy) 등이 규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쟁점들이 간과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수정안 : “열린 과제 2-3”을 삭제한다.

심화 학습 (p. 226)

1. 통계청에서 찾는 방법

통계청 홈페이지 개편 이전 방식대로 안내되어 있어 현재 구축되어 있는 통계정보시스템(kosis.nso.go.kr)을 중심으로 재기술되어야 한다.

수정안 : 현재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nso.go.kr)”을 토대로 수정한다.

2. 재정 경제부에서 찾는 방법 (p. 226)

사소할지 모르지만, (3)번에서 요구하고 있는 1인당 GDP를 제시된 자료에서 찾을 수 없다. 대신 자료에는 1인당 GNI가 제시되어 있다.

수정안 : “1인당 GDP”를 “1인당 GNI”로 수정한다.

열린 과제 (p. 227)

4.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개발 도상국보다 낮은 까닭을 토의해 보자.

교사용 지도서 258쪽에는 선진국이 극한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 복지와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는 데 더욱 치중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선진국은 자본 스톡이 풍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재의 한계 생산성이 낮아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것이다. 이른바 따라잡기 효과를 말한다.

수정안 : 교사용 지도서 258쪽에 “선진국은 자본 스톡이 풍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본재의 한계 생산성이 낮아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2) 현대 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

자료 4 : 외환 위기가 가져온 빈부 격차의 심화 (p. 229)

경제 지표상으로는 우리 경제가 외환 위기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이면에서는 중산층의 몰락과 계층 간 빈부 격차 심화라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자료에 나타난 소득 분배 자료는 1997년과 1998년의 것이다. 이 때는 외환 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시기이다. 외환 위기 이후 빈부 격차의 심화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면 그 이후의 소득 분배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자료의 타당성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수정안 : 1997년과 그 이후(최소한 3-4년간)의 자료를 추가한다.

열린 과제 (p. 230)

2-2 노사 관계가 악화되는 원인이 소득 격차와 관련이 있는가?

2-4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교사용 지도서 263쪽의 해설을 보면, 두 문제에 대한 풀이가 거의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문제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2번은

“소득 격차 → 노사 분규”라는 가설을 풀이로 제시하면서 아무런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노사 분규가 심해진 것에 소득 격차가 일부 영향을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이다.

수정안 : “2-4”를 삭제한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 263쪽에 소득 격차와 노사 분규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시사확대경 : 세계화와 공업화가 가져온 농업 문제 (p. 230)

이 시점에서 우리의 안보나 주권 확보 차원에서 식량 문제를 생각해 보자. (중략) 우리는 이미 식량에서 자주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중략) 우리의 먹을거리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은 우리의 주권 확보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세계화에 대한 일방적인 시각, 무역 정책(자유 무역 vs. 보호 무역)에 대한 일방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일방적인 의견만을 받아들일 소지가 있으며, “3.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과 협력”의 내용과 배치되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수정안 : “시사 확대경”을 삭제한다. 또는 “농산물 시장 개방”와 관련된 찬반의 주장을 균형 있게 재기술한다.

집중 탐구 1 : 물가 지수란 무엇인가? (p. 231)

자료 1 : 우리 동네의 ‘인회 물가 지수’

열린 과제 1, 2

집중 탐구 1과 열린 과제 1, 2 내용 전체가 물가와 물가 지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전혀 필요 없는 질문들이 많다. 우선 물가가 “경제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물가 지수를 “기준 시점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한 것”이라고 본문에서 언급하면서도 ‘인회 물가 지수’를

구하는 열린 과제 1의 내용은 단순한 산술 평균만을 기계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열린 과제 1에는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도 지수화하여 서로 다른 시점 간 비교하는 것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열린 과제 2의 수행 과제의 내용은 학습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특히 2-2 “점포마다 가격이 다른 것에 대해 그 이유를 알아보자.”와 2-3 “조사한 가격과 물가 정보를 학교 신문에 공개해 보자.”는 더욱 쓸모 없는 질문이라고 판단되며, 교사용 지도서에조차 해설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수정안 : “열린 과제 1-1” 품목별 가중치를 주어 가중 평균값을 계산하도록 수정한다. “열린 과제 2”는 삭제하거나 물가와 관련된 과제로 대체한다.

열린 과제 (p. 233)

3-2 자료 6에서 돼지 파동으로 인한 물가 변동을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자.

본문에서는 물가 변동을 총수요, 총공급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제시된 열린 과제 3-2는 개별 시장의 수요, 공급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 265쪽 해설에는 “돼지의 총수요에 비해 총공급이 초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저자가 거시적인 총수요-총공급 모델과 미시적인 시장의 수요-공급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 경우에는 돼지의 수요와 공급이 맞다. 따라서 열린 과제 3-2와 자료 6은 적절하지 못한 예시라고 판단된다.

수정안 : “열린 과제 3-2”를 삭제하고, “자료 6”을 “원유 파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체하여 “열린 과제 3-3”과 연결시킨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소비가 늘고 저축이 줄어든다. (p. 234)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소비가 줄어든다. 즉 소비 수요는 물가의 감소 함수이다.

수정안 :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투기 심리가 확산되어 사재기 등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경제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면 낮은 물가 상승률과 낮은 실업률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p. 235)

본문에는 필립스 곡선을 이용하여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간의 역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물가 문제를 경제 문제의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높은 물가 상승률과 높은 실업률이 함께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을 예시하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에 맞을 것이다. 즉 해로운 공급 충격(즉, 총공급의 감소)이 이로운 공급 충격(즉, 총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수정안 : “경제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면 높은 물가 상승률과 높은 실업률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열린 과제 (p. 235)

2-2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기업들이 지나치게 생산을 늘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토론해 보자.

비현실적 가정에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생산을 늘리는 기업은 없다.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물건이 잘 팔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생산을 지나치게 늘리는 기업은 없다.

수정안 :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지나치게 생산을 늘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토론해 보자.”

심화 학습 : 우리가 접하는 사회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pp. 236-237)

심화 학습의 주제로 제기한 ‘짜 홀수 운행제의 경제학,’ ‘싱가포르의 독특한 교통량 통제 방법,’ ‘환경 비용의 국제적 부담 사례,’ ‘쓰레기 종량제,’ ‘범죄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등은 모두 미시 분석과 관련 있는 주제들이다. 국민 경제 즉 거시 부분을 다루고 있으면서 심화 학습으로 미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정안 : 심화 학습의 내용을 거시 경제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재구성한다.

### (3)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과 협력

자료 2 : 팔방 미인 박찬호가 야구만 하는 이유 (p. 240)

붕어빵을 굽는 일은 박찬호보다 못할 것이 없다. (중략) 신발은 우리 나라보다 그리 못 만들 까닭은 없다.

비교 우위의 원리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 예화에서 야구광 박찬호와 중국 모두 각각 붕어빵 굽는 일과 신발 생산을 박찬호와 한국보다 못 만든다(또는 생산비가 많이 든다)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비교 우위의 원리에 대한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수정안 : “붕어빵을 굽는 일도 박찬호보다 못하지만 야구를 못하는 정도보다는 낫다. (중략) 신발은 자동차에 비해 우리 나라보다 그리 못 만들 까닭은 없다.”

열린 과제 (p. 242)

2-2 자료 5, 6을 비교할 때, 환율의 변동과 국제 수지의 변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자료 7을 보고 우리나라 국제 수지의 특성을 파악해 보자.

모두 국제 수지 대신 경상 수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특히 2-2 번에서 언급한 자료 6은 “우리나라의 경상 수지와 환율의 변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므로, 환율의 변동과 경상 수지의 관계를 추론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한 교사용 지도서 275쪽의 이에 대한 풀이를 보면, 환율 상승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만 제시되어 있는데, 역으로 경상 수지의 흑자가 환율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기술될 필요가 있다.

수정안 : “국제 수지”를 “경상 수지”로 수정한다. 교사용 지도서 275쪽에서 경상 수지의 흑자가 환율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기술한다.

외국 화폐의 값이 비싸지면 환율이 오르고 싸지면 환율이 낮아진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 화폐의 값이 오르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환율이 낮아져 외국 화폐의 값이 내리면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p. 243)

환율과 외국 화폐의 값은 동일한 개념이다. 조건부 관계가 아니다.

수정안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 화폐의 값인 환율이 인상되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환율이 인하되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3 : 주요 상품의 수출국(1998) (p. 246)

1998년의 자료는 너무 오래되었다고 생각된다. 최근 자료로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항목 가운데 진공관, 트랜지스터 등은 이제 반도체 등의 항목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수정안 : “자료 3”의 내용을 최신의 내용으로 수정한다.

### 3) (주)두산

#### (2)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

자본가들은 임금이 비싼 숙련된 성인 노동자 대신 임금이 싼 부녀자나 아동을 고용하였다. (p. 169)

사소한 지적이지만, 그 당시에 부녀자와 아동을 고용하였던 것은 이들의 임금이 성인 남자의 임금보다 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인 남자의 임금 역시 한 가정을 꾸려 나가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수정안 : “자본가들은 성인 노동자뿐 아니라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부녀자나 아동도 고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전체) (p. 172)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과정과 그 특징이 자세히 소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을 경제 개발 계획 이전 시기와 경제 개발 계획 이후로 구분 짓는 것도 어색해 보이며, 두 시기가 동일한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도 제한된 지면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수정안 : “경제 개발 계획 이전”은 삭제하거나 2-3줄로 요약하고 1960년대 이후 10년 단위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특징을 기술한다.

심화 과정 : 시민의 개념과 시대에 따른 시민 자격의 변화 (pp. 174-175)

심화 학습의 내용이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학습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내용은 바로 앞의 “시민 혁명과 시민 사회의

발전”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본문의 학습 주제와 관련 있는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수정안 : 예를 들어, “근대 산업 혁명이 가져온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현대 지식·정보 혁명이 가져온 변화를 비교한다.” 등 본문의 학습 주제와 관련 있는 심화 학습의 내용을 제시한다.

### (1)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보충 : 세계 여러 나라의 국내 총생산 비교 (p. 216)

국내 총생산(억 달러) 열의 정렬 상태를 조정해야 한다.

수정안 : 국내 총생산(억 달러) 열의 정렬을 미국의 1의 단위에 맞춰 오른쪽 정렬을 한다.

경제 성장률(%) 공식 (p. 218)

실질 국내 총생산의 개념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수정안 : 경제 성장률 공식 왼쪽 여백에 “실질 국내 총생산 : 기준년도의 물가 수준으로 계산한 국내 총생산”이라는 보충 설명을 추가한다.

저축은 자본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어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p. 219)

저축 → 투자 → 자본 축적의 연결 고리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 “저축은 투자를 통해 자본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어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심화 과정 : 아시아 경제 지도 그리기 (p. 221)

3. 1에서 구한 자료 중 국내 총생산을 이용하여(한국의 규모를 기준으로) 아시아 지도를 새롭게 그려보자. 원래의 지도와 새롭게 그린 지도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학생들이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교사용 지도서 229쪽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1:2.5:11의 비율로 그린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내 총생산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좀더 현실성 있는 그래프를 그리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엑셀(MS Excell) 등을 사용하면 여러 종류의 그래프를 통해 국내 총생산의 차이를 시각화할 수 있다.

수정안 : “1에서 구한 자료 중 국내 총생산을 이용하여(한국의 규모를 기준으로) 여러 나라의 국내 총생산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갖가지 그래프를 그려보자.”

## (2) 현대의 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

탐구 활동 : 휴지가 된 지폐 (p. 226)

인플레이션의 뜻과 원인 (p. 227)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총수요-총공급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탐구 활동에서 제시한 통화량의 증가도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다룬 본문에서도 통화량의 증가를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물론 통화량의 증가를 총수요의 증가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의 대책으로 통화량을 조절(본문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표현되어 있음)할 수 있다는 228쪽의 설명과 일관성 있을 것이다.

수정안 : 227쪽 하단의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가?”에서 “예를 들어

(중략) 해외에서 우리 상품을 더욱 선호하게 될 때도 그렇다.” 다음에 “그리고 급격한 통화량의 증가도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문장을 추가한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예견되면 금리를 높여 화폐를 시중에서 거두어들이고 (중략)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한다. (p. 228)

‘금리를 높여 화폐를 시중에서 거두어들이고’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한 정부가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리 목표치를 올리는 것이며, 금리 목표치를 인상시키는 것은 금리가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통화 공급을 줄이겠다는 의미이다.

수정안 :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예견되면 금리 목표치를 높여 금리가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화폐 공급을 줄이고 (중략)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한다.”

심화 과정 : 경제 위기가 불러온 사회 불안 (p. 230)

제시된 그래프를 보면 1980년-1990년 사이에는 실업률과 범죄 발생률 간에 정(+)의 상관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와 1990년대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하고 형법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범죄 발생의 원인이 꼭 실업 때문은 아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심각한 실업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교사용 지도서 235쪽의 해설에서 “실업이 증가하면 범죄 발생이 증가하여 사회 불안이 심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좀더 신중한 진술이 요구된다.

수정안 : 제시된 그래프에서 실업률과 범죄 발생률 간에 정(+)의 상관 관계가 나타나는 시기만 제시하거나, 실업 증가가 범죄 발생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시사해주는 다른 자료로 대체한다.

실업자 종합 지원 센터 (p. 231)

실업자 종합 지원센터를 소개하면서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편이 유용할 듯 하다.

수정안 : “실업자 종합 지원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추가한다.

### (3) 세계 경제의 경쟁과 협력

각국의 화폐와 우리나라 화폐와의 교환 비율은 매일 새롭게 계산된다. (p. 234)

‘계산된다’라기보다 ‘바뀐다’라고 쓰는 편이 좋을 듯 하다.

수정안 : “각국의 화폐와 우리나라 화폐와의 교환 비율은 매일 새롭게 바뀐다.”

국제 수지 (p. 236)

외국에서 우리 상품을 많이 주문하여 수출이 늘어나면 경상 수지는 흑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채를 갚을 수도 있고 여력이 있으면 해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중략)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 수지는 되도록 균형을 유지하거나 흑자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경상 수지가 흑자일 경우의 이익만을 설명하고 있고, 그 결론으로 “국제 수지는 되도록 균형을 유지하거나 흑자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상 수지의 흑자는 국내 물가를 인상시키고 무역 마찰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이런 점들이 균형 있게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수정안 : “외국에서 우리 상품을 많이 주문하여 수출이 늘어나면 경상 수지는 흑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벌어들인 외화로 외채를 갚을 수도 있고 여력이 있으면 해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상 수지의 흑자는 국내 물가를 인상시키고 무역 마찰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중략)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 수지는 되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활동 : 타이완의 국제 경쟁력 (p. 240)

전체적으로 타이완의 중소 기업 중심 경제 구조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그런 경제 구조가 지니고 있는 약점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타이완의 혈연 중심 기업 구조, 선진국과 수직 계열화된 산업 구조 등으로 인해 타이완은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을 육성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자칫 학생들에게 중소 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경쟁력이 있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 아울러, 하단의 참고에서 “한국 개발 연구원 경제 자료 센터(www.kdi.re.kr)”는 “한국 개발 연구원 경제 정보 센터(epic.kdi.re.kr)”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수정안 : 타이완 경제의 약점을 지적하는 부분에 “혈연 중심 기업 구조, 선진국과 수직 계열화된 산업 구조 등으로 인해 타이완은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을 육성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를 추가한다. 또한 하단에 “한국 개발 연구원 경제 자료 센터(www.kdi.re.kr)”를 “한국 개발 연구원 경제 정보 센터(epic.kdi.re.kr)”로 수정한다.

#### 4) 디딤돌

##### (1) 서양 시민 사회의 형성과 발전

시민 사회의 발전 (pp. 170-171)

산업 혁명에 대한 서술 및 자료

산업 혁명의 의미와 의의는 매우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 반면, 산업 혁명기에 나타난 여러 사회 문제들만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 삽화에서도 “산업 혁명은 노동 문제, 도시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산업 혁명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수정안 : 산업 혁명의 의미와 근대 시민 사회 형성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먼저 설명하고, 이로 인해 생긴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균형 있게 기술한다.

### (1)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읽기 자료 : 국내 총생산의 한계(1) (p. 220)

주말 가족 농장이 확산되면 국내 총생산은 줄어든다.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이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을 뿐이지 국내 총생산을 줄어들게 하지는 않는다. 또한 주말 가족 농장을 부정적으로 인식(국내 총생산을 줄어들게 하는 쓸모 없는 활동)시킬 수 있다.

수정안 : “주말 가족 농장 활동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읽기 자료 : 국내 총생산의 한계(2) (p. 221)

국내 총생산은 국민의 복지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내 총생산은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 수준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여러 나라에서 경제 성장(국내 총생산의 증가)에 힘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정안 : “국내 총생산은 국민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이지만 측정상의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활동 : 국내 총생산의 의미 (p. 221)

2.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한국의 국내 총생산보다 큰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4. 일본의 경우 중국에 비해 국토 면적이나 총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은 훨씬 더 크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주어진 자료만을 갖고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자본 스톡의 정도 및 기술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들을 함께 제시하고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수정안 : 학생들이 제시된 질문의 답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자본 스톡의 정도 및 기술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 등)를 추가한다.

국내 총생산에 대한 설명 전체 (p. 220-221)

국내 총생산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국내 총생산의 한계를 읽기 자료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개념 소개는 가치 중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한계 부분은 가치 판단적인 진술 형태를 담고 있다. 국내 총생산 개념이 왜 중요한지, 실제로 어떤 유용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서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 개념이 지니는 한계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국내 총생산에 대한 오개념을 형성해 줄 수 있다.

수정안 : 국내 총생산 개념이 왜 중요한지, 실제로 어떤 유용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서술을 추가하여 균형 있게 재구성한다.

활동 : 경제 성장률의 계산 (p. 222)

2. 1998년의 실질 국내 총생산 394조 7,000억 원, 1999년의 실질 국내 총생산 436조 8,000억 원

1998년과 1999년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너무 오래된 자료이다. 이미 실질 국내 총생산의 기준년도가 2000년임을 고려하여 최근 자료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수정안 : 최근의 자료로 수정한다.

읽기 자료 : 난쟁이 행렬 (p. 222)

키가 작은 난쟁이들의 행렬이 길수록 그 나라의 소득 분배 상태는 불평등할 것이다. 경제 성장은 전체 국민들의 평균 키가 커진 것만을 보여 줄 뿐, 키가 작은 난쟁이들의 행렬이 긴지, 짧은지는 보여 주지 못한다.

여기서 제시된 논리대로 한다면,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행렬이 길게 나타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의 행렬을 비교한다면 미국의 행렬이 당연히 길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평균의 개념이 아니라 총량의 개념이다. 갑자기 소득 분배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문제이지만, 소득 분배 문제 자체도 정확하게 예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용 출처도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정안 : 인용한 원문을 재참고하여 원문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고 논리적인 모순이 없도록 수정한다.

경제 성장에 대한 서술 전체 (p. 222)

경제 성장의 의미, 경제 성장률의 계산 방법을 소개하면서, 읽기 자료로 경제 성장률이 소득 분배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성장보다 분배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오히려 경제 성장이 왜 중요한지 등을 보여 주는 예시가 앞의 내용 소개를 이해하는 데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 경제 성장의 의미, 경제 성장률 계산 방법의 소개 단락 다음에 경제 성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간단한 서술이나 예시를 추가한다.

저축을 강조하는 것도 자본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p. 223)

왜 그러한지 설명이 필요하다. 즉, 저축 → 투자 증대 → 자본 형성의 연결고리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 “저축을 강조하는 것도 투자를 통해 자본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활동 : 저축은 왜 중요한가? (p. 224)

자료1과 자료2의 중간에 질문이 들어가 있어 편집상의 오류라고 여겨진다. 교사용 지도서 241쪽의 해설에는 하단의 1, 2, 3번에 대한 해설만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자료1과 자료2의 중간에 들어 있는 1, 2번 문제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단의 2번 질문(“신용 불량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조사해 보자.”)은 전체 학습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료1(“빈곤의 악순환”)의 내용은 자본의 선순환 구조로 대체하는 것이 자본 스톡의 증가(투자)를 위한 저축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3번 문제의 경제 성장을 위한 소비자의 바람직한 태도를 교사용 지도서에는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건전하게 소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거시적 경제 현상이나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규범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또한 신용 불량자의 증가가 소비 위축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저축이 투자로 전환되지 못하거나 소비가 위축되는 원인은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요인임이 간과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수정안 : 자료1과 자료2 사이에 있는 1, 2번 문제를 삭제한다. 하단의 2번 문제도 삭제한다. 자료1의 “빈곤의 악순환”을 “자본의 선순환”으로 수정한다. 하단의 3번 문제를 “자료2를 토대로 하여, 소비자의 바람직한 소비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로 수정한다.

5. 1990년대 들어 일본의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보자.
6. 1990년대 들어 중국의 경제가 두 자리 수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조사해 보자. (p. 227)

226-227쪽의 다른 질문에 비해 너무도 질문의 수준이 광범위하다. 1, 2, 3, 4번은 자료를 읽고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며, 7번은 주어진 두 자료를 연결하

여 추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5, 6번은 질문 자체가 광범위하고 답변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수정안 : 주어진 5, 6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일본과 중국 경제 관련 자료)를 추가한다.

## (2) 현대 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

물가가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부와 소득의 불공정 분배, 투기 활동의 조장, 국제 수지의 악화 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p. 231)

불공정 분배는 공정한 분배를 전제로 한 가치함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재분배로 고치고, 국제 수지의 악화는 경상 수지의 악화로 고쳐야 할 것이다.

수정안 : “물가가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부와 소득의 자의적인 재분배, 투기 활동의 조장, 경상 수지의 악화 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활동 :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누가 유리할까? (p. 231)

2. 갑은 1개월 후에 이자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을로부터 400만 원을 빌려, 20kg당 4만 원하는 쌀을 100부대 구입하였다. 1개월 후에 갑이 20kg당 5만 원에 쌀 100부대를 모두 팔았다면, 갑이 남긴 이득은 얼마인가? 이 경우 을은 손해인가, 이익인가?

우선 이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아무 관련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교사용 지도서에는 을이 상대적으로 손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질문도 을이 갑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지 않고 직접 장사를 했을 때보다 손해인가, 이익인가로 정확히 질문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자 10만 원의 소득은 어쩔

든 절대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따지기 전에 학습 주제와 관련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정안 : 2번 문제를 삭제한다.

5. 다음 중에서 물가가 상승할 경우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을 구분해 보자. (p. 231)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도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에 비해 유리하다거나 누구에 비해 불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금융 자산의 소유자가 실물 자산의 소유자보다 불리하다는 식으로 유불리의 대상을 명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채무자-채권자, 수출업자-수입업자를 쌍으로 주고 유불리를 질문해야 하며, 봉급 생활자도 어떤 사람에 비해 유불리를 판단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주어야 한다. 봉급 생활자도 물가 상승분만큼 급여가 보전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시 유불리를 암기시키는 것과 같은 문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수정안 : 5번 문제를 삭제하거나, 유불리의 비교 대상을 명확히 정해 준다.

유통 단계가 복잡할수록 상품 가격에 추가되는 유통 단계별 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높아지며, 시장 형태가 독과점일 경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계 없이 독과점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물가가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다. (p. 233)

교육 과정에는 물가 변동을 총수요-총공급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지엽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유통 단계가 복잡할수록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비중은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 추가되는 가격을 일종의 거래 비용으로 본다면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독과점 시장이

경쟁 시장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만 한 경제 내에서 독과점 상품의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비중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독과점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표현도 강하게 들린다. 독과점 기업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수요자의 지불용의 곡선상의 한 점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수정안 : 제시된 내용을 삭제하고, 첫 줄의 “경제 주체들의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내용을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을 추가한다.

물가 안정 여부는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의 제 부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물론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협력과 노력 없이는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중략) 근로자들은 생산성 향상의 범위 내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잘못된 소비 관행이나 허영심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잊지 말고 건전한 소비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p. 234)

물가 안정은 거시 경제의 중요한 목표로서 경제 주체들 각자의 1/N의 노력에 의해 달성되기보다 정부의 거시 경제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 개별 경제 주체들의 역할이 강조되다보니 특히 근로자나 소비자와 관련된 진술은 다분히 규범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수정안 : 제시된 내용을 삭제하고, 넷째 줄의 “정부는 통화량과 재정 지출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의 의미를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을 추가한다.

### (3) 세계 시장의 경제 경쟁과 협력

사진 자료 : 휴대폰 (p. 240)

사소한 사항이지만, 사진에 나타난 휴대폰 모델이 매우 구형이다. 과장해서 말하면, 학생들이 거의 골동품으로 여길 수 있는 모델이다.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사진 자료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 최신 휴대폰 사진으로 교체한다.

읽기 자료 : 환율이 상승하면 생활 수준이 낮아진다. (p. 245)

결국 환율 상승은 우리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명목) 환율 상승으로 인해 달러로 표시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감소하였다 고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의 낮아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환율의 변동이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정안 : “결국 환율 상승은 우리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를 삭제한다.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향상,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p. 251)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 주체별 과제를 설명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향상,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대단원 마무리 (p. 253)

국제 수지 흑자 → 환율 하락, 국제 수지 적자 → 환율 상승

본문에서 배운대로 국제 수지를 경상 수지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수정안 : “경상 수지 흑자 → 환율 하락, 경상 수지 적자 → 환율 상승”

## 5) 법문사

### (2)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

자유 방임주의가 최고? (p. 193)

산업 혁명기의 주요 경제 사상이었던 자유 방임주의의 의미 및 의의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자유 방임주의에서 산업 혁명기의 노동 문제가 비롯되었다는 주장만이 강조되고 있다.

수정안 : 자유 방임주의의 의미 및 의의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균형 있게 재구성한다.

정부 주도에서 시민의 참여로 (p. 194)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시민 (p. 195)

정부 주도의 산업화는 우리 나라의 시민 사회 발전에 모순된 결과를 낳았으며, 남은 과제는 미성숙한 시민 사회에서 성숙한 시민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시민, 자유 등이 강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논리 전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하단에 “금 모으기 운동-시민의 힘”을 강조하며 IMF 구제 금융에서 벗어나게 된 데 ‘시민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시민 참여가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의 여러 문제들이 시민 참여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IMF 구제 금융에서 벗어난 것도 금 모으기 운동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한국 경제

의 나아갈 방향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시민을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어색하게 보인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한국 경제의 과제는 과거 정부 주도의 성장 모델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경제 운용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시장 메커니즘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 사회의 참여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수정안 : “정부 주도에서 시민의 참여로”를 “정부 주도에서 시장으로”로 수정한다.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시민”의 내용을 “시장 원리에 의한 경제 운용”의 내용으로 수정하고 시장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의 역할을 추가한다.

심화 학습 : 우리 모두는 시민! (pp. 196-197)

심화 학습의 내용이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학습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내용은 바로 앞의 “시민 혁명과 시민 사회의 발전”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본문의 학습 주제와 관련 있는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수정안 : 예를 들어, “근대 산업 혁명이 가져온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현대 지식·정보 혁명이 가져온 변화를 비교한다.” 등 본문의 학습 주제와 관련 있는 심화 학습의 내용을 제시한다.

### (1)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탐구 활동 : 보릿고개와 다이어트 (p. 246)

자료 VIII-1 우리나라의 GDP 및 1인당 GDP

2001년까지의 자료만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이후 GDP와 1인당 GDP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 자료 상으로는 우리나라 GDP와 1인당 GDP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수정안 : 2001년 이후의 우리나라 GDP 및 1인당 GDP 자료를 추가한다.

요모조모 :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 (p. 247)

- 국내 총생산(GDP) : 소유에 관계 없이 국내에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최종 생산물의 합

“소유에 관계 없다”는 말을 ‘생산 요소 소유자의 국적에 관계 없다’는 말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좀더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 “생산 요소 소유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국내에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최종 생산물의 합”

요모조모 : 삽화 (p. 252)

-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망하지 않는다.

주식 회사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우려가 있다. 기업은 계속되더라도 기업가는 바뀌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수정안 :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망하지 않는다.”를 삭제한다.

싱가포르, 일본, 독일, 타이완 등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은 대부분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 (p. 253)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누락시킴으로써 우리나라는 저축률이 낮은 국가였던 것으로 보이게 할 우려가 있다.

수정안 : “우리나라를 비롯한 싱가포르, 일본, 독일, 타이완 등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은 대부분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에서 자료 찾기 (p. 256)

한국 은행은 경제통계시스템(ECOS), 통계청은 통계정보시스템(KOSIS)을 운영하여 각각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서 256쪽에 제시된 자료 찾기 방식은 예전 방식이기 때문에 새롭게 재기술되어야 한다.

수정안 : 현재 한국 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KOSIS)에 맞추어 수정한다.

그림 : 그래프로 본 주요국 경제 (p. 257)

각국의 1인당 GDP를 연결 곡선으로 처리하고 있다.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막대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본문에서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 세계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설명은 제시된 그림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이다.

수정안 : “각국의 1인당 GDP”를 막대 그래프로 수정한다.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 세계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를 삭제한다.

## (2) 현대 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

People Story : 신용 불량-신용 불량자 380만 명 (p. 259)

휴대 전화 요금을 연체하기만 해도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므로 등록 요건을 잘 알아 두어야 한다.

최근 신용 불량자 제도가 폐지되었다. 신용 불량자 문제에 대한 기술 부분에서 이런 최근의 변화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수정안 : 최근 변경된 신용 불량자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수정한다.

탐구 활동 : 물가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p. 260)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미국, 일본에 비해 높은 이유를 설명해 보자.

연도별 미국과 일본의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미국, 일본에 비해 높은 이유를 설명해 보자.”는 과제는 학생들의 수준에서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고 생각된다. 본문 내용에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통화량, 생산 원가, 실물 상품의 수급 불일치 등을 열거하고 있으므로(p. 261) 아마도 그런 요인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너무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각 연도별로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통화량, 생산 원가, 실물 상품의 불일치 상황을 통계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정안 :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미국, 일본에 비해 높은 이유를 설명해 보자.”를 삭제한다.

물가는 왜 오르나? (p. 261)

교육 과정상에는 인플레이션을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토대로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통화량 증가(총수요 측면), 비용 인상(총공급 측면) 등이 설명되어 있다. 물론 통화량 증가가 총수요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나,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들도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수정안 : “경제 전체의 수요가 경제 전체의 공급에 비해 많이 나타날 때 물가는 오른다. 예를 들어 가게는 소비를 늘리려 하고 기업은 공장을 세우려고 하며 정부는 공공 시설을 늘리려고 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경제 전체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물가가 오르게 된다.”를 “보통 통화량이 늘어나면” 앞에 추가한다.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도 물가는 변동한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이 부족하면 물가는 오른다. 특히, 석유나 철강 등 주요 품목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자연 재해로 농작물이 흉작일 때, 이러한 품목의 가격 인상이 전체 시장에 파급되어 물가가 오른다. (p. 261)

학생들이 개별 상품의 가격의 변화와 물가의 변동을 혼동할 수 있다. 물가는 개별 상품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받기보다 총수요-총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예시로 든 석유나 철강재 가격 인상의 파급 효과는 일종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일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앞 문단에 이미 기술되어 있다.

수정안 : 제시된 내용을 삭제한다.

첫째, 물가 상승은 소득과 부의 분배를 불평등하게 만들어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 (p. 262)

너무 강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물가 상승은 소득과 부의 자의적인 재분배를 유발시킨다.”는 정도의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 타당하다고 본다.

수정안 : “첫째, 물가 상승은 소득과 부의 자의적인 재분배를 유발시킨다.”

정해진 봉급이나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정은 (중략) 사실상 소득이 감소한 것과 같게 된다. (p. 262)

봉급이나 연금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인상되기 마련이며, 그렇게 되면 실질 소득의 감소는 없다. 다만 봉급이나 연금 인상률보다 다른 자산 가치의 인상이 클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다.

수정안 : “물가 상승분만큼 인상되지 못한 봉급이나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정은 (중략) 사실상 소득이 감소한 것과 같게 된다.”

물가 상승분만큼 실질 이자율이 낮아지므로 저축은 줄어든다. 저축의 감소로 이자율이 오르면 기업은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투자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 (p. 262)

피셔 효과에 의하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명목 이자율이 증가하고 실질 이자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뒷부분에서는 이자율이 오른다고 표현하고 있다.

수정안 : “은행에서 제시한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물가 상승분만큼 실질 이자율이 낮아지므로 저축은 줄어든다. 저축의 감소로 기업은 자금 마련이 어려워져 투자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

셋째, 물가가 오르면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 (p. 262)

사소한 지적이지만, 엄격하게 말하자면 경상 수지가 악화되는 것이다.

수정안 : “셋째, 물가가 오르면 경상 수지가 악화된다.”

탐구 활동 : 물가 안정 어떻게 달성하나? (p. 263)

물가 안정 대책으로 적절하지 못한 항목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각 경제 주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요약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고 물가 안정 대책으로 적절하지 못한 항목을 찾아보라는 과제가 있다. 그런데 탐구 활동의 과제는 앞 절 ‘물가 왜 오르나’에서 제시된 물가 상승 원인에 대한 논의에 근거해서 답해야 할 것인데, 실제로 열거된 항목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예: 공공 요금, 조세 정책, 외제 수입, 생산성, 시장 지배력 등)도 많다. 예컨대 “세금을 줄여 서민 가계에 도움을 준다”는 적절하지 못한 항목으로 대답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답하기

위해서는 앞 절의 물가 상승 요인 분석을 할 때 정부의 확장적 조세 정책도 물가 상승 원인으로 열거되었어야 할 것이다.

수정안 : 탐구 활동의 내용과 본문의 학습 내용이 관련 있도록 수정한다.

비행과 경제(지하 경제를 중심으로) (p. 269)

1. 사례 : 야구장에서

야구장의 암표 거래를 지하 경제로 규정하고 도덕성 함양, 경제 정의 실현 등을 강조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암표 거래를 막는 행위야말로 자유로운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종의 가격 통제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다. 즉, 암표 거래는 야구 입장표를 지불 용의가 높은 사람(=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는 말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하 경제의 상당 부분은 바로 가격 통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하 경제의 원인이 가격 통제 때문인지, 아니면 암표상 때문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논란을 차지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거시 경제 현상을 다루는 단원에서 미시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주제가 선정되어 주제 선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수정안 : 거시 경제 현상과 관련된 경제 문제로 사례를 수정한다.

### (3)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과 협력

탐구 활동 : 합리적인 분업은? (p. 272)

다음의 경우 합리적인 분업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본문에서는 특화란 용어를 사용하고, 각주에 특화에 대한 보완 설명까지 달고 있는데, 갑자기 탐구 활동에서 분업이란 용어로 바뀌었다. 사소한 문제일 수 있으

나, 미국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경제학 용어로서, “특화(specialization)와 분업 (division of labor)”을 구분하고 있다. 비교 우위가 있는 곳에 선택적으로 전념하는 것을 특화라고 하며, 분업은 하나의 일을 여러 공정으로 나눠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특화로 통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수정안 : “탐구 활동 : 특화란?” “다음의 경우 특화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경상 수지가 개선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이 확대되어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외화 보유 사정이 좋아져 다양한 물건을 수입할 수 있다.

경상 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외채가 증가하고 국제적 신용이 떨어져 경제 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 번의 외환 위기를 경험한 남미 국가, 1997년의 우리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p. 274)

경상 수지 흑자가 항상 경제에 바람직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수정안 : “경상 수지가 개선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고용이 확대되어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외화 보유 사정이 좋아져 다양한 물건을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상 수지의 흑자는 국내 물가를 인상시키고 무역 마찰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경상 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외채가 증가하고 국제적 신용이 떨어져 경제 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 (생략)”

달러의 공급이 수요량보다 많으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상승하여 원화 환율이 하락하며, 반대로 달러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여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 (p. 275)

‘원화 환율’을 ‘달러 환율’의 의미로 잘못 쓴 사례이다. ‘원화 환율’ 대신 ‘달러 환율’ 또는 ‘환율’이라고 써야 맞다.

수정안 : “달러의 공급이 수요량보다 많으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상승하여 환율이 하락하며, 반대로 달러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여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중략) 국제 수지가 개선된다. (p. 275)

앞 쪽과 일관성 있게 경상 수지로 표시해야 할 것이다.

수정안 : “환율이 상승하면 (중략)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

최고 기술 수준의 외국 업체와의 제휴, 국제적 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하여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p. 279)

“국제적 기업의 인수 합병”에 대해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술에 좀 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다. 즉, 국제적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 합병은 조심스럽게 비용-편익을 따져야 할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편익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수정안 : “최고 기술 수준의 외국 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하여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통화량, 상품의 수요와 공급, 생산비의 변화, 물가 오름세 심리로 인하여 물가가 오른다. (p. 282)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총수요와 총공급 또는 경제 전체의 수요와 공급이다.

수정안 : “통화량,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경제 전체의 수요와 공급, 생산비의 변화, 물가 오름세 심리로 인하여 물가가 오른다.”

• 물가 상승은 실질 소득의 감소, 부의 불공평한 분배, 국제 수지 악화, 성장 저해를 초래한다. (p. 282)

물가 상승분만큼 명목 소득이 같이 오르면 실질 소득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부의 불공평한 분배는 부의 자의적인 재분배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정안 : “물가 상승은 부의 자의적인 재분배, 경상 수지의 악화, 경제 성장의 저해를 초래한다.”

## 6)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1)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국내 총생산의 의의와 한계 (pp. 249-251)

국내 총생산의 의의는 반 쪽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 국내 총생산의 한계를 한 쪽에 걸쳐 설명함으로써, 국내 총생산은 별로 쓸모 없는 지표라는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수정안 : 국내 총생산의 의의를 보여주는 자료(사진, 그래프 등)를 추가하고, 국내 총생산의 한계 서술 부분을 축소한다.

실탄이 있어야 총을 쓸 수 있다 (p. 253)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는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지속적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수세적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는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증대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 고용과 생산이 증가하여 가계 소득이 증대된다. 가계의 소득 증가는 자연스럽게 저축을 증가시켜 자본이 축적되고, 이는 다시 투자의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기업의 투자는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p. 253)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주체의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의 투자 증대를 설명하면서, ‘투자 → 소득 → 저축 → 자본 축적 → 투자’로의 연결 고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 축적이 되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오류이다. 오히려 ‘투자 → 소득 → 저축 → 투자 → 성장’의 연결 고리를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자본 축적은 투자의 축적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수정안 : “기업의 투자 증대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 고용과 생산이 증가하여 가계 소득이 증대된다. 가계의 소득 증가는 자연스럽게 저축을 증가시켜 투자의 재원이 된다. 투자를 통한 자본 축적은 경제 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이 된다. 이처럼 기업의 투자는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심화 과정 :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의 정도는 어떠한가? (pp. 256-257)

우선 ‘야후 코리아’의 경우 제시된 ‘www.yahoo.co.kr’로도 접속이 가능하지만 공식적인 홈페이지 주소인 ‘kr.yahoo.com’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한 이렇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경제 지표를 찾아가는 것보다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KOSIS)이나 한국 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수정안 : “www.yahoo.co.kr”을 “kr.yahoo.com”으로 수정한다. 또는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KOSIS)이나 한국 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소개한다.

1. 1990년대 후반, 미국이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자.
2.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하여 낮았던 이유와 그것이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p. 257)

두 질문 모두 제시된 자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자료와 관계 없이 심화 과정으로 연구해야 할 질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무리 심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조금이라도 제시하거나 해결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출처 등을 안내해 주고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에 대한 자료나 일본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수정안 : 1, 2번 문제를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한다. 또는 미국의 신경제에 대한 자료나 일본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 (2) 현대 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

실업은 경기 침체로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날 때도 발생하지만,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하여 사회가 변화할 때에도 발생한다. (p. 261)

기술 혁신이 초래하는 실업 문제만 설명할뿐, 그것이 비록 단기적으로는 실업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을 설명하지 않아 기술 혁신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수정안 : “실업은 경기 침체로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날 때도 발생하지만,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가 변화할 때에도 발생한다.”

중앙 은행(한국 은행)은 은행 대출 이자를 올림으로써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 (p. 265)

‘은행 대출 이자’가 ‘한국 은행이 시중 은행에 대출해 주는 이자(재할인율)’를 의미하는 것인지, ‘시중 은행의 대출 이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수정안 : “중앙 은행(한국 은행)은 은행에 대출해 주는 이자를 올림으로써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심화 과정 : 경제적 측면에서 본 범죄, 비행, 환경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p. 267)

1. 위 자료에서 주장하는 범죄나 비행, 환경 문제 발생의 원인과 대책을 정리해 보자.
2. 다음의 사회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
  - 강·절도 사건      • 시험 중 부정 행위      • 대기 오염의 증가

각 자료는 범죄와 환경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2번 질문에서 이런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다. 저자의 의도를 보면, 1번보다는 2번 질문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심화 과정의 전체 지면 비중을 볼 때, 1번을 위해 사용한 지면이 대부분이다. 간단히 말해, 지면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차라리 범죄와 환경 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접근과 관련된 사례 또는 칼럼 등을 자료로 제시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 본래의 의도에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정안 : 범죄와 환경 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접근과 관련된 사례 또는 칼럼 등을 자료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접근을 요구한다.

3. 자료 1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는 보호 관찰 처분을 많이 받고 있다. 보호 관찰소를 방문하여 비행 청소년들이 어떤 지도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자. (p. 267)

실제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고, 실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교육 과정이나 이 단원의 학습 내용과 거의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수정안 : 2번 문제를 삭제한다.

### (3) 세계화와 국가 간 경쟁과 협력

장기적으로는 국제 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p. 273)

국제 수지를 경상 수지로 바꾸는 것이 일관성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경상 수지 적자와 경상 수지 흑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결론을 내리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수정안 : “장기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탐구 활동 : 환율 변동과 그 영향 (p. 275)

3.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발표해 보자.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탐구 활동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이것보다 환율 상승이 수출입 이외에 미치는

영향(예를 들면 외채 상환 등)을 추론하는 탐구 활동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정안 :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생활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발표해 보자.”

우리나라 기업은 국제적으로 볼 때, 기업의 재무 구조가 부실하고, 경영 능력과 기술 수준 면에서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기업은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p. 276)

과거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 구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부실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 경영인 제도만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수정안 : “우리나라 기업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더욱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7) (주)지학사

### (2)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

자유 경쟁에 의한 무계획적인 생산은 생산 과잉을 초래하여 주기적인 경제 위기를 발생시켰다. (p. 178)

역사적으로 생산 과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의 원인이 자유 경쟁에 의한 무계획적인 생산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수정안 : “여러 이유로 생산 과잉이 초래되어 주기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하였다.”

심화 과정 : 시민의 자격과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p. 184-185)

심화 학습의 내용이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학습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내용은 바로 앞의 “시민 혁명과 시민 사회의 발전”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본문의 학습 주제와 관련 있는 심화 학습의 내용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수정안 : 예를 들어, “근대 산업 혁명이 가져온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현대 지식·정보 혁명이 가져온 변화를 비교한다.” 등 본문의 학습 주제와 관련 있는 심화 학습의 내용을 제시한다.

### (1)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탐구 활동 : 한대 공화국과 열대 공화국 (p. 231)

제시된 사례는 경제 후생 지표로서의 국내 총생산이 지니는 한계를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대 공화국이 열대 공화국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고 의료 서비스나 문화적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유럽 왕의 생활이 근면하고 검소한 농민의 생활을 능가하는 것은 후자가 다수의 아프리카 왕의 생활을 능가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

수정안 : 제시된 사례를 통해 경제 후생 지표로서의 국내 총생산이 지니는 한계가 과장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한다. 예를 들어, “한대 공화국이 열대 공화국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고 의료 서비스나 문화적 혜택이 더 클 수 있다.” 등의 내용을 추가한다.

탐구 활동 : 경제 성장률의 계산 (p. 233)

제시된 자료가 너무 오래된 것들이다. 우선 1990년 가격을 불변 가격으로 실질 국내 총생산이 계산되어 있는데, 현재 2000년 가격을 불변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과제 1과 과제 2에서 1997년과 1995년의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1997년과 1995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최근의 자료로 대체하고 이를 바탕으로 탐구 활동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계청 홈페이지가 통계정보시스템(KOSIS)을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

수정안 : 2000년 가격을 불변 가격으로 계산한 최근 자료로 교체한다. 과제2에서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KOSIS)를 소개한다.

경제 변동의 요인 (p. 233)

이 제목하에서 주로 노동, 자본, 기술, 부존 자원 등 경제 성장의 요인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 제목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수정안 : “경제 변동의 요인”을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 수정한다.

과소비 (p. 233)

과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과소비가 한심한 일이야’라는 선생님의 반응을 싣고 있다.

수정안 : “과소비”를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로 수정한다.

경제 성장과 저축 설명 전체 (pp. 234-235)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자본 축적을 위해 저축이 필요하고, 국내 저축이 부족할 경우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라도 자본 스톡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논리가 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저축의 의미와 외채의 부정적 시각에 지나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수정안 :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자본 축적을 위해 저축이 필요하고, 국내 저축이 부족할 경우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라도 자본 스톱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구성한다.

외채가 많아지면 상환 부담이 늘어나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p. 235)

학생들에게 외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자본 축적을 위해 국내 저축이 부족할 경우 해외 저축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대목이며, 오늘날과 같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많은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또한 해외 자본이 들어와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 없이 일방적으로 외채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 학생들이 편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수정안 : “자본 축적을 위한 국내 저축이 부족할 경우 해외 저축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외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상환 부담이 늘어나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늘려야 하는데,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 (중략)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한 것이다. 합리적인 소비는 국내 투자 재원을 조달할 정도의 저축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을 이끌 수 있는 소비 수준을 의미한다. (p. 235)

먼저 지나치게 케인즈의 “절약의 역설”을 의식한 표현이다. 사실 금융 시장이 원활히 작동되고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면 저축은 투자로 전환될 것이며, 저축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크게 걱정하

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어떻게 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경제 성장을 위해 적절히 소비와 저축으로 나눌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합리적인 소비란 중학교에서 배운대로 개인의 소비 지출로 인한 이득이 비용보다 크면 되는 것이다.

수정안 :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저축을 늘려야 한다는 선에서 기술하고, 소비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한다.

탐구 활동 :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p. 236)

우선 자료가 모두 1999년 신문 자료이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규제 완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에서는 규제 개혁 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 단체도 자기 지방에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자료와 적극적으로 규제를 줄이려는 노력을 대비시켜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추론하는 형식으로 탐구 활동의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 불필요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자료와 적극적으로 규제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자료를 대비시켜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추론하는 형식으로 탐구 활동의 내용을 수정한다.

탐구 활동 :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 (p. 237)

대기업이 협력업체(중소 기업)에게 납품 단가를 낮추도록 요구하는 장면을 삽화로 제시하고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필요한 규제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대기업도 국제화, 개방화로 인해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해 있다. 대기업도 다른 나라의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경쟁해야 하며 여전히 가격 경쟁은 주요 경쟁 요소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역시 납품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임금이 싼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게 횡포를 일삼는 집단으로 부정적인 관점에서 묘사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정안 : 필요한 규제에 해당하는 삽화 내용을 환경 관련 규제 등으로 교체한다.

자료 2 : 국가별 경제 성장률의 차이-1985년 가격 기준 (p. 238)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가 않으나, 맨큐의 경제학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제3판에서 1997년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자료가 갱신되었으므로 이것을 참고로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의 출처도 가능한 밝히는 것이 옳다.

수정안 : 자료2의 내용을 최근 자료로 수정하고, 인용 출처를 밝힌다.

## (2) 현대 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 관련 설명 전체 (pp. 240-241)

교육 과정을 참고해 보면, 이 부분의 주요 학습 내용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사회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가 아무런 연관성 없이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가족 해체 현상도 최근 문제시되는 신용 불량자 문제와 관련될 수 있고, 환경 오염도 경제 성장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해결 방식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수정안 :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상호 연결 고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이제는 고급 양주, 모피, 이탈리아산 대리석, 해외 골프 관광 등의 사치성 소비가 급증하였다고 한다.

생각해 보기

- 과소비에 대해 나름대로 개념 정의를 내려 보자. (p. 240)

마치 양주, 대리석, 골프 관광 등 외제에 대한 소비를 ‘과소비’로 이해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국산품 애용이 최선은 아니라’는 지학사 251쪽의 설명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다.

수정안 : “사치성 소비에 대해 나름대로 개념 정의를 내려 보자.”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 (p. 242)

‘종합한다’는 말의 의미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평균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표기가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수정안 : “개별 상품의 가격을 평균할 필요가 있다.”

물가 지수는 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p. 242)

타 교과서에 비해 물가 지수에 대한 설명이 단순하다. 물가 지수는 서로 다른 시점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기준년도의 물가를 100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정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수정안 : “물가 지수는 서로 다른 시점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기준년도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비교년도의 물가 수준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물가 변동의 원인 설명 전체 (pp. 245-247)

교육 과정에는 물가 변동의 원인을 화폐, 수요, 공급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의 수요-공급은 당연히 총수요-총공급을 의미하며, 그것의 의미는 개별 시장의 수요-공급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총수요-총공급을 개별 시장의 수요-공급에 비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두 개념에 대한 혼란 내지 오개념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총공급에 비해 총수요가 크게 증가하거나 총공급이 줄어들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화폐 수량설의 논리는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설명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라는 개념까지 동원하고 있다.

수정안 : 물가 수준과 관련해 언급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경제 전체의 수요와 공급”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

라면 한 개의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에 20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다고 하자. 물론 사람들이 라면을 더 좋아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낮다. 라면에 대한 사람들의 취향이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전보다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p. 245)

우선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무슨 의미인지도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 또한 라면 가격의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기인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 등장하고 있다. 라면 가격의 상승은 라면의 품귀 현상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갖가지 이유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수정안 : 학생들에게 오히려 오개념을 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어 제시된 사례를 삭제한다.

탐구 활동 : 화폐 보유의 목적 (p. 246)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화폐가 교환의 매개 수단이기 때문이다.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여타 자산과는 달리 사람들은 화폐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달려 있다. (생략)

화폐 보유의 목적을 고전학파나 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환의 매개(거래적 목적)로 제시하고 있는데, 케인즈는 오히려 투기적 목적(이자율의 함수)의 화폐 수요에 주목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여타 자산과 화폐를 비교하는 것은 여기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수정안 :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는 목적의 하나는 화폐가 교환의 매개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화폐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달려 있다.”

생활 속으로 : 볼리비아의 초인플레이션 (p. 246)

학생들은 왜 볼리비아에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는지, 245쪽의 사진에서 왜 독일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는지 의아해 할 수 있다. 양국의 급격한 통화량의 증가와 초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수정안 : 양국의 급격한 통화량의 증가와 초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추가한다.

화폐 시장 그림 (p. 247)

그림에서 화폐의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그림에서 X축의 이름(통화량)이 없다.

수정안 : “화폐의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과제를 추가한다. X축에 “통화량”을 추가한다.

정부는 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경제의 능력에 알맞은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p. 247)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해 유일하게 기술된 문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수요를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정안 : “정부는 경제 전체의 수요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세입과 재정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 (3) 세계 시장의 경제 경쟁과 협력

탐구 활동 : 전갈의 정체성 (p. 250)

탐구 활동에 제시된 소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언뜻 보면, 전갈처럼 자신의 정체성(독침을 찌르는 것)을 강하게 갖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걸림돌, 즉 모두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교사용 지도서 281쪽에는 “우리 사회·문화의 참다운 정체성을 찾아야 우리 경제의 진정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저자가 말하고자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수정안 : 정체성을 갖는 것이 세계화에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제시된 사례를 그런 의도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

절대적으로는 두 가지 일 모두에서 열등하지만, 요리하는 일에 비하면 씨는 일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p. 253)

대체로 (2국 2재화 모형으로) 비교 우위를 설명할 때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두 가지 일에 모두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모두를 다 수행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에 특화하여 교환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설명 방식을 택한다. 이런 방식이 학생들이 비교 우위 개념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정안 : “절대적으로는 두 가지 일 모두를 능숙하게 하지만, 요리하는 일에

비하면 써는 일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경쟁 우위가 국제 거래 관계를 더 잘 설명해 준다. 경쟁 우위는 노동, 자본 등 한두 가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달, 기업의 전략과 구조, 정부 정책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지구촌 경제 시대, 무한 경쟁 시대에서 경쟁 우위는 국가의 흥망이 직결되어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p. 253)

우선 경쟁 우위는 경영학 일각에서 최근에 제시된 개념으로 교육 과정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보다 비교 우위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정안 : “경쟁 우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비교 우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

국제 수지와 환율 (p. 254)

다른 교과서에 비해 국제 수지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단순히 국제 수지에 대한 정의만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 수지를 통해 나라 간 교역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수지의 기본적인 개념은 충분히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정안 : “국제 수지를 구성하는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의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경상 수지와 환율과의 관계에 대한 서술을 추가한다.”

그래프 : 우리나라의 환율과 국제 수지 변화 (p. 254)

그래프를 보면 국제 수지라고 표시되어 있으면서 경상 수지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물론 경상 수지를 국제 수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경상 수지라고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수정안 : “우리나라의 환율과 경상 수지 변화”

생활 속으로 : 닭들의 침략 (p. 254)

뉴욕 타임스 기사를 인용함으로써 비교 우위를 상실한 러시아의 양계 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보다는, 예컨대 일부 농산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 비교 우위를 상실했거나 상실해 가는 상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현대 경제 문제의 하나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단원과 단원 사이의 연계도 좋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 가능하면 일부 농산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에서 비교 우위를 상실했거나 상실해 가는 상품의 사례로 수정한다.

탐구 활동 : 우리 경제의 해외 의존성 (p. 258)

과제 : 그림에 나타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

여기서는 국산품에 들어간 수입 원자재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주요 문제일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개방 경제에서 국산품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가 가치가 높은 핵심 부품을 수입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산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다. 만일 국내에서 만드는 것보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유리한 부품의 경우 저임금 국가에서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할 수도 있다. 이런 사실들이 이 탐구 활동에서 간과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국산품 애용”과 비슷한 국

수적인 의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수정안 : “국산품에 수업 원자재를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득과 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

자료 3 :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비교 우위의 변화) (p. 261)

사소한 지적이지만, 제시된 표에서 “1990년대” 행의 “특징” 열에서 조선 산업은 “비교 우위 분야” 열로 옮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 표에서 “1990년대” 행의 “특징” 열에서 조선 산업을 “비교 우위 분야” 열로 옮긴다.

## 8) (주)천재교육

### (1) 서양 시민 사회의 형성과 발전

노동자들, 드디어 참정권을 획득하다! (p. 170)

산업 혁명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삶의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충분히 서술되어 있지 않다. 그 대신에 산업 혁명을 통해 빈부 격차와 노동 문제가 심화된 것만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

수정안 : 산업 혁명의 의미와 의의에 대한 서술을 추가한다.

근대 시민 국가의 경제 이념의 바탕을 이루었던 자유 방임주의 사상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p. 172)

앞에서 언급된 문제점과 비슷하다. 자유 방임주의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고, 자유 방임주의 사상의 문제점만이 강조되어 기술되어 있다. 균형 잡힌 서술이 필요하다.

수정안 : 자유 방임주의의 의미와 의의에 대한 서술을 추가한다.

### (1)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자료실 : 국내 총생산(GDP)의 한계 (p. 226)

국내 총생산이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을 측정하는 보편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나, (생략)

사소한 지적이지만, 보편적 지표라는 표현하는 것보다는 일반적 지표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정안 : “국내 총생산이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소득 수준을 측정하는 일반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나, (생략)”

읽기마당 : 경제 성장률은 높을수록 좋은가? (p. 227)

생각더하기 : 일반적으로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교사용 지도서 233쪽의 해설에서, “경제가 안정되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선진국의 경우 (생략)”라고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투자 총액은 말할 것도 없이 선진국이 많다. 다른 한편으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률의 차이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또는 자본의 한계 효율)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즉, 선진국은 후진국보다 자본 스톡이 풍부하기 때문에 똑같은 규모의 투자(자본 스톡의 증가)를 해도 추가적인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후진국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정안 : 교사용 지도서 233쪽에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추가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고용과 생산이 늘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늘어나 자본이 축적되고, 이는 다시 투자의 증대로 이어진다. (p. 230)

투자의 정의(자본 스톡을 늘리는 행위)를 모르면 저축-투자와의 관계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자본 축적 → 투자의 연결 고리는 잘못 사용되었다. 오히려 투자 → 자본 축적이 바른 연결 고리이다. 왜냐하면 자본 축적으로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로 자본 축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 축적 → 투자를 억지로라도 연결시키려면, 저축 → 투자 → 자본 축적 → 경제 성장 → 국민 소득 → 저축 → 투자의 연결 고리를 제시해야 한다. 저자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 “일반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고용과 생산이 늘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늘어나 투자의 재원이 된다. 투자를 통한 자본 축적은 경제 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이 된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기업들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p. 231)

기업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진술이 타당할 것이다. 위의 진술대로라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이면 기업들의 창의력 발휘가 저절로 이뤄지는 듯한 인상을 준다.

수정안 : “기업들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

다. 그러면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 (2) 현대 경제 문제와 해결 방안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저임금 체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소득 분배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생략) (p. 234)

저임금 여부는 생산성과 비교하여 말할 수 있는데, 60년대 이후 경제 발전 단계에서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상승률을 하회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므로 저임금 문제는 쉽게 이야기할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소득 분배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주장도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가 우리와 비슷한 발전 단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였다는 통계도 있으므로 쉽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즉 구체적인 통계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은 교과서에서는 신중하게 취급해야 할 것이다.

수정안 : 제시된 내용을 삭제한다.

경제 성장으로 국민 소득이 늘어나도 물가가 그 이상 올라간다면 실제 생활 수준은 더 낮아지게 된다. (p. 236)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진술이다.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로 표시한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은 실질 GDP가 증가했다는 말이며,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개선되었다는 말이다. 만일 물가 상승률이 명목 GDP의 증가율보다 크다면 실질 GDP는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며, 그 경우는 실질적인 생활 수준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수정안 : “명목 국민 소득이 늘어나도 물가가 그 이상 올라간다면 실제 생활 수준은 더 낮아지게 된다.”

물가가 상승하면 생산 원가가 오르게 되어 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생략) (p. 236)

단기적으로 총수요의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은 오히려 기업 생산을 과열시킬 가능성이 있다. 총공급의 감소로 인한 물가 상승이 기업의 생산을 위축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물가 상승으로 생산 원가 인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원가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른다고 볼 수 있다.

수정안 : “생산 원가가 오르게 되어 발생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 물건이 모자라면 물가는 오른다. 예를 들어, 석유나 철강과 같은 주요 품목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중략) 그 가격은 오른다. (p. 237)

자칫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심어줄 수 있다.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운 개별 상품의 가격의 변화와 경제 전체의 물가의 변동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 첫 문장은 개별 시장의 가격의 변화를 연상시킬 수 있다. 여기서 경제 전체의 공급(총공급)에 비해 경제 전체의 수요(총수요)가 클 때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 수준(물가)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예로 든 석유나 철강의 품귀 현상 자체는 석유나 철강 가격의 인상을 가져오지만,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들 재화의 가격 상승이 생산비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수요의 증가에 의한 물가 상승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수정안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경제 전체의 수요는 많은데 이에 대한 경제 전체의 공급이 모자라면 물가는 오른다. 예를 들어, 석유나 철강과 같은 주요 품목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중략) 그 가격은 오른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생산비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실업 증가로 이어진다. (p. 238)

기업의 입장에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판매 가격 역시 올라가게 되어 반드시 불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생산비 증가를 판매 가격 인상으로 100% 전가시키면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물가 상승과 실업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생산비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

수정안 : “생산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 상승은 기업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실업 증가로 이어진다.”

#### (주) 천재교육, 239면, 전체

물가 안정 대책 관련 서술 전체 (p. 239)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와 통화 당국의 거시 경제 정책보다 개별 경제 주체의 행동 규범이 강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데 힘쓰는 것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이것을 물가 안정을 위한 행동으로 규범화하는 것은 매우 어색해 보인다.

수정안 : 기업, 근로자, 가계의 규범적인 행동 원칙에 대한 서술을 축소하고, 정부와 통화 당국의 물가 안정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

근로자들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p. 239)

이 문장은 아마도 ‘물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지나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문장만으로 그것을

읽기 어렵다. 아울러 ‘지나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등에서 나오는 ‘지나친’도 불명확한 표현이다.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쓰여져야 할 것이다.

수정안 : “근로자들은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는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읽기 마당 : 우리나라 여성의 실업 문제 (p. 244)

경제 활동 참가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실업률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활동 참가율의 개념이 학생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

수정안 : “경제 활동 참가율”에 대한 보충 설명을 각주 형태로 제시한다.

심화 학습 : 사회 문제의 경제적 분석 (p. 245)

2. (생략) 국민의 자발적인 환경 보호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제안해 보자.

교사용 지도서 241쪽에 제시된 해설 이외에, 최근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른 하늘21”과 같은 환경 오염 총량제 도입 등 시장에 기반한 환경 정책 (market-based policy)을 소개하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수정안 : 교사용 지도서 241쪽에 최근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른 하늘 21”과 같은 환경 오염 총량제 도입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

### (3) 세계 시장의 경제 경쟁과 협력

국제 수지 흑자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기 쉬우며 (생략) (p. 249)

국제 수지 흑자와 통화량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왜 그런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국제 수지 흑자와 통화량과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하게 경상 수지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정안 : “경상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흑자 금액만큼 외화(달러 등)를 벌어들이게 된다.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우리나라 화폐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나타나게 되며”

환율이 상승하면 (중략) 우리 나라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중략) 그러면 국제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고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 상품의 가격은 비싸져 수입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생략) (p. 250)

우선 환율과 수출품 및 수입품과의 가격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 환율이 상승할 때 우리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우리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입 상품의 가격은 비싸진다는 것은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문에서 언급하는 가격이 하나는 달러 표시 가격이고 다른 하나는 원화 표시 가격인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가격’으로 표기하여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다.

수정안 : “국제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내려가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비싸져 수입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경쟁력이 있어야 국제 경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p. 251)

자료 7 :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상품의 수

자료 7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상품의 수만을 통계로 보여주면서, 열악한 한국의 상황과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 상황을 대비시켜 단원의 제목을 “경쟁력이 있어야 국제 경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지만 11위에 랭크되는 우리나라의 국제 무역 상황을 감안할 때, 이는 너무 수세적 논리이며 국제 경쟁력을 길러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성장하고 번영’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 : “경쟁력이 있어야 국제 경제 사회에서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다.”

과거 우리 나라 기업들은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재무 구조가 부실해지고, 가족 중심의 경영으로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가격 경쟁력 외에는 마땅히 내세울만한 것이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다른 나라가 모방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p. 253)

과거 어느 때 어떤 기업들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무 구조가 부실해지고, 가족 중심의 경영이 중심을 이루던 때는 너무 옛 이야기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가 아니다.

수정안 : “과거 우리 나라 기업들은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재무 구조가 부실해지고, 가족 중심의 경영으로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가격 경쟁력 외에는 마땅히 내세울만한 것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기업 스스로 다른 나라가 모방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탐구 활동 :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p. 254)

자료 2 : 과소비는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과제 2 : 자료 2의 사례를 통해, 외제 선호 풍토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동일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임에도 자사 브랜드와 외제 브랜드 상품의 판매고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외제 선호 풍조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왜 자사 브랜드보다 외제 브랜드를 선호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제 선호가 과연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것인지 논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동일한 가격에 품질이 좋은 수입품 선호를 비난하는 것은 비합리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조건 외제품을 배격하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정안 : “과제 2 : 자료 2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은 왜 자사 브랜드보다 외제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외제 선호 풍토가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과제 3 :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p. 254)

‘우리 나라의 농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비교 우위의 원리에 의해 농업을 포기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다른 부문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교사용 지도서 247쪽 해설에서, ‘비교 우위론에 입각하여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단정짓고 있다. 하지만, 모든 보호 무역의 논리에는 역시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농업 역시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지 무조건 농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 국내 보호 덕에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며 그 비용은 모든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이분법적 사고, 즉 농업을 포기하느냐 마느냐는 지양되어야 하며, 자료 1에 예시된 것처럼, 국내 농업이 비교 우위를 갖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전략 등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수정안 : “과제 3 : 국내 농업이 앞으로 비교 우위를 갖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전략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 제5장 결 론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의 경제관련 부분에 대한 내용 검토와 그에 관련된 부수작업의 일환으로 해당 교과서의 집필지침인 제7차 교육과정 사회과 경제 부분의 교육과정도 살펴보았다. 교과서 내용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중요한 문제점들은 해당 교과서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 한계나 문제점들이 구현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결론 부분에서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점들을 다시 요약 정리하여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 1. 초등학교 부분

일부 개념이 여러 학년에 걸쳐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심화 학습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교과서에서 경제관련 내용에 주어진 지면이 매우 제약적임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용어의 통일과 내용의 일관성도 필요하다. 학년별로 집필진이 다르다 보니 학년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다른 용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년별 교과서의 계열성을 보다 철저하게 수립하고, 내용의 위치 조정 및 배치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또 교과서를 집필할 때나 검수할 때 특정 학년의 교과서만 독립적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지 말고 전체 학년의 교과서 체계를 철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개인 및 가정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 원리나 개념을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현용 교과서

에서는 개인과 가정에 관한 내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고장, 지역, 국가, 세계에 비해서 작다. 따라서 개인과 가정의 경제 생활과 관련된 내용, 예를 들어 개인 금융이나 소비자 교육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경제 내용을 집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틀리거나 부정확한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도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각 세부 영역 전문가가 해당 영역 집필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

## 2. 중학교 부분

7차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경제 부분의 구성의 골격은 각 경제주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것이 큰 특징인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 교육과정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소비자, 생산자,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구실과 역할을 주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학문 중심이 아니라 현실 경제문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도록 하였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생활경제에 더욱 충실하며, 쉬운 내용으로 경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민주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하려는 긍정적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차 교육과정 중학교 3학년 경제 부분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각 경제주체의 ‘바람직한’ 구실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여기서의 바람직함이라는 것이 ‘합리성’보다는 ‘윤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윤리성’이란 각 경제주체의 사적 이익 추구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연결되어야 하고, 사전적으로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7차 경제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에 부수하는 문제점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서술상의 명백한 오류나 용어의 잘못된 사용 등은 성격상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들로서 수정 보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분들이다. 그렇지만 편제상 구조적이며 여러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교육과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구성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을 편제하는 과정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의 전형적인 활동 내용과 합리적 의사결정 부분들에 대한 서술 요구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각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합리성이 아니라 윤리성에 둘 것을 교육과정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각 경제주체(특히, 소비자와 기업)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생활모습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결여된 채 중학생들은 상급 학년의 경제 내용에 접하게 되고, 중학교 3학년 경제관련 수업과 고등학교 1학년 경제 및 심화과정 경제 과목 수업과 연계성이 떨어지면서 상급 학년에서 학생들이 경제 수업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소비자, 생산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내용이 소홀하게 취급되는 있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소비행위의 분석으로부터 수요의 법칙, 기업의 의사결정으로부터 공급의 법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 정부의 경제적 역할보다 ‘시민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경제적 일’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제대로 취급되지 않는 문제도 동일선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교육과정 지침이 모호하여 교과서별로 취급 내용 및 난이도가 심한 편차를 나타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의 결정과 변동에서 수요, 공급의 개념을 활용하여 가격의 결정과 변동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부 교과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도 사용하지 않고 시장가격의 결정과 변동을 설명하는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 교과서는 설명 도구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용한 가격의 결정까지만 이용하고 있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이동까지 도입하여 가격의 변동을 설명하고 있는 등, 분석 도구의 이용 수준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요-공급 곡선의 도입 및 곡선의 이동을 통한 설명을 중학교 교육과정이 요구하고 있는 지가 불명료하기 때문에 발생한 한계로 보인다. 물론 가격결정원리의 취급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는 중학교 학생들의 이해 가능성과 고등학교 ‘경제’ 교과와의 발전계통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하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7차 교육과정 경제 관련 부분 가운데 중3 교과서뿐만 아니라 전체 중등 교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경제윤리를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경제문제의 중요 원인이 ‘과도한 사익 추구’에 있다고 제시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과도한 사익 추구의 자제는 7차 교육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의 경제윤리에 대한 강조와 동전 앞뒷면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교육과정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윤리적 경제행위는 강제규범인 법의 준수와 비강제 규범인 협의의 윤리를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윤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법과 협의의 윤리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과도한 사익 추구를 자제하라고 할 때 그것이 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준법을 넘어서 비강제 규범으로서의 윤리 규범까지도 모두 지키라는 것인지가 모호하다. 자유시장경제는 법질서 내에서 ‘사익추구’를 포함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사익 추구가 합법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과도한 사익 추구’로 규정될 수 없다. 따라서 ‘과도한 사익 추구 자제’의 요구는 ‘책임을 지는 경제행위’ 또는 ‘준법적 경제활동’ 정도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 행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윤리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로서의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고 사회적 필요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적 사고(economic reasoning)의 핵심이다. 개인의 경제윤리를 통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학적 사고를 상당히 벗어나 있다. 건전한 경제윤리는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자산 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대부분의 경우 그 효과과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일부에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여 다루는 한편 자유경쟁의 장점은 강조하면서 그에 부수하는 문제점들은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을 여지가 있다. 교육과정 단원 (3)(다)에서 시장경제의 발전 과제 또는 체제적 문제점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시장경제의 문제점으로 시장경쟁의 부족 문제만을 다루며, 공공재 및 외부효과 등 시장실패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경쟁만 충분하면 시장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교과과정은 경제체제의 문제점 또는 평가기준을 효율성으로만 국한시키는 편향적인 가치판단을 암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체제의 평가기준은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 면에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평성과 관련하여 특히 시장 경쟁의 결과로 발생하는 분배 결과의 불평등성 문제와 그에 대한 사회제도적 완화 노력의 필요성 등이 교육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학생들은 혼합경제체제인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평가기준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가 특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시장경제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경제 체제인 수정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의 필요성 등이 중등 교육과정에서 시장경제체제의 특장과 더불어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제한된 지면 제약 하에 그것도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제관련 장단점이나 가치판단 기준을 충실하고도 균형있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만을 제시했을 수도 있음을 이해한다.

### 3. 고등학교 부분

먼저 고등학교 과정에서 경제 교육의 비중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사회에서 경제 영역에 해당되는 “Ⅷ.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은 총

10차시 분량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일부 경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Ⅵ.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2.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은 총 3차시 분량이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경제 수업은 넉넉잡아 1년에 총 13시간이 전부다. 고등학교 2, 3학년의 선택 과목으로 『경제』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총 13시간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경제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문제 의식 속에서 경제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학교 밖 경제 교육에도 힘써야 하겠지만, 학교안의 경제 교육의 비중을 확대하는 데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윤리적 규범이 강조되고 있다는 인상이다. 거시 경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개별 경제 주체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마치 소비자의 과소비 금지, 근로자와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이 경제 성장, 물가 안정, 국제 수지 개선, 국가 경쟁력 향상 등 주요 거시 경제 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대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소비자에게 과소비 금지, 분수에 맞는 생활, 바람직한 소비를,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기업에게는 공정한 경쟁, 신기술 개발, 경영 합리화, 소유 구조의 개선 등을 주문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교육 과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의 내용을 학습한 후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 중세 도시, 근대 사회,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시민의 개념을 심화 학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 혁명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기여하였음을 배우는 기본적인 학습 내용과 맞지 않으며 오히려 그 앞 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일곱 개의 교과서에서 이런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결국 교과서의 저자들이 집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교육 과정의 서술이 잘못된 데서 기인한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교과서에 나타난 문제점들도 검토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교육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가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시사를 준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비록 우리가 교과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과와 경제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자체의 분석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 개편을 위해서는 경제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교육과정은 몇 몇 사람에게 의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며 많은 전문가들이 합의하여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연구과제로 교과서를 직접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좋은 경제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준거들을 토대로 질문지 조사나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각자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가 이해하기 쉬운지 어려운지, 탐구 활동이나 심화 학습의 내용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현실 가능성은 있는지, 교과서에 포함된 개념이 많은지 적은지 등등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지속적으로 경제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병주, 박태원, 김준원,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1997. 5.
- 김승욱,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경제이론 교육의 문제점,” <중고등학교 <경제>관련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교과서포럼 제2차 심포지엄, 2005. 4. 29, 1~20
- 김영용, “경제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올바른 경제교육을!> 제4회 자유주의 워크숍, 자유기업센터, 1997, 7~38.
- 김정호, “경제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올바른 경제교육을!>, 제4회 자유주의 워크숍, 자유기업센터, 1997, 39~86.
- 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 반기업 정서의 현황과 과제>, 연구조사자료, 2003. 8.
- 이영훈, “중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그려진 한국경제의 모습,” <중고등학교 <경제>관련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교과서포럼 제2차 심포지엄, 2005. 4. 29, 21~45.
- 한진수, “어린이 경제교육 - 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유아교육학회 기조강연 논문, 2003, 2~33.